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4월19일, 26일 6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4월 6일(음력2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520호

“불교학생회 가입 할래?” “농담하니?”

불교동아리…40년 역사 10여명 ‘간신히’ 활동 | 기독교동아리…교수님 지도에 지원금 ‘팍팍’

3월 29일 오후 6시, 숙명여대 불교학생회(회장 최정민, 이하 숙불회) 회원 8명이 법당으로 사용하는 학생회관 402호 동아리방으로 모여들었다. 최정민 회장(가족자원경영학 2)은 월요일부터 이날 화요법회가 시작될 때까지 몇 명이나 참석할지 걱정이 많았다. “이번에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 더 가슴을 졸였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한시름 놨어요.” 전체 회원 20명 중에 실제 활동을 하는 회원은 10명 안팎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숙불회는 긴 역사에 비해 활동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외부지원은 동아리연합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20만원과 대불련 중앙본부에서 나오는 지도법사 정도. 가장 어려운 점이 학생들 사이에 숙불회의 인지도가 없다는 것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김경민 부회장(영문학부 2)은 “올해는 신입회원 8명이 가입했다. 2003년에는 신입회원이 한명도 없었고, 지난해에는 4명이 가입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성과”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기존 회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새벽부터 나와 포스터를 붙이고, 목이 터져라 거리홍보를 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숙불회는 매주 화요법회만은 꼭 봉행한다. 끊기지 않은 유일한 전통이다. 지난해에는 법회이외에는 활동이 없었다. 올해는 사찰순례 MT 일일찻집 등도 계획하고 있는데 섭외와 비용마련이 만만치 않다. 회원들이 인터넷을 뒤져가며 발로 뛴다. 선배들을 찾기도 한다. 참가비가 부담스러워 템플스테이 같은 것은 꿈도 못꾼다. 매달 걷는 1만원의 회비로는 운영비 쓰기에도 버겁다.

그래도 숙불회는 사정이 낫다고 자위하는 편이다. 4년째 신입생이 없어 동아리방이 없어진 서울시립대 불교학생회나 다른 동아리와 방을 같이 쓰는 명지대 불교학생회에 비하면 방도 있고 신입회원도 있고, 갖춘 조건이 대학의 불교학생회 가운데 상위권에 든다.

“불교에 관심 있어서 동아리방을 찾아온 학생에게 김밥 한 줄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럴 돈조차 없어서 안타깝다”는 최 회장은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좀더 종단이나 사찰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월 29일, 8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인 숙명여대 불교학생회가 최정민 회장(오른쪽)의 집전으로 화요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숙명여대에서 본 불교·기독교학생회 크고도 큰 ‘차이’

새학기가 되면 전국 대학 동아리들은 신입회원 확보를 위한 각양각색의 홍보전을 벌인다. 불교 개신교 등 종교 동아리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숙명여대 불교학생회와 C.C.C.의 하루 모습과 그들의 활동이야기를 들었다.



숙대 C.C.C.에서 사용하는 캠퍼스 전도자료는 C.C.C.본부에서 지급된다. 사진은 3월 30일 대표단회의에 앞서 기도하는 임원진들.

올 들어 세 번째 법회인데 이 정도 온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할 뿐이다.

<반야심경>을 공부하기로 한 숙불회원들은 회장의 집전으로 서툰 예불을 끝내자마자 두런두런 모여 앉아 지도법사인 홍지연 지도위원(대불련)과 대화를 나눈다.

“친구들에게 불교학생회 가입하자고 문자 보냈더니 13명이나 되는 친구들 모두 농담인줄 알고 응답이 없었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유진하양(정보과학부 1)이 말문을 열었다.

“기독교의 경우 C.C.C.나 I.V.F.(한국기독학생회) 등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정식 동아리 외에 각 학부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또 있는데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해주세요. 여기저기서 지원도 잘된다고 하던데…, 누가 우리 동아리에 오겠어요.” 홍보포스터에 교수님이 직접 모델이 돼 준 I.V.F.,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J.O.Y.(죠이선교회) 등 숙불회원들에게는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다.

3월 30일 저녁 7시 숙명여대 학생회관 511호. 숙명여대 C.C.C.(한국대학생선교회, Campus Crusade for Christ)를 이끌고 있는 김정래 대표(국문학과 3)를 비롯한 03학번으로 구성된 임원들이 들뜬 표정으로 하나 둘 동아리방에 도착했다.

“이번 행사에 05학번 몇 명이나 신청했지?”

“45명인가? 확인해 볼께.”

“반별 현황도 좀 확인해봐.”

이번 주 금요일 숭실대에서 열리는 1년에 한 번 뿐인 대학생 전도축제 ‘여우사이(여기 우리들의 사랑이야기)’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다. 총무 회장 서기 등이 머리를 맞대고 참가회원 명단을 점검하는 등 분주하다.

서울지구의 큰 행사를 앞둔 숙대 C.C.C.의 일주일은 예배 교육 전도 기도 등으로 빡빡하다. 매일 아침 8시 아침기도로 하루를 준비한다. 하루 1시간 캠퍼스 전도, 매주 화요일 교육, 금요일 예배, 매달 1회 연합예배 등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김 대표는 “회원들은 순장(선배)과 순원(후배)으로 일대일 결연을 맺고, 순장은 순원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며 “순원이 하나님에게 닿게 하도록 하기 위해 순장이 그 통로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과 관리 시스템을 자랑한다.

회원들은 “교육과 예배는 간사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외부인사를 초청하거나 교회에서 예배보는 일은 없다”며 만족감을 드러낸다. 숙대C.C.C.에는 본부로부터 송은영 대표간사가 파견돼 동아리 활동을 보조 후원한다. 어려운 점은 모두 간사와 상의한다. 간사들의 활동비와 생활비는 본부에 모금된 후원금으로 지급된다.

현재 숙대C.C.C.는 1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비는 따로 없다. “운영비는 간사, 졸업생, 재학생 등의 비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귀띔한다.

숙대C.C.C.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여유롭다. 신입회원 홍보 시에도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입생을 위한 캠퍼스 전도, 일대일 설득방식을 즐긴다. 충분한 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전도 소책자도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본부에서 지원된다. 최정민 서기(정보과학부3)는 “올해 신입회원 수가 늘어 56명이 새로 가입했고, 세미나실이나 강당에서 열리는 금요예배에는 30~60명이 꾸준히 참석한다”고 알린다.

“학년 초 전체 OT와 숙명기독교연합이 주최하는 크리스천 신입생을 위한 OT에서 일대일 전도 홍보를 많이 한다”는 조성옥 총무(인문학부 3)는 숙명기독교연합이 학기별로 크리스천 대상 장학금을 주는 등 학생지원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기를 북돋운다고 말한다.

장수진 전임회장(불문과 02학번)은 “철야기도회나 수련회 등은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세미나룸 방송시설 숙박 및 여가 시설 등이 일괄 구비된 C.C.C.센터에서 모두 소화한다”며 행사 시 장소 섭외 등의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글 · 사진=강지연 기자

‘간화선’ 특집 부록 발행 타블로이드판 16면

알림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참가비: 28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참가신청: 3월 21일~ 5월 10일
■ 주최: 현대불교신문
■ 기간: 7월 28일~8월 18일
■ 정원: 선착순 40명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협찬: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크루즈여행. 잠수함 및 요트여행.
※지난해 참가자에게는 와이메하공원 원주민체험, 쿠할리아목장 승마체험, 워터파크등 별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지환 스님 / 4월 9일 오후 2시 범어사

‘할’



그림 · 조태호

인각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 · 25면에

승풍 확립과 투명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 화 문

존경하는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어느덧 제31대 총무원 집행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과없이 주어진 임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종정 예하를 비롯한 원로대덕스님의 지도편달과 종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루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종단은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몇 가지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종도들의 숙원인 역사문화기념관 불사가 오는 9월 1일이면 완공되어 개관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착공되어 연수와 간화선 체험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스리랑카 조계종마을 건립과 쓰나미 성금모금 등 자연재해로 실의에 빠진 인근국가들에 대한 구호활동으로 종단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지난 11월말에는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을 복원하여 정부 당국자와 현대아산, 그리고 조불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이 종단의 각 영역에 대한 진단과 밑그림을 그렸던 설계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많은 종책 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 승풍진작과 승가위계 확립을 위해서 제반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사찰재정의 투명화나 사설사암 문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종헌종법상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년 동안 준비해온 승가교육제도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확정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국제포교를 활성화하고 템플스테이를 한층 더 발전시킴으로써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한국불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시작된 승려노후복지기금의 확보, 실비노인복지시설의 건립과 더불어 승려노후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할 종단의 재정확대사업도 마련하여 그 구체적 대안이 검토를 마치고 착수단계에 놓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규제에 의해 자유로운 불사가 제한되어 왔던 것은 사찰의 오랜 민원이었습니다. 이 해묵은 숙제를 반드시 풀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반 국가법령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국회를 상대로 한 국가법령 개정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4년 이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종헌종법의 체계도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서 종헌종법제개정팀을 구성하여 서로 상충되는 법령이나 현실과 괴리된 사문화된 법령 등에 대한 제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뚜렷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사복원불사의 지속적인 시행과 남북불교의 교류 확대 및 환경 · 인권 · 통일의 영역에서도 종단이 선도적인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 사찰의 여건에 맞는 사찰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인사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종단의 예산과 종무관리를 더욱 체계화하는 등 효율적인 종무행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 3월 9일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그리고 여야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투명사회를 위한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GDP 등 여타 다른 지표는 10위권에 머무는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지만 부패지수에서는 세계 50위권에 머무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사회지도층에서 진작 했어야 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단에서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그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승가는 계율정신과 무소유의 원칙이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지켜져 왔던 인류양심의 상징입니다.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

최근 종단 주변에서 불사와 관련하여 종단 일부에서 위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종단법에 의거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낱낱이 종도 여러분께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중앙종회와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사회법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련 없이 종단법과 사회법에 의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단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떨어내고 이제 안정과 화합을 이루어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소수인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무책임한 폭로와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사부대중의 엄혹한 문책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종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종단을 둘러싼 현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발목을 잡기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홈페이지와 교계언론 등을 통해 임기 후반기 종단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종도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소중하게 종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31대 총무원에서는 앞으로도 종도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종무행정을 올바르게 구현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질책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9(2005)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65세 이상 스님 연금지급 추진

조계종, 수익사업기반 종단재정확대…대책팀 구성

조계종이 세납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연금 지급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31일 총무부장 무관 스님이 대독한 담화문을 통해 "승려노후연금제도 운영 방안을 연구해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종단 재정확대사업도 착수단계에 놓여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조계종 총무원이 31대 총무원 출범 3년차를 맞아 승려노후복지, 종법령 제 · 개정, 국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실시된다.

승려노후복지 대책팀은 기획국장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 5명과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 총 10명 이내로 구성됐다. 대책팀은 세납 65세 이상의 스님 1173명 중 본말사 주지나 법인이사, 강원 강사급 이상 등 각종 유급 소임자를 제외한 뒤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책팀은 확정 인원수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출한 뒤, 실시되고 있는 보험사업을 비롯해 통신사업, 부동산신탁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을 검토한다. 또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승려노후복지특별회계로 점차 변환시킬 예정이다.

대책팀은 3월 말 기초 데이터를 취합해 4월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워크숍(또는 공청회)을 개최한다. 6월에는 실행계획을 만든 다음 올 11월 대상업체를 선정 · 계약하고 담당부서를 선정한다.

기획국장을 팀장으로 한 종헌 · 종법 개정 실무팀은 6월 초 워크숍을 진행한 후 7 · 9월 임시중앙종회에 '법인관리법' '사찰예산회계법' 등 사찰관련 법안과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신도법' 등 사회 · 포교분야 법안, '징계법' '승려법' '종무원법' 등 종풍진작 법안을, 11월 정기중앙종회에 '승려교육제도 개선안 관련 법안' '선거제도 정비 법안'을 상정 ·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가법령개정팀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각종 국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종단 산하 전통사찰 부동산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 외에도 종책 대안 의견 수렴 창구 다변화를 위해 조계종 홈페이지 내 종책개선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창구를 개설했다. 또 교구본사 기획국장 회의와 총무원장스님 이하 전체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연찬회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2003년 구성된 대정부종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4급 승가고시 443명 합격

조계종 비구(니) 법계 품수를 위한 4급 승가고시에 443명(96.3%)이 합격했다. 3월 25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올해 4급 승가고시는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한 460(사미 249명, 식차마나니 211명)명이 응시했으며, 사미 241명, 식차마나니 202명이 합격했다. **조용수 기자**

12일 포교 종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이 제1차 포교종책연찬회 '사이버 포교의 현실과 전망'을 4월 1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미래 △사이버 공간에서의 포교와 그 방향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교사이트 이용자들의 신행활동과 대안 모색 등이 발표된다. **강지연 기자**

"불사의혹 있다면 공개할것"

법장스님 '승풍확립…' 담화문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최근 종단 주변에서 불사와 관련해 종단 일부에서 위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총무원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 종단법에 의거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낱낱이 종도 여러분께 공지해 드릴 예정"이라고 3월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은 3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가계산서가 입찰 이전에 유출됐다. 선수금을 편법으로 지급했다. 계약서가 4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과정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은 올해 조계종 주요 사업 등이 담긴 '승풍 확립과 투명 사회를 이루기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만약 중앙종회와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사회법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장 스님은 "소수인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무책임한 폭로와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사부대중의 엄혹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한 18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이 3월3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품수식에 참석한 뒤 한 자리에 모였다.

"불국정토 이루는데 신명 바치리"

태고종 원로 18명 '대종사' 품수

태고종 원로의원 18명이 3월 30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종단 간부스님과 신도 등 200여명이 동참한 이날 품수식에서 승정원장 남파,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원법, 원로의원 청경 혜봉 지족 보안 벽파 혜종 남호 법장 덕화 자광 용수 행법 청은 혜암 도운 스님이 대종사 법계 증서를 받았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 법을 이은 대종사들은 종단의 사표이자 한국불교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글 · 사진/선암사=이준엽 기자

우리말 법요집 출간

천도·다비의식 등 담아

신행활동의 필수요소인 천도 · 다비 등의 의식을 우리말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법요집이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사찰별로 각각 진행해 온 한글의식을 통일하고, 불교의식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한글 통일법요집 Ⅰ-천도 · 다비의식집>을 발간했다.

지장불공(地藏佛供)과 관욕(灌浴) 등을 담은 '천도의식' 편과 수계(授戒), 발인(發靷) 등을 정리한 '다비의식' 편으로 구성된 법요집 Ⅰ권은 목탁과 요령 집전 방법은 물론 대중의 행동요령과 염송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일반시민들도 불교의식에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요집 Ⅰ권은 특히 조계종 차원에서 발행된 최초의 한글 통일법요집이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한글 보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통도사 방장 후보 선출

20일 산중총회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가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4월 20일 오후 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4월 10~12일까지이며,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는 4월 15~17일까지 통도사 종무소. 055)382-7182

남동우 기자

독도문제 불교교류에도 '영향'

한 · 일 불교문화교류협 '성과없는 만남'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주최로 3월 28일 도쿄 류텐지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한국인 희생자 추모 및 유골환국기원 법회에서 법장 스님이 추모사를 하고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 · 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불교교류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인 희생자 영령 추모위령재 및 유골환국기원 법회를 공동 개최하기 위해 3월 28일 도쿄 류텐지에서 만난 한일불교계 대표단 200여명은 성과 없는 만남을 가져야 했다. 법회는 원만하게 열렸지만 이어 진행하려고 했던 유골봉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고, 한일 공동기자회견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한일불교계를 냉각시킨 요인은 바로 독도문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법장 스님이 '시마네현이 지정한 '독도의 날' 제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려고 했기 때문. 당초 한일불교계가 서로 합의된 사항이었지만 일본 기자들이 불참해 한국기자들만 참석한 간담회로 만족해야 했다. 이와 관련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독도 등 정치관련 현안은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일본불교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한 관계자는 "방일 전 일본에 독도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얘기를 통보하는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쳤음에도 워낙 양국의 민감한 사안이 있다보니 종교적인 만남에도 쉽지 않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원우 기자**

전통사찰 영문 홈피 문열어

30여 대표사찰 소개, 관광 · 법문등 콘텐츠 다양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이 3월 28일 전통사찰 영문홈페이지(eng.koreatemple.net)를 공식 오픈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정보화사업팀이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에 들어가 작업한 전통사찰 영문홈페이지는 한국불교, 불교문화, 불교축제와 의식, 사찰과 여행, 유용한 정보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한국불교 코너는 한국불교 탐구에서부터 역사와 특징, 문화 등 한국불교 전반을 다루고 있다. 불교문화에서는 사찰예절에서부터 음악 무용 불화 등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연등축제 괘불재 영산재 예수재 등 불교 축제와 의식도 사진과 함께 한자리에 모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사찰을 선정해 사찰 소개와 더불어 관광팁, 성보문화재 가람배치, 갤러리 등을 제공한다. 테마별 불교여행 코너도 마련해 테마순례 코스 및 볼거리 안내와 일반적인 여행팁, 템플스테이 자료 등도 서비스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영문사이트 오픈을 시작으로 중국어 일본어 사이트를, 내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사이트도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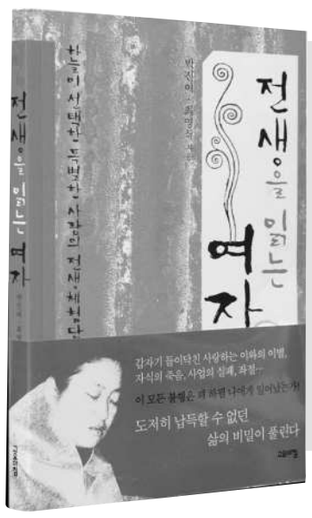
고침 본지 520호 부록 8면 '범어사 설선법회 10대 법주들의 공부법' 중 인각 스님의 직함을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로 바로잡습니다.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까르마(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996-6156 051)817-6156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놀랍지 않은가?

에드가 케이시에 못지않은
놀라운 리딩능력의 소유자 박진여의 최면투시!

2년 전 부산에서 있었던 어느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사관들은 범인의 윤곽을 대략 파악했지만 그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리딩을 부탁해 왔다. 경찰에서 준비해온 10명의 사진 속에서 범인의 얼굴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범인을 제외한 얼굴 사진은 모두 수사관들이었는데, 경찰관들이 리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일부러 범인 얼굴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했다 ...(중략)...
진여씨는 명상에서 깨어나 자기 눈앞에 펼쳐진 10명의 사진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얼굴을 지목했다. 그 예상 밖의 행동으로 진여씨를 아는 주위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고 반대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사관들은 탄성을 내지르면서 신기해했다.
그 두사람은 형제간으로 수사관들은 이미 두 사람을 주범과 종범으로 심증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

조계사청년회 집전대회 개인 최우수상 이정림씨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3월 29일 저녁 7시 30분 조계사 법당에서 청년불자들이 남모르게 갈고 닦은 집전 솜씨를 선보인다. 조계사 청년회 주최로 열린 제4회 집전대회 현장이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다섯 번째로 출전한 고란임씨(조계사 신도회)가 오체투지를 빠뜨리고 정근부터 시작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쌍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개인부문 10명과 단체부문 5개 팀이 출전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오체투지와 석가모니불정근을 한 이정림씨가, 단체부문 대상은 예경을 올린 조계사청년회 선정부가 차지했다. 조계사 신도회에서 유일하게 단체팀으로 출전한 인로왕법등은 장엄염불과 축원을 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봉영 기자**

스리랑카 불교보호 위해 개종반대법안 승인할듯

대표적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5월에 "타인에게 종교를 전해서 개종시키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종반대법안이 승인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자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는 서구를 비롯해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스리랑카 불자들을 경제적으로 유인해 개종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법안을 통해 스리랑카 불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유신 기자**

불교대학발전 공청회 동국대 8일 덕암세미나실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4월 8일 오후2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대학 교육목표'를 주제로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각화사 주지 혜담스님의 사회로 진행된다. 종립학교관리 위원 학담 스님이 '출가자 교육목표'를, 이평래 충북대 교수가 '재가자 교육목표'를 각각 발제한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는 3월29일 208회 이사회를 열고 1906년 명진학교 설립을 이끌었던 홍월초 스님을 동국대 초대 이사장으로 공식화 했다. **조용수 기자**

'재미·교육효과' 함께 노려라

전국 초중고교가 3월 26일부터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과 단체는 물론이고 박물관 기념관 체험학습장과 종교단체들까지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포교가 미래 불자를 양성하는 근간임을 생각한다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스님과 전문가들은 불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아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담', '참선', '템플스테이', '사찰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특성화'한다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 5일 수업, 불교계 이렇게 준비하자

상담·참선·기행 등 프로그램 특성화해야
관심사항 파악…가족단위 행사 준비를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불교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의 고민을 풀어줌과 동시에 집중력을 높여줌으로써 학습능력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비록 월1회에 불과한 상담이지만 나머지 30일을 알차고 씩씩하게 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 사찰학생회나 청년회 선배들이 들려주는 '공부경험'도 공부하는 마음을 낼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사찰들이 지역학교와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 분명하다.

사찰에서 준비하는 나의 미래

얼마 전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는 책을 낸 서광 스님은 서울 불광사와 봉은사 등지에서의 강의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미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강의는 온 가족이 함께 들어도 손색이 없다. 사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각종 강연과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특히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 중3, 고3 등의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만 되면 조만간 "절에서 들었던 스님 강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게 나올 듯하다.

직접 즐기는 체험교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4월부터 '불교생태학교'를 주5일 수업에 맞춰 매월 마지막주 주말에 실시한다. 사찰인근 생태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갯벌 탐사와 철새 관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온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 우곡선원(선원장 장명화)이 운영하는 참선·명상 교실도 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주말농장은 자연과 멀어진 도시아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보너스. 자기 손으로 재배한 음식으로 발우공양을 하면 맛도 두 배, 기쁨도 두 배.

불교 속에 역사 있다

한국전통문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명찰(名刹)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국보와 보물, 지방문화재 등이 즐비한 사찰을 돌아보며 역사를 배운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 책에서 보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모임 맑고향기릅게(대표 법정)가 4월부터 실시하는 '전국 숲기행'과 같은 프로그램이 좋은 예다.

가족간 대화 통해 정(情) 돈독

평창 극락사(주지 자용)는 주5일 수업 시행에 맞춰 3월 26일 가족법회를 열었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간단한 법회 뒤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는 초등학교 4년생까지는 레크리에이션을 위주로, 초등학교 5년생부터 중고학생들까지는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영어와 한문교실, 초청강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즈넉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스님은 "아이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불교계가 알찬 내용을 마련하면 주5일 수업의 '전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우·유철주 기자**

도움말 = 일관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행법 스님(광주 선덕사 주지), 자용 스님(평창 극락사 주지), 김광호(금화사 초등불교학교장), 윤예중(해남 대흥사 기획과장), 최경애(불교환경연대 총무국장), 김자경(맑고향기롭게 기획실장)



종교지도자들이 3월 26일 독도에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 독도서 日 규탄

종지협, '일본사죄·정부 적극대응' 촉구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주권침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 등 종교지도자들이 독도에 모여 "일본 규탄"의 한목소리를 냈다. 7대 종교 대표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는 3월 26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주권침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종지협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 피해민들은 국제연합과 연대해 국제법정에서 일본의 역사적 잘못을 심판하는 데 나설 것 ▲일본정부는 진실을 왜곡, 우호선린 관계를 위협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주권침해,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종지협은 이어 "대한민국 만세"를 세 차례 외친 뒤 순교자비에도 묵념했다. 협의회는 또 현지 주재 독도경비대에게 금일봉을 전달, 이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독도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사서실장 심경 스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성규 대표회장,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규만 신부,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 이명신 교무, 성균관 최근덕 관장, 천도교 김동환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독도=공동취재단**

대학신입생 개신교-불교-가톨릭順

대학생선교회, 전국 20만명 대상 종교현황 설문

한국대학생선교회(이하 C.C.C)가 올해 3월 2~11일 전국 300개 대학 20만 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종교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교(21%)가 개신교(22%)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종교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가톨릭 11%, 기타는 2%였다.

이번 설문은 서울 강릉 청주 공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8개 도시에서 표본추출한 355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9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한국갤럽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무교(43%) 불교(26.7%) 개신교(21.6%) 가톨릭(8.2%) 기타(0.6%)와 비교해 차이가 난다.

하지만 C.C.C 조사결과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대학생 등 젊은층의 불교세가 개신교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젊은층 포교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연 기자**

탈북자 사회적응 돕는다 원주 명륜사회복지관

원주 명륜사회복지관(관장 현각)이 4월부터 원주시 거주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누리터 만들기'를 운영한다.

'누리터 만들기'는 컴퓨터 교육에서부터 이력서 작성교육, 산업체 견학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지역문화탐방이나 취미교실 등 통해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한명우 기자**

천태종, 비닐 100톤 묘목 싣고 북으로

농사용 비닐 100톤과 묘목 1만 그루를 실은 18톤 트럭 6대가 3월 29일 통일의 관문인 파주시 도라산 출입국 관리소를 출발해 개성으로 향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이날 북한 영통사복원위원회로 전달한 농사용 비닐은 개성 영통사 주변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은행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적단풍나무, 소나무, 밤나무 등 묘목들은 영통사 주변 야산 녹화 및 진입로 조경용으로 식수될 예정이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방북에 앞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잘살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화사 복장유물서 고려 경전 5점 확인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는 지난해 대웅전 삼존불에서 나온 120여점의 복장유물 가운데 <상지은니(橡紙銀泥)대보적경 권 제94>(사진) 등 사경 2점과 목판본 경전 3점이 고려시대 것으로 확인됐다고 4월 1일 밝혔다.

지난해 대웅전 삼존불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5점의 경전 외에도 조선시대 성종 때(1474년)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등 경전류 100여점과 진신사리 등 120여점에 달한다.

동화사는 오는 4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특별전시실에서 '동화사 대웅전 출현 삼존불 진신사리 친견 및 복장물 전시대법회'를 열어 이들 유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해인사 실버타운 인수 또는 투자(또는 공영)하실 분 구함

인수의 개요

● **인수대상물**
① 현재 운영중인 유료양로원 해인사실버타운.
대지 1,800여평과 건평 1,600여평(15평형 62세대, 32평형 15세대)
② 신축중인 건물(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음)이며 대지 1,650평과 건평 1,600여평(25평형 70세대)

● **인수가격**
①의 건물은 70억원이상(단, 입주회원책임시 55억원이고, 2001년 5월 31일 본인이 인수시 가격은 63억원임)
②의 건물은 25억원 이상임(합계 90억원이상이며, 입주자 책임시 75억원 이상임) 단, 해인사 실버타운 입주자, 이 시설의 퇴소자 및 채권자에게는 우선하여 최소 인수가격(90억원)으로 양도함.

● **운영 및 현황** : 1997년부터 입주된 회원이 태반이며 종신형(평생회원)으로써 입주금을 뺀 후 남는 금액이 15억여원 정도이며, 현 입주세대는 35여세대이고 (퇴소 신청한 10여세대외), 남아있는 공실로는 15평형이 35세대(1인당 입주금이 8천만원)이고 32평형이 7세대(입주금 1억 5천만원)이며 현재는 이 시설이 개인소유(송선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용도변경이 가능하고(5년 기한이 넘었으므로) 평화은행에서 초기 건축자금으로 대출시 설정된 30억원 한도액 1순위근저당을 이전해 갈 수 있음 (1998년 발효된 유동화 자산법에 근거함)

● **인수방법**
인수의향서제출시[2005. 3. 20 – 2005. 4. 20]에 한하여 최고가에서 인도 결정함.

● **위치 및 주위 환경**
· 위치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341(및 344, 344-1)이고 주위로는 해인사 땅이며 이 시설부지앞에 6,500여평의 활용가능한 본인토지(추후 복지시설 활용목적으로 구입) 및 골프연습장이 있고 추후 지방국도 59호선이 지나가는 요지입니다.
· 주위환경으로는 가야산은 협곡에다 고봉준령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평지가 거의 없는 편이나 단지 해인사 본당쪽과 이곳 마장동은 10만여평의 제일 넓은 지역으로써 들어서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듯한 느낌과 남향이며 800m고지이면서도 전혀 높지 않다는 생각과 생기터(氣가 생하는 터)로써 여름에는 모기가 없고 선풍기가 필요없으며 공기 좋고 맑은 물이 풍부하며(백두대간의 수맥이 닿는다함) 고랭지 채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해인사 → 마장동 → 가조온천 → 88고속도로 가조IC로 이어지는 지방국도 59호선은 이곳이 중심이 되어 일부공사가 마무리된 곳입니다.

● **연혁 및 지명유래** : 역사의 향기를 항상 느낄 수 있는 이곳은 1300여년 전 애장왕께서 해인사를 창건하실 때 다니시던 길목이며 마장동(馬場洞)이라 했으며 왕을 보필하던 3정승이 상주 했다하여 삼정마을이고 항상 고향산천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천년고도의 무색치 않는 이름, 사시사철 삼림욕과 주변에 지천으로 있은 머루, 다래, 잣, 산딸기, 더덕 등은 산중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투자(또는 공영)의 개요

저 자신 이 시설을 인수(2001. 5. 31에 63억원으로 인수)한 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신도회등의 후원 차입금등으로 경매를 막고 신규시설을 증설하여서 손익분기점의 시설(유료양로원의 고정적인 운영비를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120여세대로 봄)을 맞추기 위한 정상화작업 중 초기 위 시설의 인수자금으로 활용되었던 은사스님의 유산5억원(동광문도회 복지기금)이 조기에 반환되지 못하다보니 문도회 일부 사제의 고소로 어려움을 겪던 중 입주회원의 차입금 4억여원까지 가세되어(노인에게서 차입했다는 이유로) 현재 구금의 입장에 처해있다보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여러 곳에서의 신뢰관계가 금이가고 복지사업자체에 차질이 생길뿐더러 입주자 및 후원회의 차입금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하여 절대적인 수혈(자금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초기의 인수금액(63억원)과 그사이에 들어간 자금 일부만 충당하는 선에서 이 사업을 이어 인수하실 분이나 또는 저와 복지 일을 같이 하시거나 투자 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돈만 걸려 있으면 훌훌털고 적당한 분에게 넘겨드릴 수 있으나 저를 신뢰하고 맡기신 후원차입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수자 금(70억원)의 조건이 붙게 됨을 양해바라오며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윤보다 복지의 신념을 우선으로 하는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양로원의 경우 현재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대안이며 그나마 핵가족 시대에서 지금은 자기 자식도 낳아서 기르기 싫어하는 마당에(저출산율의 이유) 당장 닥쳐오는 노령문제는 사회문제이고 특히 종교계의 당연한 문제입니다. 저는 한 종교에 몸담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의 복지신념과 뜻을 같이 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진심으로 사심 없이 혼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신의를 지키면서 저의 승려생활 40여년의 명예를 걸고(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문화부장, 해인사길상암주지, 해인사 총무국장 등) 이 시설을 회복하면서 종교복지 시설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승려가 돈 문제로 이런 광고를 내는 것은 자신 부끄럽고 다른 종도에 대한 오해와 그 후유증을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투명한 재정과 운영을 통하여 후원자나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그래도 최악의 경우 운영에서의 근검, 절약과 후원회들을 통한 자구책을 구해가면서 빚 청산을 이루어야 하고 둘째,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여 장래적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하여는 제도권의 감시하에 연속성과 보존책이 강구되어야만이 저를 도와 주신분들의 뜻에도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써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심정으로 뜻있는 분을 기다리면서 저의 원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 **투자금 보존방법**
①의 시설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최고 한도액 30억원)에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질권 설정해 주는 방법과 ② 해인사 실버타운 앞에 6500평의 개인땅(송선개)에 10억원 이상의 근저당 해드리는 채권 보존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2005년 3월 20일 해인사 실버타운 대표 송선개(송덕운)

■ 연락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341 해인사실버타운 (문의 : 011-9355-3778, 신선희 관리소장)

위계 세워 수행전통 맥 잇는다

16년만에 열린 조계종 비구니회 총회 성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비구니 원로회의 구성을 결의하는 등 500여명의 비구니들이 모인 가운데 16년 만에 열린 총회를 성료했다.

비구니회 3월 30일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범룡사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를 비롯한 회칙개정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의 안건으로는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를 위한 회칙개정 △제7대 임원인준 △비구니부 신설에 대한 입장발표 △한국비구니의 수행전통 포럼 개최(10월) 등이 상정 됐다. 전국 각 지회에서 올라온 비구니 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지난 1989년에 이어 16년 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 원로의원 추대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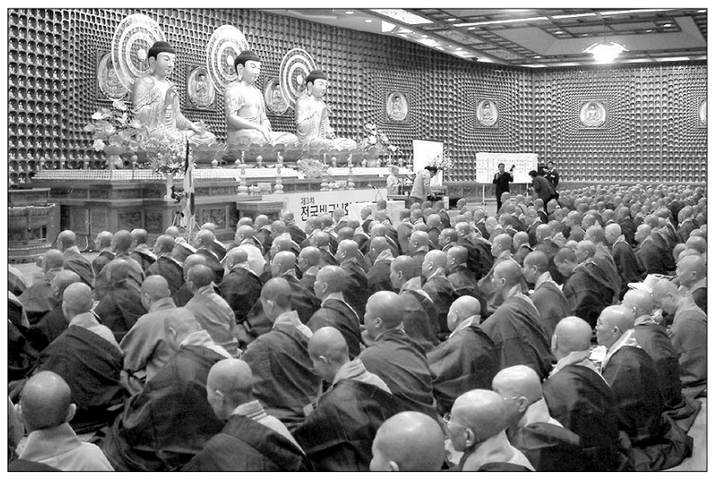
이날 쟁점으로 부각됐던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 건은 법랍 50세, 세랍 75세 이상으로 최고의 수행복덕을 겸비한 '계민' '청해' '봉래' '삼현' '법기' '의선' 등 각 문중 스님들을 중심으로 '원로추대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추대위원회는 운영위원단(회장단 및 각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위원회가 원로 후보의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 인준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로의원 추대를 위한 각 문중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날 총회의 의장을 맡은 명우 스님(수석부회장)은 "비구니 원로회의는 한국비구니의 사표가 될 최고의 수행승들만을 엄선할 예정"이라고 밝혀, 문중 안배뿐만 아니라 은처(隱處) 수행승을 아우르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원로회의 구성 결정으로 일부 권한이 중복되는 회칙 제8조의 총재직제는 삭제하기로 했다.

● 비구니부 신설에 힘 모으기로

제166차 임시종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비구니부 신설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된 수현 스님은 "종회의원(비구24 · 비구니10) 34명의 서명을 받아 비구니부 신설문제를 종회에 상정은 했지만 대부분 비구스님들의 무관심으로 정식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고 "비구니 스님들이 지역 종회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과 관심"을 호소했다.

종회의원 운달 스님도 "비구니부 신설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7000여 종단 비구니들을 위한 종책개발, 승풍진작, 사회적 역할확대, 교육 · 포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구니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해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3월 30일 열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3회 정기총회에는 전국에서 500여 스님들이 동참했다.

● 수행전통 포럼 개최

한국비구니의 수행전통을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 포럼을 10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기획실장 혜원 스님은 "근 · 현대 비구니들의 수행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출가자들의 모범적 수행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행전통 포럼은 강맥, 선맥, 계맥을 이은 스님이나 주력 범패 단청 복식 요리 사경 등 각 분야에서 특징적인 활약을 보인 비구니 스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밖에 총회는 제7대 임원단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현, 부위원장 보각 재희 혜운 성총 스님을 비롯한 12개 지회장들을 인준했다. 또 일부 스님들은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지원과 관련, 비구니사찰이 소외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총무원은 승려노후복지시설 10곳을 모두 본사 위주로 선정해 비구니 스님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북관대첩비 北 함북 길주에 복원

남북공동, 日에 반환 요청

북관대첩비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 복원된다.

북관대첩비 민족운동중앙회 남쪽 대표인 초산 스님과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은 3월 28일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관대첩비를 북한으로 옮겨와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복원과 관련한 행사를 열 예정이며, 초산 스님은 일본 당국에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초산 스님은 "남북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만큼 빠르면 4월 중에라도 북관대첩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정문부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1707년 함북 길주군 임명 고을에 세워진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전쟁때 일제가 약탈해가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왔다.

한편, 조계종도 3월 29일 조불련과의 회담을 통해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남북공동연등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4월 중순 이후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도 3월 27일 4월로 예정된 법타 스님의 방북 일정을 협의했으며, 천태종은 4월 1~3일까지 영통사 낙성식 등 대북교류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철주 기자

"보살의 원력으로 살자"

쌍계사 · 통도사 · 대흥사 등 보살계 수계법회

4월을 맞아 사찰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살계 수계 법회와 불사를 봉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당선원에 육조스님의 머리를 모셔 선풍을 드날리고 있는 하동 쌍계사(주지 우담)는 4월 13~15일 육조혜능 스님을 기리기 위한 '제30회 쌍계사 보살계 · 정대불사 · 육조봉찬회'를 봉행한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계사로 진행되는 보살계는 4월 13일 오전 10시 쌍계사 금강계단에서의 입제식을 시작으로 4월 14일 오후 8시에는 육조봉찬회가, 4월 15일 오전 8시에는 장경정대불사가 각각 개최된다.

국내최대인원이 참석해 계를 받기로 유명한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의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는 4월 13~15일 금강계단에서 봉행된다. 계사는 혜남 스님.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는 4월 8일 조실 천운 스님을 계사로 '호국성사 서산대사 탄신대재 보살계 법회'를 마련한다. 보살계 법회는 '서산대사 485주년 탄신대재'와 함께 봉행될 예정이다.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송광사(주지 영조)도 각각 4월 21~23일과 5월 4~5일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경허 · 만공 스님의 선풍이 살아있는 정혜사 능인선원이 중창불사를 마치고 4월 15일 재개원한다. 사진제공=수덕사

수덕사 '정혜사 능인선원' 재개원

만공 스님 탄생 134주년 맞아

근현대 한국선불교의 꽃을 피운 경허 만공 스님 등을 배출했던 수덕사의 '정혜사 능인선원'이 다시 문을 연다.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는 오는 4월 15일 '만공대선사 탄신 134주년'을 맞아 정혜사 능인선원 중창불사 재개원과 함께 만공 스님 탄신다례, 보살계 수계법회 등을 개최한다.

능인선원은 조선 고종 32년 최초 설립된 이후 근현대 한국 선원의 전통과 수행가풍을 전승한 선원으로, 경허 · 만공 스님을 시작으로 혜암 금오 고봉 금봉 벽초 효봉 스님을 비롯, 최근에는 송담 진제 원담 스님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배출한 곳이다.

능인선원은 이를 위해 25명 이상의 수행자를 수용할 수 있는 39평 규모의 선방과 요사체 등을 마련했다. 또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지원하는 한다.

한편 4월 15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리는 '만공대선사 탄신 134주년 탄신다례'는 거불, 진영각 헌향 헌다, 만공탑 헌향, 능인선원 종사영반 시식 등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는 수덕사 대웅전에서 스님 및 신도 2천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보살계 수계대법회도 봉행된다. (041)337-6565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인도에 동산아카데미 설립

동산불교大, 초 · 중 · 고 교육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이 인도 유피주 슈라바스티 기원정사 천축선원(주지 대인) 부지에 '기원정사 동산아카데미'를 설립한다.

3월 21일부터 28일 까지 인도 현지를 방문한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천축선원 부지 2000평을 이용해 인근 주민들의 초 · 중 · 고등 교육을 책임질 동산아카데미를 건립하기로 대인 스님과 합의했다.

동산불교대학은 1차로 10평 규모 교실 10칸을 건설, 초등학교부터 개원한 뒤 영어 · 한국어 · IT 분야까지 확대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에 현지 주민들이 보건소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센터를 개설해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동산불교대학과 기원정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 사업은 3년 전부터 추진돼, 이미 '한국 보리수 소사이어티'라는 교육법인도 설립된 상태다.

김강진 기자

목탁소리

불자 지식인 양성 시급

지난 3월 29일, 한국대학신문이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총장의 프로필을 조사 · 발표했다. 조사대상인 180여명의 총장 중 자신의 종교가 불교라고 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한 26명이었다. 이외에 개신교가 79명, 가톨릭이 27명, 종교가 없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50여명이었다.

물론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내적인 자기수행이라 여겨 공개적인 자리에서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 성향이 짙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가 '총장'이라는 공적 직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더욱 종교를 밝히기 꺼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조사결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더구나 '불자 대학총장' 중 종립대학의 총장을 비롯해 박범훈 중앙대 총장, 성기태 중주대 총장 등을 제외하곤 불교계 단체 활동이나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이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것도 문제다. 불교계가 '지식인 불교' '지식인 포교'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지식인 양성'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지식인에 대한 포교는 단순한 '세(勢) 불리기' 차원을 넘어, 이들에게 든든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회 갈등과 분열의 해결책을 찾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제 '불자 지식인 양성'이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어야 할 때다.

여수령 기자

韓國禪佛敎曹溪宗入宗公告

韓國禪佛敎曹溪宗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하고,
고려국사 보제존자 나옹화상을 종조로 개창한 한국 선불교의 정통 종단으로, 선맥 진작과
불교 사회발전에 동참할 사부대중께 입종을 권고 하오니 무루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입 종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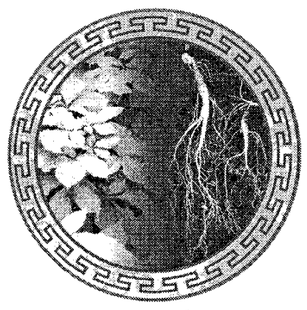
● 승 가 : 본종 혹은 타종단의 계단에서 득도계를 수지하고,
소정의 교육을 거쳐 승적을 취득한 승려(입종시 서류 및 면접 심사)

● 재 가 : 본종의 종지,종풍에 동의하고,선불교 발전에 동참할 분
(일정한 교육 이수후 본종의 재가승으로 승적 취득 가능)

● 연락처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 덕인사
부산시 진구 당감4동 751-16번지
전화 : 051)897-8078, 903-8078
팩스 : 051)896-9077

韓國禪佛敎曹溪宗 總務院長 覺圓 慧空 合掌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현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祝 : 현풍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풍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망주 손초롱 선수외 4명으로 출범한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산토종오가피 묘목분양 및 상담※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국제포교 특수전법인력 양성

비구니 대상 '해인사 외국어학림' 5월 22일 개원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산내암자인 고불암에 영어전문교육기관인 '해인사 외국어학림'을 5월 22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와 불교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 포교와 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할 특수전법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취지다.

2년제 전문교육기관인 해인사 외국어학림은 현대적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도입, 24시간 합숙훈련을 기본으로 모든 의사소통은 영어로 하며, 한국어는 별도로 정한 기간 중에만 사용토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전통강원, 승가대학, 동국대를 졸업한 조계종 소속 비구니 스님으로서 지원자 중에서 15명을 첫 입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외국어학림을 졸업한 스님은 향후 해인사와 조계종단이 필요로 하는 국제회의나 법회의 통역,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번역, 국제포교와 교류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해외유학 및 국제포교 활동에 필요한 종단적 지원도 받는다.

외국어학림은 한학기당 10주를 기본으로 1년을 4학기로 나누며,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방학기간은 3주가 주어진다. 수업은 정규수업과 특별수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총 8시간의 정규수업이, 토 · 일요일에는 각각 6시간, 4시간의 특별수업이 열린다. 그 외 정규수업 후 학림 내에서 이뤄지는 자율학습과 외부초빙강사가 정해진 주제로 특강을 하거나 해인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안내를 통해 현장 실습도 진행된다.

24시간 영어마을 형태로 운영
영문 불서 이해 · 동시통역에 중점
번역 · 국제교류 등 역할 담당

교과과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의 정규수업과정과 문법, 토플 · 토익, 불교학, 정보화 수업 등 특별수업과정으로 나눠진다.

1학년의 경우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해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며, 2학년은 고급문장의 읽기, 쓰기는 물론, 영문으로 된 불교서적을 이해하고 불교와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정확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다.

외국어학림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원어민 중에서 시간강사, 특강강사를 선발해 멀티미디어실과(다용도 활동실) 등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현재 해인사는 외국어학림 개원을 앞두고 강의를 맡을 외국인 강사와 외국어학림에서 수학할 비구니스님들을 모집중이다. 모집은 4월 20일까지. (055) 934-3095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615명 南불자 평화통일 염원

동화사, 5월 27일 금강산서 '남북화해…' 법회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화해 평화통일 기원 금강산 참배 및 해금강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동화사와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이 함께 봉행하는 이번 법회에서는 남측의 불자 615명이 참석해 6 · 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기원하게 된다.

통일기원대법회는 5월 26일 대구를 출발해 통일전망대를 거쳐 육로로 금강산에 들어가며 27일에 동화사 주지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 장영관 제9교구 신도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 화해 평화토일 공동 기원법회를 연다.

이어 28일에는 해금강으로 이동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방생법회에서는 하늘을 상징하는 조류, 땅을 상징하는 동물, 물을 상징하는 어류를 방생, 뭇 생명의 안녕과 민족의 번영을 기원할 예정이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어렵게 물꼬를 튼 금강산 관광 7돌 축하와 함께 북핵문제로 인해 얼어붙은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녹이는 민간차원의 교류행사가 될 것"이라며 "신계사 복원 불사와 더불어 평화적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행사가 될 것"이번 법회의 의미를 전했다.

배지선 기자

천성산 환경조사 25일쯤 가능

부산녹색연합, 산 정상 공원화 반대 성명 발표

천성산 환경조사가 4월 25일을 전후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율 스님 측 공동조사 전문가들은 3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15일경 공동조사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질 조사를 실시할 공사업체 선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조사는 4월 25일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합의를 이룬 생태계, 구조 및 지질, 지하수, 암반 분야와는 별개로 지구물리분야는 추후에 별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3월 24일 양산시가 천성산 정상 일대 공원조성계획을 공개하자 부산녹색연합이 3월 25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녹색연합은 "보호해야 할 습지가 있는 정상 부근에 3만평 규모의 해맞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양산시의 계획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원화를 통한 개발보다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습지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천성산의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양산시는 천성산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산시가 개발하려는 정상 부근은 지로 피해지역에서 공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천미희 · 유철주 기자

대구교사불자회 봉사단 발족

대구교사불자회(회장 신연섭)는 3월 29일 저녁 회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대구불봉사단을 발족했다.

대구불봉사단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를 행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매달 2차례 불교계 복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불봉사단은 첫 봉사로 4월 2일 불교사회복지회 여래원의 치매노인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배지선 기자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14주년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는 3월 26일 부산 크라운호텔 목련홀에서 정관스님을 법사로 창립 14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대각사 주지 흥교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교육감,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故 김정태 前 회장과 앞서간 회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김윤환 회장은 "발보리심의 굳은 신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신행과 사회 참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강병중 부산방송회장, 서춘석 중앙병원 원장, 박수복 대륙금속 대표이사, 하문원 호산 G.N.D 대표이사 등 명망있는 지역실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신행단체다.

천미희 기자

성윤 스님 추모재 · 부도 제막



부산 기장군 해광사(주지 혜성)는 1998년 법랍 64, 세수 80세로 입적한 해광당 성윤 스님의 부도 제막식을 3월 29일 봉행했다(사진).

성윤 스님 입적 7주기 추모재와 함께 열린 이날 부도 제막식에는 성윤 스님의 상좌 혜성 스님, 범어사 기획국장 정산 스님, 성왕사 주지 승호 스님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재)범어청소년동네가 부산시에서 수탁, 4월 7일 개관하는 금정청소년수련관.

얘들아 힘들지? '끼' 발산해봐

범어청소년동네, 금정청소년수련관 수탁

(재)범어청소년동네(이사장 대성)가 부산시에서 수탁, 4월 7일 오후 1시 30분 개관하는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정만)은 청소년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감성 문화 작업 수련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소년들의 삶을 체인지(change)하고 문화를 플러스(plus, +)하겠다는 각오로 범어사는 금정청소년수련관을 학교 교육의 스트레스에 지친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범어청소년동네가 금정청소년수련관을 수탁받음으로써 5개뿐이던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나 더 보태진데다, 6개 청소년 수련시설 중 3곳이 불교계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상호 연계 사업 실시, 정보 교류 등의 시너지 효과로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00여 평 대지에 건평 741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금정구청소년수련관은 탈학교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청소년 문화작업장 등 도시형 대한교육 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 운영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 청소년 자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금정청소년수련관이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문화 공동 작업. 청소년들이 캐릭터를 개발, 제작,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키우게 된다. 특히 음악 스튜디오를 설치, 학급 음반 제작 등 또래 청소년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만 스님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또 행복과 마음의 휴식을 만끽하는 공간이 되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51)581-2070

천미희 기자

옥수종합사회복지관 7주년

개관 7주년을 맞은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이 3월 23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를 비롯해 봉사자와 인근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관장 상덕 스님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 사회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옥수 복지관 우수 직원 상장 수여식과 떡 나눔, 발원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김강진 기자

영천 충효사 포항서 방생법회

영천 충효사(회주 해공)는 3월 21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 공원에서 '생명사랑 자비실천 춘계 방생대법회'를 봉행하고 '일본 독도 침탈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며 독도 수회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방생대법회에 참석한 신도 7천여 명은 '일본 독도 침탈 규탄 결의문'을 통해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복속된 이래 1500여 년간 이어져온 우리 고유 영토"라고 천명하고,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제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배지선 기자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상담·유해환경감시… '원스톱 서비스'

보령 청교련 '청소년 문화의집' 수탁


정운 스님

보령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보령지부(지부장 정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1995년과 1998년 보령시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이들 시설은 보령 청소년 시설의 핵심이자 전부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령지부가 최근 보령시로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위탁받았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에서 세운 지하1층 지상 3층(400평 규모)의 문화 공간. 보령에서는 유일한 청소년 문화시설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기존에 운영되던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시설도 문화의 집 개관과 함께 이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사업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그 형태는 바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란 청소년들이 한 시설 안에서 문화, 자원봉사, 상담, 유해환경감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청소년 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원하는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전국에서 보령이 유일하다.

현재 보령의 학교 수는 초등학교 34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을 합쳐 모두 53곳. 하지만 청소년상담센터 등 기존 3개 시설의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고·대학생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어린이·청소년 마당'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요가, 난타, 드럼 배우기 등 마련
초등생도 참여 어린이 포교 기대

시설 이용 청소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상담센터 등 기존 3개 시설 이용 학생수가 연간 4000명 선이지만 문화의 집이 개관하게 되면 4개 시설 이용 학생수는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 스님은 "이제는 청소년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며 "불교를 표방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포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370년 전 송광·천은사 함께 불사

송광사 설법전서 감로사 명문 기와 발견


송광사 설법전 번와 작업 중 발견된 기와.

370년 전 순천 송광사와 구례 천은사간의 교류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어 화제다.

송광사 박물관(관장 고경 스님)은 최근 "지난 3월 3일 설법전 번와 작업중 명문이 새겨진 망와(암막새) 4개를 발견했으며 명문을 판독한 결과 1630년 천은사에서 제조된 것이다"고 밝혔다.

고경 스님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망와 가운데 3개에 '경오년 4월 감로사 기와(庚午年四月 甘露寺瓦□)'라고 비교적 상세한 명문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며 "1630년 경오년 지금의 천은사인 감로사 기와를 뜻한다"고 말했다.

구례 천은사는 828년 감로사로 창건되었다가 1679년 단유선사가 중수 후 천은사로 사명을 개칭한 것으로 보아 1630년 천은사 전각의 번와 작업 때 제작된 기와가 송광사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 스님은 "명문에 새겨진 시주자 최영호(崔永浩)는 3년 후인 1633년 7월에도 송광사 천자암 중건 당시 시주자로 송광사지에 기록되어 있어 송광사와 인연 깊은 인물로 여겨진다"며 "어떤 연유로 천은사 기와가 송광사에 쓰였는지는 상세한 조사를 통해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명문 망와 가운데 다른 1개에는 '정덕삼년무진오월일(正德三年戊辰五月日)'과 '說○○'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어 '1508년 5월 설법전을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은사 명문 망와가 발견된 송광사 설법전은 1210년 보조국사가 법문을 설하던 곳으로 이곳에서 최후법문을 한 뒤 좌탈입망했다. 이 전각은 한국전쟁당시 소실되었다가 1968년 중건됐다. 이준엽 기자

선각종 옴천사 전통사찰지정


선각종 옴천사 전통사찰 지정기념 대법회.

대한불교 선각종 총본산 옴천사(주지 진수)는 지난 3월 20일 전통사찰 지정을 기념해 국태민안기원 및 국운융창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축사에서 "옴천사의 전통사찰 지정을 축하하며 포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전통사찰 지정을 계기로 더욱더 지역민을 화합하고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전통사찰로 자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참석자들과 옴천사 경내에 마련된 국태민안 기원탑, 호국영령 추모비를 제막하고 "선각종 산하 350여개 사암의 총본산인 옴천사는 백제불교를 계승해 호남불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준엽 기자

'진면목 알고 실천하는 불자되자'

광주 재가화엄학림 개교…150명 입학


재가 화엄학림 개교 기념 테이프 커팅 장면.

불교의 화엄사상을 익혀 사회에 실천하기위한 재가 화엄학림이 문을 열었다.

실상사 화엄학림과 (사)자비신행회는 지난 3월 26일 광주 자비신행회 교육관에서 제1기 재가화엄학림 입학식을 갖고 첫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 첫 개강한 재가화엄학림은 실상사 화엄학림과 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재가자를 위해 운영하는 불교전문 교육기관으로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진이 직접 강의를 맡는다. 학제는 2년제이며 강의는 매주 목요일 주·야간으로 진행된다. (062)234-2732

이준엽 기자

충북불교총련 임원진 개편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는 3월 29일 2005년도 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하는 한편, 올 봉축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각의(청주청원사암연합회장)·원혜(충주사암연합회장)·황도(제천사암연합회장)·보경(단양사암연합회장) 스님 등이 13명으로 이뤄진 부회장단에 새로 선출됐으며, 설곡(청주 대한불교수도원 주지)·무진(청주 화장사 주지) 스님이 감사를 맡게 됐다.

총연합회는 또 예년보다 큰 규모로 부처님오신날 법회를 개최키로 하고, 5월 10일 청주 타워 그랜드룸에서 '전국소년체전 성공과 도민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 형식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충북불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고문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도공(법주사 주지) △수석부회장 월담(청룡사 주지) △부회장 각의(청주청원사암연합회장) 원혜(충주사암연합회장) 황도(제천사암연합회장) 지원(옥천사암연합회장) 성제(영동사암연합회장) 화산(명장사 주지) 법명(백운사 주지) 보경(단양사암연합회장) 인호(증평사암연합회장) 원장(법주사 총무국장) 혜성(법화종 충북종무원장) 동범(충북경찰청경승위원장) △고문 범추(청주 풍주선원 조실) 보안(연화사 주지) 원봉(보현사 주지)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남양주 수종사

다향으로 열린 도량


수종사를 찾은 내방객들이 삼정헌에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쉬고 있다. 삼정헌은 시와 선, 차가 있다 해서 명명됐다.

"절 아래 맑은 강에는 안개 자욱하고/그림 같은 산봉우리는 하늘 높이 솟았네/뇌공(雷公)의 큰 업적을 감출 수 없어/가람 중간에 현명탑 세웠는가"

<동다송>으로 유명한 초의 스님이 읊은 시구절이 아니라도 남양주 운길산 중턱에 자리한 수종사(주지 동산)에 오르면 확 트인 풍광에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피어오르는 운무가 발아래 펼쳐지는 날이면 도량은 장관을 이룬다.

도 삼정헌에서 천하일품 맛을 내는 물로 우린 차를 마시고 나면 불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수종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가지는 나한기도가 끊이지 않는 도량이라는 점이다. 수종사의 나한신앙은 창건일화에서도 확인된다.

조선 세조 임금이 운길산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괴이하게 여겨 찾아와보니 18나한상이 모셔진 토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다고 하여 절을 짓

시민들 위해 삼정헌 열고 무료차 제공
1000일 나한기도 통해 수행처 면모 갖춰

수종사를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발길을 들여놓는 삼정헌(三鼎軒). 일찍이 문화포교에 뜻을 둔 주지 동산 스님이 힘들고 지친 중생들에게 쉼터로 내놓은 공간이다. 수종사를 찾는 이들은 시와 선, 차가 있어 삼정헌이라 불린 이곳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마시고 마음을 쉬어간다. 산 아래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한 통유리에 비친 세상은 차향에 물든 절경이다.

주말이면 수종사는 1000여명의 방문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중생을 끌어안는 도량이어야 한다는 동산 스님의 소신으로 종교를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량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삼정헌의 팽주 천혜륜(46) 보살은 "다른 종교인이라고 나한도량 수종사(水鐘寺)라 이름지은 것. 이곳에서 출토된 금동나한상은 보물로 지정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000일 나한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수종사는 4월 1일 400일 회향을 맞았다. 이 기도가 끝나면 또다시 1000일 나한기도가 시작된다. 수종사 불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나한기도를 통해 불국토를 이루는 보살 나한이 되기를 서원하고 있다.

주지 동산 스님은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종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고 기도소리 끊이지 않는 수행도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31)576-8411 박봉영 기자

개국 10주년 불교TV 큰스님 초청특별법회

불교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봉행되는 개국 10주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기 간 : 3월 6일 ~ 5월 8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불교TV 무상사 법당
문 의 : 02)3270-3300



화합으로 가꾸는 '태백도량'

경북 영주·봉화

 # 영주 태백산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 아래 죽계천, 금계천 등의 물줄기가 모이는 곳에 위치한 영주는 서북으로 산지가 발달한 인구 12만의 도시로 사과와 인삼이 유명하다. 주민 다수가 불자로 불교세가 강한 편이며, 한국전쟁이후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은 천태종과 태고종단이 지역불교를 이끌고, 여러 신흥 군소종단이 가세하고 있어 독특한 지역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주불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경북불교대학. 경북불교대학은 치마불교를 탈피해 교학을 바탕으로 거사들에게 불법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태고종 안양원의 안경우 법사가 1985년 창립했다. 이곳에서는 종파를 초월해 여러 종단의 스님들과 대학의 교수들을 초청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불교를 부지런히 배우고 인간심리를 계발해서 불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여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학훈 아래 지금까지 182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86년 1기졸업생은 29명에 불과했으나 3기부터 67명으로 늘어나면서 영주 시장 시의회의장까지 경북불교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유명하다.

또 불교대학 동문들 중심으로 19년 전 결성된 신행단체 영주불교법우회는 회원 70여명을 중심으로 지역 초파일 행사를 주관하면서 영주불교활동에 큰 몫을 담당해 왔다.

그 외 영주에는 선학원 관음사가 1976년 창건이후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를 창립해 이끌면서 미래불교의 주역들을 배출했고, 군포교와 안동청송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포교활동에도 매진해 왔다. 특히 주지 도기 스님은 두 팔과 시력을 잃은 장애인임에도 불심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 군소종단 20여개 사찰을 모아 실천승려회를 조직하는 등 지역불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 외 천태종 운광사도 지역 포교활동에 열심이고, 조계종 사찰들은 2001년부터 영주봉화조계종사암연합회를 형성해 영주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중심으로 별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석사 주지 근일 스님은 조계종사암연합회의 정신적 지주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마야부인회 영주시청불자 법우회, 운불련, 전화국 법우회, 영주기관차 승무원사무소 불자회 불교대학 동문회, 거사림회 등 10여 개 신행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이 가운데 영주법우회와 마야부인회가 종단과 종파를 초월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84년 창립한 마야부인회는 지역 여성불자들이 신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불교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다른 신행단체 결성에 촉매역할을 했다.

지역 내 19개 단체로 이뤄진 고운맘자원실천봉사단(단장 이화춘)은 영주장애인복지관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진각유치원과 관음사 어린이집, 풍기 어린이집도 어린이 포교에 열심이다. 하지만 수많은 신행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심이 없다보니 연합체를 형성해야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사찰연합체도 언젠가는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봉화 경상북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봉화는 태백산, 선달산, 각화산, 문수산, 청량산 등 수많은 명산과 하천 계곡 등으로 풍광이 돋보인다. 인구 4만의 작은 산촌지역이지만 각 화사의 고우 스님과 축서사 무여 스님 등 선승이 주석하며 선불교 포교에 매진하고 있어 타 지역 재가불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고우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각화사는 하안거 동안거 구별없이 9개월간 이어지는 참선수행도량으로 1일 3시간만 수면을 취하고 15시간이상 수행 정진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축서사는 5년 전에 개설된 축서사 불교교양대학으로 유명한데, 어려운 경전 강의보다는 불자 예절을 비롯해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강의로 재가불자들의 신행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80평 규모의 불교회관을 별도로 마련했으나, 여전히 밀려드는 인원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포교분야에서는 포교중심도량인 청량산 청량사가 유명하다. 84년 청량사로 부임한 지현 스님의 포교원력은 첩첩산중 오지의 청량사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 놓았다. 가까운 곳에 절이 없어 갈 수 없는 농촌의 불자들을 위해 재산면 마을회관을 빌려 시작한 지현 스님의 출장법회는 봉화지역을 넘어 전국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법회다.

청량사의 포교활동은 영주 안동에까지 이어져 지금은 3500세대 1만명이 넘는 신도들이 꾸준히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부터 개최해온 산사음악회는 전국에서 5000여명의 관객을 불러들이며 불교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가을 보름달 아래에서 펼쳐진 시낭송회 또한 큰 호응을 얻었다. 청량사는 청량산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탁본해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청량산 각 봉우리마다 암자를 복원해 옛 불가 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원력도 세워놓고 있다.

봉화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찰 외에도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사찰이 즐비하다. 비록 종파를 초월한 사암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년 조계종 사찰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봉축위원회가 종파를 초월한 사암연합회의 역할을 맡아한다. 지난해 봉축위원회도 무여 스님을 봉축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달마야 놀자' 영화 시사회와 유등재를 개최하는 등 성대한 봉축행사를 봉행했다. 그 외 봉화에는 포교당 중대사가 연꽃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역 어린이 포교를 담당하고 있다.

영주·봉화=배지선 기자


부석사가 매년 음력 2월29일 개최하는 '의상대재'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화엄경정대불사를 하고 있다.


봉화 청량사의 청량다회 회원들이 청량사를 찾은 등산객들에게 차를 제공하고 있다.

영주 10여 신행단체 승속 초월한 화합 견인차
봉화 각화사·청량사 수행·포교 전국적 '명성'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전국 다니며 선수행 지도

고우 스님 (봉화 각화사 선덕)



"지역사회뿐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 우리 삶을 질적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불교입니다. 따라서 개인수양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사회화에 앞장서 사회에 산재한 여러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봉화 불교계의 든든한 어른 고우 스님은 40년 이상을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승으로 각화사 태백선원장을 지냈고 서암에 주석하면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1968년부터 69년까지 문경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조계종립 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졌던 스님은 70을 바라보는 세수에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답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이라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국 어디든 마다않고 달려가 불법의 정수를 알리겠다고 말한다.

의상 사상 선양에 분주

근일 스님 (영주 부석사 주지)



지역불교계의 어른으로 정신적 버팀목인 근일 스님은 92년 부석사 주지로 부임한 후 현재의 사격을 다지는 것은 물론 2000년 봉황선원을 신축해 초기 선종을 개척한 선각자들이 수학한 곳으로서의 명성에 걸 맞는 수행도량으로 선풍을 일으키는데 진력해왔다.

또 스님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철야참선법회를 주관하면서 누구나 쉽게 참선의 요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왔으며, 재가불자들의 수행공간인 화엄선원을 신축해 부대시설이 완비되는 대로 재가불자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 외 2003년부터는 매년 의상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기위한 화엄축제를 개최해 학술대회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의상대사 창건사찰인 부석사는 매년 음력 2월 29일 의상스님 봉찬대재를 맞아 불자들이 화엄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성게를 돌며 의상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문참선수행도량 가꿔

무여 스님 (봉화 축서사 주지)



"불교는 인간이 발견한 최상의 진리죠. 불교인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입니다."

무여 스님은 1987년 스스로를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외지고 조그만 암자를 찾아 축서사에 온 후 지역불교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2001년부터 개설한 축서사 불교대학은 봉화뿐 아니라 영주 안동까지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불자들이 전통불교를 배우기 위해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5기 입학생은 79명. 20여명의 불자들이 불교회관의 수용한계로 내년을 기약해야했다.

이제 스님은 축서사를 전문적인 참선수행도량으로 가꿀 예정이다. 올 해 불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월 1회 음력 초하루 법회를 월 2회 주말법회로 바꿔 첫째 주는 일반 법회를, 셋째 주는 참선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불교교양대학 차원에서 학생신행단체를 만들어 청소년포교에도 매진할 생각이다.

어린이·군포교 앞장

도기 스님 (영주 관음사 주지)



초등학교 때 난방재료로 야포를 쓰다가 폭발해 두 팔과 시력을 잃은 도기 스님은 출가 후 부처님법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76년 영주시 이산면에 법당 9평 요사 9평으로 관음사를 창건했다. 창건과 동시에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를 창립하면서 지역불교포교에 앞장선 스님은 어린이집도 운영하면서 매월 빵 1500개와 음료수 1500개를 준비해 군 법당을 찾아간다. 또 도기 스님은 방생법회를 대신해 18년째 전국 군법당을 순회하며 전몰장병위령천도재를 벌여왔다. 스님은 재소자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 봉화지역 군소종단의 20여개 사찰의 주지스님들과 10년 전 실천승려회를 결성해 지역불교계 활동도 벌이고 있다.

도심에서 복지·문화 불사

법라 스님 (영주포교당 홍법사 주지)



영주 도심 속 대표적 포교당을 이끌고 있는 스님은 1999년 부임한 이후 종무소 및 요사채를 완공하고 영주불교회관을 건립하면서 지역포교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스님은 영주불교회관에 다도 국악, 가요 등 질높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불교문화대학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새로운 불교문화교육을 통해 지역불자포교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영주장애인복지관장을 맡은 스님은 조만간 3층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300여명에 달하는 재활프로그램 대기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베푸는 불교' 화두로 전법

성공 스님 (풍기 비로사 주지)



92년 기도하러 왔다가 주지소임을 맡게 된 성공 스님은 폐사일로에 있는 비로사의 사격을 쇄신했다. 지난해부터 영주봉화조계종사암연합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에 힘쓰고 있다.

'주는 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고민한 끝에 96년부터 백중에 신도들을 위한 영가등을 손수 만들어 달아주고 있다는 스님. 스님은 금년 내 일주문, 누각, 요사채 불사를 시작하고 야생화공원과 산벚꽃나무길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산사의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또, 정부시책으로 영주에 지어지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영주봉화조계종 사암연합회차원에서 위탁받을 계획이다. 스님은 "중증 장애인 시설을 위탁받게 되면 양 날개를 단것처럼 영주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좀더 역동적인 장애인복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청량도량' 가꿔

지현 스님 (봉화 청량사 주지)



"1984년 청량사를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 4시간동안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화도 전기도 없었지요. 오직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최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도 맡아 복지포교의 일선에 서 있는 지현 스님은 청량사 뿐 아니라 지역불교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온 장본인이다. 산사음악회의 선두주자인 청량사는 매년 새로운 기획의 산사 음악회를 선보여 전국에서 수천명이 청량산으로 모이게 만든다. 또 초파일에는 3000여개의 등이 불을 밝힌다. 스님은 이제 청량산을 불가의 산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몰두해 있다. 올해 우선 문수암 20평을 복원해 선방을 마련하고 김생암을 복원해 3대문필가로 유명한 김생이 스님이었음을 알리려고 한다.

지역포교현장 '종횡무진'

무영 스님 (봉화 중대사 주지)



1996년 봉화 중대사에 온 무영 스님은 기독교계 어린이집이 4곳, 천주교계 유치원 1곳이 운영되고 있는 봉화에서 유일하게 불교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어린이 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경북 산간지역, 그리 넉넉치 않은 재정형편에 조금이라도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스님은 밤이 깊도록 컴퓨터 앞에서 계산기와 씨름을 하며 어린이집의 모든 일을 도맡고 있다.

스님은 지역 불교교양대학 강의도 맡고 있다. 또 매주 일요일이면 찾아오는 인근 군부대 군인들을 위해 법회도 연다. 새벽 3시부터 예불, 기도정진, 어린이집 운영, 불교교양대학 강의, 법회, 재가불자들 상담까지 스님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란다.

노인복지사업에 큰 관심

해득 스님 (풍기 영전사 주지)



1980년 은사 스님의 뒤를 잇기 위해 영전사에 온 스님은 대형교회가 4개나 우뚝 솟아 있는 풍기읍에서 지역 유일 불교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포교일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영전사 풍기어린이집 정원은 84명. 맞벌이부부를 위해 2세반부터 운영되며 원서 접수 후 한 두해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인기다.

산중사찰보다는 중생 속 포교를 강조한 스님은 91년부터 매년 성도절 철야 정진법회 후 일주일간 전국 큰스님들을 초청하는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왔다. 또, 10년째 전국 불교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방생을 대신해왔다.

교육불사로 지역불심 다져

안경우 법사 (영주 안양원 원장)



안경우 법사는 영주에 최초의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하여 수많은 거사들이 불자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이끈 장본인이다. 한국전쟁 직후 영주에 태고종 안양원을 개원해 지역포교에 나섰던 안경우 법사는 여성들만 사찰에 모이는 현실이 안타까워 거사들이 불법을 공부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1985년 6월 동명불교대학부설 영주불교교양대학을 설립했다. 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를 수행의 장으로 알고 뛰어들어 보살도 정신으로 같이 웃고 울어야 한다"며 포교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강남포교원 승만회

따뜻한 도시락에 자비 담아요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여익구)가 위치한 강남구 역삼 2동.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이 곳에 고급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그러다보니 재개발 구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살던 터전이 사라지기가 다반사다.

이렇게 재개발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의 온기를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강남포교원(원장 성열) 자원봉사자 모임 승만회 회원들이다.

3월 29일 승만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하던 대로 도시락에 밥을 눌러 담고, 반찬을 가득 채웠다.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밥과 반찬은 밥값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 거를 수가 없다.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죠. 말로만 들었지 강남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실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승만회 회장 곽경희 보살은 5년 전, 외관은 여느 단독 주택과 비슷해 보이는 건물의 지하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조차도 지하의 너덧 평 남짓한 독거노인 쪽방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를 정도로 잊혀지고 소외된 공간이다.

어두컴컴한 계단, 수시로 물이 떨어지고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복도. 곽경희 보살과 송태영 보살의 머릿속에는 오직 밥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독거노인들의 모습만이 떠오른다.

"여기서 페인트칠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그 양반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우셔서 걱정이었는데."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오는 길, 승만회 회원들은 지금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린 재개발 지역 독거할머니 생각에 먼 곳을 한 번 바라본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강남포교당 승만회 회원들이 3월 29일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있다.

▮후원해 주세요 - 생필품 부족합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과 같은 복지관 자체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전달할 물품이나 식료품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 승만회 조인옥 보살과 정미영 보살은 "어렵게 혼자사는 어르신들과 결연 후원을 맺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빵이나 곡물, 생필품 후원도 항상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02)564-9294



불교계 각 복지관과 단체는 어려운 이웃들과 인근 주민과의 결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3월18일 열린 진각복지재단 서울시립요양원 생일잔치 모습.

"이웃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세요"

독거노인·장애인 등과 주민 결연사업 확산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홀로 살고 있는 정시내(가명 · 76) 할머니에게는 올해 2월, 아들이 하나 생겼다. 인근 성북노인복지관(관장 정성욱, 02-929-7950)에서 지역 주민과 독거노인들의 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할머니에게 다달이 금전이나 물품을 후원해 줄 지역 주민을 연결해준 것이다. 이러한 결연이 정 할머니에게는 금전적 후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안식처로 느껴져 외롭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불교계 각 지역복지관과 노인 ·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지역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결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총, 051-628-6737)에서는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대일 결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심리상태를 돌보게 되는 것이다. 5명의 후원자는 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는 결연도 맺고 있다. 안부전화 봉사자 김은숙 씨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전화 한 통, 발걸음 한 번이 모두 소중하다"고 말한다.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승범, 02-3494-4755)도 '어려운 이웃에게 버팀목 되어주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아동, 청소년, 노인 등 특정한 대상을 정하여 일정금액의 생계비 후원은 물론 정기방문과 말벗하기, 건강체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 육체적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결연 사업은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명궁, 02-989-4215)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장애 아동과 어르신들, 복지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결연을 맺고 약 9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강북장애인복지관은 특히 복지관 인근 지역의 장애인 중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결연 사업을 진행해 이들의 사회 적응 을 돕는다는데 뜻을 두고 있다.

승가원 산하 상락원(원장 지웅, 02-921-6410)은 '장애아동 개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장애아동이 일대일 결연을 맺어 아동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상락원 주은희 사회복지사는 "언어치료, 원예치료,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아이들이 사회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한다"며 결연사업의 치료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02-723-5101)과 진각복지재단(02-942-0144)은 산하 기관과 시설들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면서 각 복지관의 결연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진각복지재단의 경우, 서울지부 각 심인당에서 서울시립요양원 노인들과 결연을 맺고 매달 생일잔치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4월의 환우 최한호씨



"타고난 장애도 극복했는데, 다시 일어서야지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가 4월의 환우로 선정한 최한호(45)씨. 지난해 8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때문에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최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생활 터전으로 나가 부인과 아들 준성(5)이를 부양하는 강인한 면모를 보여왔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최씨는 자신의 병 때문에 부인이 사채까지 쓴 것을 알고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강한 최한호씨.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의료비와 지금부터 받아야 할 치료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신남성초등학교 3학년 4반(담임 박인자) 81,150원
이옥순 성정윤 신상균외 250,850원
박상환 100,000원
황인운 50,000원

총 누적금액: 39,425,47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2005 법륜스님의 봄강좌 "부처님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부처님의 교화사례

현대인을 위한 법륜스님의 봄강좌가 4월 12일부터 부산해운대정토회는 매주 화요일, 그 외 전국정토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강좌는 총 8회에 걸쳐 부처님의 교화사례들을 중심으로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부산해운대정토회에서 직접 법문하시는 내용들이 전국법당에서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부산해운대 정토회 4월 12일 ~ 5월 31일 매주 화요일
전 국 정 토 회 4월 13일 ~ 6월 1일 매주 수요일
▶ 시 간 :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 장소 및 문의처

장 소	문 의 처	강 의 내 용
서 울 정 토 회	02) 587-8993	1강 수행의 길로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다
부산해운대정토회	051) 747-9997	2강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법바퀴를 굴리다
부산동래정토회	051) 557-2746	3강 관념의 벽을 부수고 평등의 세상을 열다
대 구 정 토 회	053) 744-3025	4강 중생의 아픔을 연민으로 섭수하다.
대 전 정 토 회	042) 253-8990	5강 온갖 방편으로 어리석음을 깨우치다
청 주 정 토 회	043) 284-5951	6강 갈등과 분쟁의 세상에 평화의 길을 열다
마 산 정 토 회	055) 247-8991	7강 낡은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다
울 산 정 토 회	052) 245-8995	8강 완전한 행복(열반)의 길로 떠나다
광 주 정 토 회	062) 511-8990	
김 천 정 토 회	017-530-4311	
제 천 정 토 회	043) 648-0083	
정 읍 정 토 회	019-308-2731	
제 주 정 토 회	064) 724-7885	
문 경 정 토 마 을	054) 571-6031	

정토회 JungTo Society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생명들의 맥박소리 들어봐요

'무등산 풍경소리' 작은음악회 현장

빛고을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진화)에서는 매월 보름달이 뜰 무렵 주말이면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무등산 풍경소리(www.pgsori.org)'가 그것이다. 3월 26일, 서른번 째 공연으로 '새 봄맞이 행사'가 열렸다. 공연의 막은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 '무등산 숲 탐방'으로 시작됐다.

"봄 숲은 밑바닥부터 파릇해지고 나중에 나무에 잎이 돋아납니다. 봄의 전령인 야생화가 먼저 피도록 나무가 햇빛을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숲 해설을 맡은 김영선 씨(생명을 노래하는 숲 대표)는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개불알꽃을 가리키며 "봄은 발아래를 내려다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들려준다.

봄은 사람이 편하게 걷는 속도로 다가온다. 남녘에서 시작한 꽃피는 소식이 매일 2~30km 위쪽에서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봄이 오는 소리는 어떠할까. 숲 해설가는 그 소리를 들려주겠다며 일행을 버드나무쪽으로 이끈다. 청진기로 먼저 자신의 심장소리를 듣게 한 후 나무에 청진기를 들이댄다.

"꾸륵 꾸륵, 타다닥 탁…"

"어! 정말 들려요"

화순에서 어머니와 함께 풍경소리에 참가한 김찬중(만연초 6년) 군의 탄성에 숲 해설가는 "이렇듯 자연은 인간의 심장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살고 있으며, 그러기에 자연은 함께 살아야할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의 작은 음악회이다.

2002년 7월, 당시 증심사 주지였던 故 일철 스님과 임의진 목사(남녘교회)를 비롯해 원불교, 천주교 성직자들이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을 갖고 무등산 보호운동으로 시작했다.

여기에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무등산 공유화재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합세해 증심사 주차장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잔디와 들꽃을 심어 문화마당을 꾸몄다. 첫 무대는 강원도 산골에서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가수 김두수 씨와 소설가 한승원 씨를 초대해 환경과 생명을 노래하며 밤새워 이야기를 나눴다.

그 뒤로 광주의 가수 김원중 박문옥 한보리 씨를 비롯해 음유시인 백창우 박남준 김남주 시인과 YMCA, 증심사 합창단, 티베트 명상음악가 나왕케촉, 노래하는 범능 스님 등 소박하고 정감 넘치는 이웃들이 무대를 이어갔다.

지역 종교인들 모여 환경 고민
어울림의 목소리가 30회 비결

풍경소리 전담 사회를 맡고 있는 최명진 목사(꿈이 있는 교회)는 "작은 음악회가 다달이 끊이지 않고 이어온 것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기 다른 성향의 지역 종교인들이 모였지만 어울림의 소리를 내고자 했던 것이 30회를 이어온 장수 비결이란다.

풍경소리는 추운 겨울날이나 비가 오면 무대를 야외에서 증심사 법당으로 옮기고, 연말이면 교회와 성당에서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

서른번 째 음악회도 꽃샘추위에 밀려 증심사 취백루에서 열렸다. 무등산에 어둠이 깔리고 푸짐한 달빛이 쏟아지면서 산사에서의 작은 음악회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이달의 무대꾼은 채식운동가이자 오카리나 연주자인 정인봉 씨와 생태사진 전문가 오영상 씨. 정인봉 씨는 연주에 앞서 '오카리나'를 "흙(地)을 물(水)로 반죽해 불(火)에 구워 사람의 입김(風)으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소개했다.

오카리나의 편안한 소리만큼이나 풍경소리의 무대와 관객은 거리감 없이 어우러졌다. 새를 주제로 한 연주에서는 갖가지 새소리가 무등산을 일깨웠다. 드라마 '대장금'을 비롯해 각종 애니메이션을 배경 화면으로 즉석 영상음악이 펼쳐지고, 국악가요에서는 추임새와 함께 으쓱거리는 몸동작이 춤으로 이어졌다.

풍경소리는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무대이다. 한차례 음악이 흐른 뒤, 탐조가 오영상 씨의 '전라도 새 이야기'가 주목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새들에게 구수한 입담과 함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풍경소리는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운동입니다. 사찰에서 열리는 음악회라고 부처님을 말하거나 목사님이 사회를 본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오직 무등산 품에 안겨 살아가는 생명들이 같은 맥박소리를 느끼며 함께 살아가는 친구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일철 스님에 이어 2대 풍경소리 지기를 맡은 증심사 주지 진화 스님의 소박한 꿈이다.

음악과 '전라도 새이야기' 조화
'무등산을 시민의 공간' 운동전개

스님은 무대를 마련하고, 공연에 앞서 저녁공양을 제공하는 등 궂은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공연장에서는 흔한 인사말도 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내지 않는다.

무등산 풍경소리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모습이 지역에서 단발적인 공연에 그치지 않고 4년째 꾸준히 음악회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 수많은 음악회가 생멸을 거듭하는 동안 풍경소리는 광주를 대표하는 작은 음악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달 들어 무등산 풍경소리는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행사를 금요일로 옮겼다. 작은 음악회에 앞서 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예술인과 후원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함께하는 열린 문화행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등산을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하기위해 무등산 공유화재단과 함께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달 빛 어스름 한 밤-중에 / 깊은 산 길-걸어가-다 /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신바람 난 관객들이 더 이상 '끼'를 감추지 못하고 일어섰다. 창작국악동요 '산도깨비'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다. 모두들 원효 대사가 깨달음에 취해 추었다는 '무애춤'을 추며 산도깨비를 맞이하고 있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지역 종교 ·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는 '함께하는 열린문화' 행사다.

■ 2005년 무등산 풍경소리 예정표

	날 짜	이야기 손님/노래손님/이벤트
31회	4월 22일	도법 스님/고진하 · 박강수/등불에 소원적기
32회	5월 15일	이해인 수녀/박석무 · 이성원/창포물 머리감기
33회	6월 17일	이성부/이정열/맨발로 숲길걷기
34회	7월 15일	김유진/김의철/황토물 염색 · 별 관찰
35회	8월 19일	유종화/박문옥/풀잎공예 · 달빛산행
36회	9월 16일	김현장/윤진철 · 범능스님/샤먼(고래춤)
37회	10월 14일	나종영/인디밴드(임의진)/사진 · 그림전시
38회	11월 18일	박그림/신명/동물의 발자국전시 · 그리기
39회	12월 16일	김민해 목사/김용우/평화기도 · 자유명상

무등산 풍경소리(www.pgsori.org) 062-226-0108





김찬중 어린이가 청진기로 나무 소리를 듣고 있다. 나무가 들려주는 생명의 소리는 사람의 심장소리를 닮았다.(위)
'무등산 풍경소리'가 진행한 숲 탐방에서 아이들은 나무를 만지고 관찰하면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간다.(아래)



숲은 생명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무등산에 올라 숲을 보고, 듣고, 만지고, 호흡하면서 생명의 숨결을 느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 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 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4 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 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응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음정 좋~고, 박자 좋~고 "즐거운 음성공양"

사찰 거사합창단 '신행 본보기'

조계사 · 한마음선원 · 수원포교당 등



'거사파워'를 상징하는 거사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신행의 기쁨을 만끽한다. 사진은 3월 27일 조계사 일요법회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는 조계사 거사합창단의 모습.

몇 번이나 야단(?)을 맞고도 뭐가 그리 좋은지 단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노래가 끊길 때마다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재미를 더한다. "여유 있게 가세요." 지휘자의 지적에 단원들의 노랫소리가 한결 조화롭다.

떠는 음이라는 지휘자의 말에 차성회 총무(INI스틸 열연국내영업팀 과장)가 갑자기 심한 동작으로 손을 떤다. 순식간에 합창단실은 웃음바다로 바뀌어 버렸다. "몸을 떨어야 음이 떨리죠." 웃음띤 얼굴로 궁색한 변명을 하던 차성회 총무가 이제는 수습에 나섰다. "자자, 다시 연습 합시다."

조계사 거사합창단은 3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한자리에 모인다. 회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중 40~50대가 절반을 넘는다. 대부분이 공무원, 교수, 회사원, 자영업 등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이다.

창립 이후 줄곧 회장을 맡아온 유재권씨(중소기업진흥공단 종합컨설팅실장)의 말에서 거사들의 뒤늦은 노래 재미가 느껴진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불가를 부르다보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환희심에 저절로 행복의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도 거사합창단 활동의 매력 가운데 하나다.

문영찬 씨(서울지방경찰청 감사계)는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직장생활은 항상 긴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지만, 합창단은 나이와 직급을 따지지 않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찰이 어머니합창단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사합창단은 조계사와 한마음선원, 수원포교당 등 3곳이 전부다. 남성신도수가 워낙 적은데다가 직장 때문에 사찰에서의 신행활동이 쉽지않은 탓이다.

그러나 거사합창단을 운영하는 세 사찰은 상당한 효과를 얻는다. 합창단에 참여하는 거사들의 신행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사들의 신행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남성불자들이 거리낌없이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 '거사파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사합창단원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신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맛보고 있다.

거사합창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한마음선원은 90여명의 거사들이 매주 수요일 연습을 하고 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세대간 벽을 허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부산, 대구 등 전국 지원에도 별도의 거사합창단을 두고 있는 점은 한마음선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

1994년 창립돼 올해로 11년을 맞은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은 매년 한차례 열리는 한마음합창제에서 남성, 혼성 합창공연을 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일요일 열리는 한마음선원 법회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

2001년 창립한 수원포교당 남성사자후합창단. 3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한 25명 안팎의 단원들이 신행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자후합창단은 박정희 지휘자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 연습시간을 갖고 있다. 여성가릉빈가합창단과의 협연을 비롯해 경기아버지합창제 출연 등 대외적인 활동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화합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이들 거사합창단은 남성불자들의 신행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사람이라도 튀는 경우 소리의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거사합창단원들에게 합창단은 도반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닦는 수행도량인 셈이다.

글 · 사진=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정찬연

철불협 포교위원장



법우회 2곳 창립 … 집에 '복전함' 두고 이웃 도와

22개 철도법우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의 포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찬연(46 · 사진)씨. '부처님의 극성팬'임을 자임하는 그의 전력은 화려하다.

가족과 친척이 모두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대학시절 제 발로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불교에 귀의했다.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에 철도기관사로 입사한 이후 1990년 첫 근무지였던 구로승무사무소의 철도법우회를 창립했고, 다음 근무지였던 성북승무사무소에도 1995년 법우회를 결성했다. 1999년에는 조계종가 돼 직장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과 108참회를 이어갈 만큼 개인수행에도 철저하다.

정위원장에게는 화려한 전력만큼 특별한 에피소드도 많다. 구로승무소 법우회를 창립한 뒤 법회장소가 없어 허탈해할 때 기꺼이 장소를 내어주고 법문까지 해주었던 관음포교원 정도 스님이 은인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관음포교원도 창건 직후라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아내마저 개신교 신자였던 주변환경이 제가 활동하는데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죠."

그는 아내에게 한번도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대신 자연스럽게 불교로 이끌었다. 나무아미타불 10만8천번 사불이 방법이었다. 동산불교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사불을 하던중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아내는 한장당 10원을 대가를 요구하며 못이기는척 허락했다. 곧 포기하리란 예상을 뒤엎고 아내는 45일동안 4만5천번의 사불을 해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위원장은 아내와 함께 법회에 참석하는 부부가 됐다.

"우리 집에는 복전함이 있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 내가 날마다 절약한 액수의 돈을 넣기를 몇 년 동안 거른 적이 없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족이 함께 복지시설을 찾아 회향의 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그보다 좋은 가정교육은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에서 교화부장을 맡은 정위원장은 환경문화학당이라는 테마법회를 기획했다.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법우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이다. 환경문화학당이 끝나면 수행법과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45년동안 전법에 나섰던 부처님의 생애야말로 생생한 가르침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수행과 전법의 길을 걸을 생각입니다."

박봉영 기자

법조계 젊은 불심 뭉쳤다

통합 다르마법우회 출범 … 회장에 이홍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출신 기수별로 운영되던 다르마법우회가 하나로 통합했다(사진). 사법연수원 31기부터 현재 사법연수원 2년차인 35기까지 통합다르마법우회로 새롭게 거듭난 것.

통합다르마법우회는 최근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31기 회장을 지낸 이홍주 변호사(사람과 법 공동대표)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회원 배가 등에 진력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전국으로 흩어져 모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다르마법우회는 이로써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총 7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통합다르마법우회는 앞으로 회원을 100여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월 봉은사에서 정기법회와 참선수행 및 철야정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률상담의 횟수를 늘리는 등 봉사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대회장 이홍주 변호사는 "회원 개개인의 수행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법조인으로서의 재능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지도법사 · 상임법사 위촉키로

경불회 확대임원회의, 부회장단 임명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가 지도법사를 위촉해 경찰불자들의 신행활성화에 나선다.

경불회는 3월 26일 경찰청 법당에서 교례회 및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지도법사제도를 신설해 경찰불자들의 신행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도법사는 조계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의 원로와 지도자급에서 포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스님들을 위촉하자고 뜻을 모았다. 경불회는 각 지역에서 경찰불교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배해 위촉할 방침이다.

전직 경찰관으로 근무했거나 현직에 종사하는 각 종단의 포교사 · 법사를 상임법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활동중인 고행섭(부산지방경찰청), 이상학(서울 서초경찰서), 박금철(서울 강동경찰서) 포교사를 비롯해 40여명의 전 · 현직 포교사 · 법사들이 해당관서 불교회의 신행활동을 지도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임승택 경찰청 경비1과장, 정인식 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조계훈 서울경찰청 112지령계장, 이병욱 전남경찰청 정보과장, 서연식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계장, 이기병 충남경찰청 인사계장, 진계숙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등 7명을 경불회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정기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법회는 4월 23~24일 평창 월정사에서 봉행하기로 했다.

한진호 경찰불교회장(경찰청 정보국장)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경찰불교회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각 종단, 신행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경찰불교회를 활성화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춘계 의료봉사 실시

병불련, 이달말 안동지역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 불자들이 템플 스테이를 겸한 의료봉사를 떠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4월 30일과 5월 1일 봉정사에서 신도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춘계 의료진료봉사를 벌이는 한편 사찰문화를 체험한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병불련 소속 의사와 간호사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봉사는 내과, 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한방침구과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진료가 이뤄지며 물리치료, 발마사지 등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주효 병불련 회장(국립서울병원 간호과장)은 "낮에는 사찰 신도와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일정을 마친 후에는 회원들의 신앙심 고취를 위해 108배 등 산사에서의 신행체험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www.kumdeung.com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장엄용 황금연등



금박 등표 (방수용)

빗물에 젖어도 글씨가 번지지 않고,
바람에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꼭, 유성 싸인펜으로 글씨를 쓰십시오)
※ 등표 글씨와 그림은 금박입니다.

황금연등가격 ▶6cm : 3,500원 ▶8cm : 4,500원 ▶10.5cm : 7,500원 ▶13cm : 23,000원
▶20cm : 45,000원 수술은 추가 각1개 500원 입니다

KD금등사 | 구매상담 전화 : 전인권(KD금등사 대표) TEL 031-846-1950 H.P 011-774-1452 | 입금계좌번호 농협 105-01-248126 (전인권)

2005年新/製/品 스님용 신발 滿行靴

발명특허 제4722호 출원
실용신안 제2318호 출원
의 장 제1689호 출원
상 표 제2956호 출원



수제화 - 만행화
■ 규격 : 215~290(mm)

발바바 내부구조



● 발바닥 경락도

깔창 '발바바'
(우리땅 우리황토로 제작된 실리콘 양면 깔창)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 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짓눌려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발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1. 단화 특징
- 한국 고무신코 기준 스님 치수로 제작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외국에서도 한국스님의 품위를 유지 (한국스님 신발로 인정)

2.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백, 흑
- 신도용 : 흑, 백, 자주색

3. 가 격
80,000원

제조원 : 벽산아트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 927-5715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농협 063-12-250427 예금주 : 구자민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 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최면개인지도

그동안 최면을 배우긴 했으나 활용치 못하시는 분들

전생, 빙의치유, 각종질병, 우울증, 비행청소년 교정

사찰을 비롯 수가 없는 스님들, 배울곳이 원거리에 있어서 등 여러조건이 여의치 못하시는 분들께 본인이 전국어디든 출장하여 상주하면서 확실히 완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011-597-6700

믿음과 신뢰의 40년 전통

보문불교서점

대전시 동구 중동 27-7 (홍명상가 제일은행 뒤)

전화 : 042)257-0161, 253-6446

취급품목

- 1층/서적부 : 불교, 한의, 역학, 지리, 승복, 법복, 염주, 불교음반, 한방의료기, 녹차, 다구, 카렌다, 불교용품, 도소매
- 2층/용품부 : 불상, 탱화조성, 개금, 범종불사, 인등, 고급유기, 경상, 불전함, 영가옷, 농악기, 행사 용품 제작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단청 탱화

문하생 수시모집
(수산 전통 불교 미술원)

02)381-4433
010-3000-4459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 천도재 49재 | 정안식 | 용왕산신재 | 바라나비춤 | 상가염불 | 천도시식전문 |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을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연꽃그림에 부처님말씀 담아 드립니다

한지에 한국화(미표구)

- 크기 : 소, 중, 대,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선물용, 판매용
- 전화주문 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 착수 등기 속달
- 입금 계좌 : 농협 150039-56-064426 이상근

연꽃화가 018-588-5698
안동 하회마을 입구 한지마을

해외포교사 지망생모집

자혜불교회 삼우스님은 미국/캐나다 주류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포교사 지망생을 모집함

- 자격 :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영어기초실력이 있는자로 18세~40세 미만 남녀
- 문의 : 010-4619-8922, (시카고) 773-528-8685

禪 비법 강의

청안락 하십니까? 강호 제현님들이여 뭇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많이 다르지요 이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것입니다 배우면 스님! 불사에 만락하실겁니다

- 강의내용 : 귀신보는법(빙의, 사주학) 돌아가신 조상님을 직접만나는법 산소풍수법(간단한) 산소 속을 직접본다

(강의시간 : 5시간) 055)573-7892
010-3189-3525 토굴산승 합장
(경기 강원 지역 스님 방부 됨)

자동차 폐차 긴급소식

바퀴만 달려있으면 폐차 가능 고가 삽니다 과태료+세금+국민연금+가압류+고장+방치된 자동차를 폐차 말소를 못하고 계십니까 걱정고민끝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정상 우선.급 폐차 해드립니다.

- 폐차비 차종별로 고가로 즉시 현금지급
- 모든 자동차 24시간 무료출장상담
- 국가유공자 협동사업장 수출부품판매

대흥산업폐차 02)579-1114
011-470-3118,02)588-3117~8

숫자와 운명 개인지도

못사는 방법이 한가지라면 잘사는 방법은 10가지이다.
의 저서 직-강의
아울러 각 길 흉 事
(사: 개운 반운법 및 다수 등...)
대처 방편술(예방비법)도 함께 전이 합니다.

031)633-1517

수강생 모집

주역원전강좌

- 3월2일 개강 매주(수) 오후 7-9시
- 4월6일 개강 매주(수) 오전 11-1시
- 회비 : 6만원
- 기타 : 오운육기론 (화) 오후 7-9시 대학소주 (월) 오후 5-7시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8970

희귀 난치병(암) 영가 장애 치유

불교와 최면의
절묘한 조화
성 원 사
02)845-4301

대구승복사

스님께 좋은 옷음, 불교용품 일체

대전시 동구 원동 62-2 (패션 104 뒤)
일터 042)254-8776, 8772
010-4455-1798
011-407-4305
맑고 향기롭게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창업하실분

일년 200만의 시험생과 취업 준비생이 당신을 기다리는 사업
인터넷쇼핑몰 겸 매장판매
SBS 이색상품 방영. 발명특허 출원제품
참조 www.bujukshop.com
011-537-1739

조계종 비구니스님 초청

1. 현재는 토굴, 기도하면서 차후 주지임명 예정
2. 어린이 법회가 가능한 분은 향후 전망이 좋음

011-9328-6661

적천수 천미 강좌

명리학 최고의 경전
적천수 천미 강좌

역학 개인지도
개업 책임지도 초보환영

적천수 천미 연구회
02)384-5590
019-281-5592

행자모심

▷고졸이상 만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02)917-3363(정릉)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5세이상~60대초반
▷경기 남양주

031)571-5424
017-681-9858

함께생활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위치

010-4305-284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지리산

011-483-5639

행 자 모 심

(스님이 되실분,50세이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황 룡 사
종무실 054)972-3174
종무실장 011-9942-2472

창건 사찰에서 수행할 스님 찾습니다

공양주 보살님
50~60세 구합니다

011-259-5989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금사동 보광정사

051)524-8932

공양주 보살님 사무장. 행자 모십니다

▷ 경기도 평택 조계종 사찰

031)682-3169

초종파를 떠나 참된 선지식을 실천하실분 함께하고자 합니다

▷비구, 비구니 관계없음

010-2720-0408

평생 기도하시면서 계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세이상
천안 조계종사찰

041)567-0391

공양주 보살님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북

054)931-7302
054)252-718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3세까지
서울에 위치한 사찰

02)822-199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소재 전통사찰

051)508-5165
051)508-50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7160-2734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나이 40-50세)
▷ 서초구 양재동

011-9269-8445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
▷ 40~50세

051)542-484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대전 성불사

011-591-8228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지

02)952-8131
019-9264-7000

전세 및 암자구함

▷부산,양산,경남권
조계종 승려

010-8824-6351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 옥좃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비용 5500만원. 절충가능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1-522-1237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시스템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유치원, 식당
오피스텔, 기숙사, 기든, 고시원 상가

이런점이 좋습니다
① 간편한 시공 ② 경제적 시공
③ 쾌적한 난방 ④ 건강한 난방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리규사 직수입품입니다.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7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을 시공한 사찰전문 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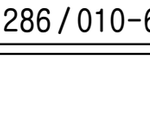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뻑뻑함
- 침침함, 가려움, 기타 불편증세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 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卍 성왕사 선원 (법인출원중)

불상탱화(급)모십니다 (인연주실분)

- 오존불중 : 석가, 약사, 지장, 산신탱화, 불단, 불기
- 우리 일만년 상고사와 현대불교
- 기+요가 = 선체조, 단전호흡, 참선, 행공, 원리 교육
- 기공,활법 : 턱,목, 어깨, 척추(허리통증), 짝다리, S등, 곡등, 탈골, 체형교정, 활법지도(자연치유)
- 사주, 이름, 풍수지리 광음파 인간작용관계 각 수시 법강

011-817-3387 / 02)835-239 (4월 23일 개원 예정)

전철 2호선 신대방역 3번출구(한독병원옆) 7호선 신풍역 각 7,8분 소요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에서 고급과정까지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4. 4
  월 · 화반 /수 · 목반 / 금 · 토반 (주 · 야간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교육인적 자원부 인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 산 : 좌천 지하철역 1번 출구 옆(다전리치텔 1004호)
  문의 : 051)644-8571. 018-312-7110

송암범음대학 단기반 학인모집

불교의식 기초과정 단기반 모집
(교수 : 종산스님 직강)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85번지

송암범음대학 063)643-6619 / 011-9454-6619

- 위치 : 전북도청옆 다가동우체국 앞 보화당 한의원 3층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소승은 전남 보성 회천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당뇨, 기관지, 변비, 만성위염 .....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건강식품, 강력한 항생, 항균작용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016-779-2237 일림사 성구 스님 합장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출가학교 및 행자 모집

▶ 출가학교 3기 : 40세이하 독신 남
4월 15일~5월 5일(3주간)
교육비 전액무료.

▶행자(예비승) : 언제든지 가능, 남 · 녀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053-474-8228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역 학 작 명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특기를 역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하여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학과 작명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소심껏 가르쳐서 한달만에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만약, 저에게 한달을 배워서 역학과 작명을 풀지 못하면 보시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한번 믿고 전화 주세요.
일반인, 승려, 누구나 전국 어디라도 100% 출장가능
(한문은 모르셔도 됩니다). 특별 개인지도

051)757-1286 / 010-6415-1286 보광 승려 올림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사찰 및 납골당 부지 -
- 위치 : 대전
- 부지 : 15,800평
- 가액 : 평당 60만원
- 시내접하고 작은산에 있으며 건축허가 가능한 최적지임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 6천

- 위치 : 경기
- 법당 : 15평
- 요사 : 21평
- 부지 : 800평
- 가액 : 7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① 8억(대250/건138) ② 5억5천(대175/건90)
- 경기 ③ 9억(840/건383) ④ 9억(700/건180) ⑤ 2억5천
- 원주 ⑥ 토골8천 ⑦고찰2억2천(1000/63) ⑧ 납골당25억(대4만평/건210평)
- ⑨ 납골당부지3억(대24000평) ⑩ 절터관악산계곡20억(2085평)
- 안양보 3천원80 (70평) 수원보 2천원100 (65평옥상130)

※ 사찰, 사찰터 다양보유, 공양주 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제주도 땅 안내

- 위치 : 제 주 도
- 토지, 임야, 별장지
- 농가주택. 전원주택지
- 사실 분, 파실 분

064)711-1447
011-9773-4414

포교당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31)826-037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부근
- 법당, 식당, 종무실, 주지실구비
- 가액 : 답사 후 결정

행자모집
031)682-3169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1)637-5697
011-9542-572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6억 8천만원

010-4876-5535
011-877-7677

포교당안내

- 위치 : 홍재역 10분거리 (상가지역)
- 평수 : 약 40평 ~ 45평
- 법당 : 약 45평
- 가액 : 4206만원 전세 시설비 포함, 시설완비

02)3216-1118
017-766-2788

사찰안내

- 위치 : 강릉 I · C 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 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지리산 깊은 산중 사찰 (산청과 대원사 중간)

기운이 장하고 전망이 웅혼하며 맥반석계곡에 접한 동남향 명당터. 무문관 수행이 가능한 4개의 방사와 법당외에도 심야전기, 기름 보일러, 황토방이 설치된 여러채의 건물에 총 15개의 방사와 1000여평이 넘는 부지, 만오천평의 임야, 아래마을까지 2.5키로 일체의 소음없고 청정한 기도, 참선도량 가액, 오억원

010-6398-5730, 011-9136-1314

사 찰 안 내 (사찰전세)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120평
- 법당 20평, 요사 20평
- 가액 : 7억5천
- 도심 속 역사깊은사찰임

- 위치 : 공주시 근교
- 부지 : 1,500평
- 법당 20, 요사 40평 산신각 : 5평
- 전세가 : 1억
- 산세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단독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절충) 답사후결정
- 주변 환경 좋음, 교통편리 기도최적지

02)352-9810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빌라 밀집지역
- 법당, 주방, 거실 넓음, 방1개, 베란다, 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500만원 (휴일지급가능)

010-8678-8602

암자 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외산면 화성2리 일반 주택 암자
- 대지 : 160평
- 방4칸, 입식 주방, 다용도실 수세식 화장실, 창고 2칸 5층 석탑
- 가액 : 2천만원

011-9838-1654

사찰 안내

- 위치: 광진구 구의역5분거리 구의시장옆 대로변 3분거리
- 평수 : 대지 50평,평당 750만원
- 특징: 최신 리모델링 시설, 기와지붕

02)3437-9773
010-4726-9773

경관 수려한 사찰을 원하십니까!!

- 위치 : 경산 와촌면 음양리
- 대지 : 총부지 813평 (대지 200평, 주차장 613평, 공터 200평) ● 건물 : 건축물 45평
- 전체부지를 자연적으로 조성됨
- 특징 : 본존불, 탱화 (고려시대 고불과 똑같이 조성)
- 가액 : 3억 2천만원 가능 (융자 6500만원 포함)
- 부동산 중계업자 전화사절

011-9378-5637

사찰안내(천연동굴)

- 위치 : 강원도 홍천, 횡성 새말근교(각 15분거리)
- 산신각, 천연동굴 15평, 산신백옥불
- 임야 3만평, 답 1천평(군유지사용), 납골당 터 가능, 대웅전, 주지실, 종무실 별도 방2, 주방1, 지장전 15평, 요사채 55평, 방 7개, 부대시설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중계인사절)
- 산새수려하고 기도, 별장용지로도 최적지

011-369-4154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
- 대지 50평, 건평20평
- 수라히여 깨끗함
- 가액 : 2천 7백만원

055)391-3799
011-9207-2488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평수 : 120평
- 가액 : 4천 8백만원
- 임법당1, 방2개, 주방1 집기일체

011-462-52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 시설A급(답사 후 절충)

011-253-7729

암자 안내

- 위치: 충남 천안
- 건평: 법당 18평, 삼성각 5평 주지실 13평, 요사채 19평 대지 350평사용 토지사용세 1년에 50만원,
- 가액 7500만원(전세, 월세 가능)
- 포교와 수행에 적합

010-7770-3223

사찰 겸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011-650-8481
032-667-848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강릉시 옥계면 신축사찰
- 대지 150평 전 430평
- 전세 3000만원 양도가 8500만원

- 위치: 양산시 포교당 35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35만원

055)362-0199
010-7167-3499

사찰(급)안내

-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청통 IC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20평 요사채 13평 2동, 대지 150평
- 가액 : 1억 3천
- 사정상 '급' 양도코자 함

011-679-2178
054)338-1190

포교당 안내

불교교양대학 용도로 적합

- 위치: 도봉역 지하철 5분거리
- 건평: 110평 법당: 80평
- 방4개, 시설일체 완비 큰주차장 있음
- 가액: 보증금 9000만원 월 180만원

010-8771-6442

사찰안내

- 위치: 치악산 서울에서 1시간20분거리
- 건물: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5평 대웅전(삼존불) 35평
- 큰방 7개 욕실 4개완비 화장실 납골당 90기 만들어져 있음
- 가액: 전세 6천만원
- 산세수려, 기도도량최적지

033)345-5597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200평(등기필)
- 전통한옥건물 2동(안채, 사랑채)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됨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 토굴이나 노후 가족 휴양처로 최적의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례IC 4분, 부산 서면에서 30분
- 부지: 답 404평 국유지 1600평 합 2000평
- 건물 : 슬라브 ● 임법당 : 12평 요사채 15평, 산신각 2평
- 특징: 계곡끼고 물철철 그림같은 곳
- 가액: 1억6천만원

011-845-2886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강릉시 성산
- 총평수 : 2148평
- 총교부지 : 1000평
- 대지 : 240평 ● 나머지 : 전답 760평
- 건물평수 : 대웅전 40평 산신각 10평, 지장전 10평 요사채 60평, 조립식 30평
- 가액 : 11억

※ 납골당 및 요양원 시설 가능
※ 컨설팅 중계업 사양

010-3191-9095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부지: 611평
- 2층건물 1층: 48평, 2층법당: 27평
- 산세좋고, 청룡백호, 심야보일러
- 가액: 2억3천만원

041)932-0533
011-9020-603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35평
- 불상 5불 각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보증금 2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051)524-8108
011-844-9893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80만원(조정가능)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포교당안내

- 위치: 대전시 중구 시장입구 아파트 밀집지역
- 건물: 5층건물중 3층 40평 법당, 방2개, 주방, 실내화장실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42)525-53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부근 역세권
- 3층건물 중 2층 약 45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고급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3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 최저가 2300만원
- 즉시 입주 법회 가능합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6-261-20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범물동
- 3층 중 1층(35평)
- 시설 : 법당, 공양간, 화장실, 뒤뜰(10평),법당내 오승상, 오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 주변 주차시설 편리 도시가스 에어컨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139-6630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중구 반구2동
- 총 45평 법당, 방2개, 거실1 삼존불, 영단절도
- 가액: 상담 후 절충

018-205-5979
월명스님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평수 : 60평 5층건물 5층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245-353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평수 : 600평, 대지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약수 전망 좋고, 산세 수려하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6억 9천

011-9411-5302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60평
- 구조: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은행융자: 3천5백만원 가액: 1억9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권 교통 사통팔달. 위치명당
- 평수: 약 170평
- 전통한옥, 건물2동 정원, 주차장
- 가액: 1억8천 전세가능
- 몸만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시설완벽

011-245-546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 120평, 밭 :200평
- 건물 : 요사채 18평(방4개)
- 법당 : 30평(삼존불, 각단탱화)
- 불심있는 지역으로 포교불사에 관심있는 스님께 적합
- 가액: 1억6천만원(답사후 가액조정 可)

011-9576-1648
054)832-16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용인시내(도심포교최적지)
- 구조: 4층건물 중 4층 42평 옥상사용가. 방4개, 주방, 거실, 화장실, 욕실 법당, 아미타삼존불, 산신각
- 가액: 보증금 4천, 월 1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7-372-89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동 2층 건물중 2층(32평)
- 법당 15평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시설비 포함)

052)258-4994

토 굴 안 내 최 적 지

- 위치: 속리산 입구 마을 끝집(외속리면)
- 대지 240평, 건물 26평 슬라브지붕
- 가액: 4천5백(융자포함)

018-541-1890

포교당 안내

(철학관)

- 위치: 해운대 달맞이고개
- 평수: 30평
- 시설비 절충

011-560-5661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부지 405평 건평 목조 한옥 20평
- 가액: 1억 8천

041)753-8137
010-4202-3699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대방동
- 대지: 184평, 건평 184평
- 1층 법당: 30평, 방3개, 사무실, 부엌 2층 요사채: 방 5개. 지하: 창고, 주차장, 화장실
- 가액: 답사후 가액 협의
- 교통편: 전철1호선, 7호선, 버스, 대중교통 편리
- 입지: 반경 2km 內 중산층 아파트 5만여 세대

02)882-1995
011-9646-199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포교당 안내

- 위치: 일산 탄현동 아파트단지(5만가구)
- 법당: 38평, 삼존불.건물은 상가건물 3층
- 특징: 시설완비(A급), 집기일체, 즉시법회 및 생활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600만원 가능 (시설비만 내시고 생활해 보셔도 됨) 이전관계로 급
- 기간 : 4/15일까지만 문의

※ 꼭 가능하신 분만 전화요망

031)912-2756
016-239-1475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330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해외사찰 안내

- 사찰명 : 고려사 (korea temple)
- 위치 : 인도 비하르 보드가야 (bodhgaya gaya bihar india)
- 대지 : 2천 5백평
- 가액 : 10억

※ 인도불교 4성지 중 깨달음의 땅 부다가야에 한국최초로 세워진 고려사를 인수하여 세계적으로 한국불교를 선양하고 깨어나는 인도의 불교세계화 물결에 따라 세계불교 교류와 함께 21세기 수행과 포교의 참신하고 원력있는 새 주인을 찾습니다.

011-307-347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시장 입구
- 보증금 없음 월세 35만원(선불) 시설비 2000만원(시설만 인수可) 중간세일 경우(1년에 1200만과 월세포함) 공과금 별도
- 사찰등록됨, 보시금 영수증 발급可
- 스님, 법사, 무속인, 역술인 임대可 (신축사찰에 근무할 종무원 구함, 인터넷, 웹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약 0명)

0505)242-2404
(스님직통)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중심지
- 평수 : 130평
- 내부시설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130만원 조정가능. 시설비 상담후결정

- 위치 : 대구 중심지 약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상담후결정
-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8-204-8979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산밑으로 마을과는 1km 떨어져 있으며 차가 마당까지 들어오며 수련원으로 이용하였으며 기도원이나 고시입시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 1동 60평 (인법당, 방7개, 넓은 입식주방, 욕실, 화장실3개) 창고1동, 하우스1동, 심야전기 보일러, 지하 암반약수
- 답사 후 가격절충(전세나 매매)

010-6611-7749
(꼭 하실 스님 만 연락주세요.)

조계종 '성보보존법' 33년만에 첫 개정 … 의미는?

박물관 근거 · 지위 분명히

종단 성보보존의지 반영 … 학예사 의무채용 무산 아쉬워

조계종 성보보존법이 3월 23일 제 166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드디어 개정됐다. 1972년 제정된 이래 33년만의 첫 개정이다. 성보박물관의 법적 근거 확보 및 성보관리인(사찰 주지)의 성보관리의무 명시, 그리고 벌칙 조항까지 신설된 이번 개정은 종단의 강력한 성보관리 의지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학예사 채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다른 사안에 밀려 종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던 성보보존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올 가을로 예정돼 있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이 한몫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간 성보박물관은 근거 법령이 없어 '유령기관'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던 차였다. 관장 · 학예연구사 등 종사자들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개정된 성보보존법은 제16조에 성보박물관을 "총무원 및 교구 본 · 말사에서 성보의 보존, 관리,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의 박물관 진흥법에 의거하여 박물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립한 박물관 · 전시관 · 유물관"으로 규정했다. 또 제20조에 관장, 학예연구실,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지위와 역할을 명시했다.

성보관리인(사찰 주지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 규정도 분명히 했다. 제5조에 따르면 성보관리인은 성보 발견 · 멸실 · 도난 · 훼손이나 문화재 지정 또는 경내 지표조사 및 시 · 발굴조사시 총무원장에 보고해야 하고, 성보의 변동사항을 성보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성보관리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제23조에 의하면 사찰 주지가 고의로 해당 사찰 성보의 도난 · 멸실 등 발생시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정 조항들은 성보보존에 대한 종단의 의식이 진일보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학예사 채용 의무화가 무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실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찰이 많다는 이유로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학예사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 사람 채용도 부담스러워하는 사찰의 현실은 박물관 종사자와 사찰 사이의 인식차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간극은 학예사의 이직으로 나타나고, 박물관 전문역량이 축적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학예사는 성보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없어선 안 될 존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물의 관리뿐 아니라 교육과 특별전 기획 및 진행, 다양한 학술활동 등이 모두 학예사 손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학예사 없는 성보박물관은 유물 수장고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미 개관한 성보박물관들 가운데 대다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전문 인력 부족, 전략부재 등의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예사 채용 규정 완화는 박물관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부추김 속에 짓고 보자는 식으로 성보박물관들이 건립되고 있어 부실 박물관 양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예사 1인 이상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건마저 명문화하지 못한 것은 박물관에 대한 종단의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은 1인 이상의 학예사가 있는 박물관만 시 · 도 등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성보보존법이 이처럼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성보박물관 활성화는 많은 부분 소속 사찰의 박물관 육성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수덕사 근역성보관장 정암 스님은 "한달에 500~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건실하게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면서도 "불교문화의 보고인 박물관이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아시아 귀중문화재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동양관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에 이웃나라의 문화재만을 위한 '동양관'이 신설된다.

전시동 3층에 650여평의 규모로 마련되는 '동양관'은 중국 · 일본 · 인도네시아 · 중앙아시아 · 신안해저유물실 등 5개실로 구성되며, 수준높은 아시아 문화재 85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일본 가라쿠라시대 문수보살입상. 젠잉(善円)의 작품으로 추정된다.(도쿄박물관 소장)

대표적인 유물로는 인도네시아의 '붓다(Buddha)', 힌두교에서 지혜와 학문을 상징하는 '가네샤(Ganesha · 코끼리 모양의 신상)', 13세기 일본 가마쿠라시대의 '문수보살입상' 해저 침몰 무역선에서 인양한 중국 13~14세기의 청자꽃병(青磁魚龍裝飾花瓶) 등이 있다.

특히 가마쿠라시대 문수보살입상은 목조 작품으로 나무에 금칠과 채색을 하고, 금 조각를 덧붙여 장식돼 있다. 지혜를 상징하는 칼(劍)과 연꽃을 오른 손과 왼 손에 들고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11면관음보살과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지장보살과 함께 가마쿠라시대의 젠잉(善円 1197-1258)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9>

파동과 공사상

동남아에서 일어난 지진, 그리고 최근 일본 규슈에서 일어난 지진이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다. 알려져 있지 않던 지진대의 발견, 지진이 몰고 오는 해일과 같은 재해가 인간이 얼마나 자연 앞에서는 작은 존재인가를 일깨우고 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시가 필요한 때다.

해일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는 파동이라는 형태로 전해진다. 햇빛이 대표적 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무선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해일 역시 단층의 형성이라는 큰 에너지원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된 파동이다. 이 에너지의 전달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는 매개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물질과 공간, 서로 영향 주고 받는 관계

'실체 없음' 깨달을때 또다른 '나' 만나게 돼

해일인 경우 매시간 약 100Km 전달된다고 하니까, 가까운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얼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매개체뿐만이 아니라 파동을 느끼고 재해를 당하는 물질(인간을 포함해서) 또한 파동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이 현대에 들어서 과학이 가르쳐 주는 메시지이다. 즉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하는 듯이 보이는 물체 또한 사실은 파동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서, 순간 순간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간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 과학은 물질을 10억분의 1 미터 정도로 작게 나눈 경우 나타나는 성질을 연구하고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작은 영역으로 갈수록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파동의 성질을 띠게 된다.

파동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는 그것이 어느 한 위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빛을 얇은 틈으로 지나가게 하면, 이 빛이 굴절을 일으켜서 희미한 빛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파동이 확률적으로 퍼져서 존재하는 예가 된다. 촛불 앞에 앉아보자. 촛불은 초라고 하는 탄소덩어리가 산소와 반응해서 순간순간 탄산가스로 변화해서 공기로 사라지는 현상을 내 눈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탄소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하나의 파동 상태가 산소라는 다른 파동을 만나서 탄산가스라고 하는 다른 파동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물체와 공간이라는 이분법적인 관념을 바꾸고 있다. 또한 존재론에 대한 현대철학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개념이기도 하다. 물질과 빈 공간을 다른 두개의 축으로 나누던 존재론에서 이제는 물질이 공간에 영향을 주고, 공간 또한 물질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이러한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유 없이 불안한 마음이 나를 괴롭힐 때, 촛불 앞에 앉아 보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촛불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 또한 이와 같음을 느껴보자. 나라고 느껴지는 관념 또한 사실은 촛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다보면, 그렇게 변치 않고 따라 다니던 나라는 관념 대신, 공간과 다르지 않는 나라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교사상과 문화' 5집 발간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는 최근 <불교사상과 문화(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5집을 간행했다. 이번에 간행된 제5집에는 영국 런던대 교수 카렐 워너의 '불교와 평화', 덴마크 한국학연구소장 헨릭 쇠렌슨의 '신인(神印)과 총지종 그리고 고려시대 밀교수행의 본성에 대하여',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잠재태와 현실태의 대화', 동국대 김용표 교수의 '불교교육에서 불성의 배양' 등 국내외 11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송석구 회장은 "<불교사상과 문화>를 올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서지학 수준 일본에 떨쳐

박상국씨 日 다이쇼大서 박사학위



불교서지학 권위자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연구실장(사진)이 최근 일본 다이쇼(大正)대에서 '한국불교서지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은 한국의 불교전적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로, 현존 최고(最古) 사경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신라시대 것을 비롯해 고려시대의 '초조대장경' '고려대장경(재조대장경)' 의천의 '교장(敎藏)', 그리고 조선시대의 상원사 · 기림사 복장전적에 이르기까지 전시대의 주요 불교전적에 관한 내용을 담아냈다.

이번 박사논문에는 일본 내 기존 학설을 뒤엎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1011년 출판된 초조대장경이 76년 걸려 새겨진 것이 아니라 고려 현종때 새긴 것임을 밝혔고, 재조대장경의 판간은 1236년부터 1251년까지가 아닌 1232년부터 1248년까지임도 확인했다. 또 그 판각 장소가 강화 선원사가 아니라 경남 남해임을 입증해 보였다.

그 동안 '속장경'으로 알려져 온 장소(章疏)를 '교장'으로 불러야 한다는 논증도 빠지지 않았다. '속장경'이란 명칭은 1911년 일본의 불교학자인 오노 겐묘(小野玄妙)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그대로 따라 쓴 것이다. 박 실장은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1997년부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이번 학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부터 '교장'으로 고쳐져 소개되고 있다.

박익순 기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 50.000원
전화 : 02)732-1522 (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기타 부속건물 종교용지 임야 11,060평
● 표고버섯 재배 + 유실수 - 연간 3천만원 수익보장
● 가액 : 10억
055)352-4733
055)352-18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총평수 110평
● 건물: 요사채 2층
● 법당: 35평
● 특징: 일원불, 천불 모셔져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011-9853-3843

산과 시냇물이 흐르는 사찰
● 위치 : 대구광역시 팔달동
● 평수 : 250평(문중땅)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2, 거실, 식당, 화장실) 실외 화장실3
● 가액 : 3천9백만원
011-9587-7447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하옥
● 대지 200평, 전 500평, 요사 30평, 법당
● 산세수려
● 가액 : 1억 4천만원
010-6462-0343
054)262-6673

사찰안내
● 위치 : 노원구 중계동 10번 종점, 불암산 밑
● 건평 : 35평 (법당 16평), 방2개, 화장실 3개
● 총평수 : 85평(텃밭, 단독 산끝집)
● 가액 : 전세 3천5백만원. 시설비 1,200만원
02)932-7659
011-709-7659

암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무안면
● 답 1,300평 (대지 130평) 임법당 15평, 방5개, 창고1, 공양간2
● 정동향, 양지바르고 물이 좋음
● 가액 : 3천만원에 월50만원
※ 즉시 법회가능
011-1766-109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덕월리 석불암
● 부지 : 약 1,000평, 법당20평, 요사채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창고, 다용도실, 삼존불, 탱화, 단청 집기일체, 부속 화장실, 주차장 완비
● 새 건물, 앞에 골프장 신축중, 10분거리에 스포츠 파크 있음, 전망수려
● 가액 : 3억
055)862-2022
011-627-0290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 3천만원 (대출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 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쓰고 관리해 옴
016-367-2112

사찰터 안내
● 경남 거창 신원면, 황매산 줄기 거창 I.C에서 차로 약20분 소요
● 이만평. 평당 4천5백원
● 약 600고지 포장된차량진입로
● 물, 경관 수려한 명터
017)546-7010

암자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3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0-4876-5535
011-877-7677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 방2개, 후원1개, 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삼존불, 영단, 복사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불법홍포와 신심있는 분들을 위해 바로 운영 가능
017-269-2629
032)517-3001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일주문



포교사대학 개원식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4월 6일 서울 견지동 포교사단교육관에 포교사대학을 개원한다.(02)737-7588



애국선열 추모 천도재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5일 경내에서 원주지역 애국선열과 항일 독립유공자 추모천도재를 봉행했다.



백제불교회관 개관 4주년 법회
대전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곡 스님은 3월 26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관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생명·평화 기원 종교인 기도회
제주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대효 스님(원명선원장)은 4월 1일 제주시 기독선교회관 운산홀에서 생명 · 평화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를 열었다.



초파일행사 참석차 일본行
보성 대원사 주지 지묵 스님은 일본 조동종 도큐인지(德林寺)의 부처님오신날 행사(양력 4월 8일)에 초청받아 4월 2일 출국했다. 8일 귀국 예정.



대구 불광복지관 기공식
대구 불광사 주지 돈관 스님은 4월 10일 오전 10시 단양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을 초청법사로 불광불교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연다.(053)656-6766



제8회 '양청 댄스페스티벌'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범산 스님은 4월 16일 오후 4시 수련관 4층 소극장에서 제8회 양청 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한다.(051)868-0750



제5회 진달래 화전축제
완주 대원사 주지 석문 스님은 4월 10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제5회 진달래 화전축제를 개최한다.(063)221-8502



제주4·3문학상 가작 당선
태고종 제주교구신도회 정수현 회장은 최근 제주 관음사가 주최한 제3회 제주4 · 3문학상의 체험수기 부문에 '한가족의 몰락'으로 가작에 당선됐다.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서울 성북노인복지관 정성욱 관장은 관내 노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8일 복지관 강당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배우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겠다"

제9대 청불회장 취임 김병준 실장



"청와대 불자회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가 느껴지지만 마음이 참 가볍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교 정신과 문화가 뿌리내리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4월 6일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으로 취임하는 김병준(51 · 사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회원은 50여명에 불과하지만 배우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회장을 맡아달라는 회원들의 요청을 받고 며칠을 고민하고 망설였다"는 김병준 실장은 "막상 회장을 맡겠다고 마음먹으니 오랜 마음의 빚을 덜어낸 것 같아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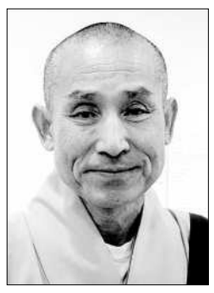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자란 김병준 실장은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을 가기 전 절에서 3개월여간 생활하는 등 불교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의 강연을 인연으로 1994~1995년에는 전국의 수많은 사찰에서 '지방자치시대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어렸을적 두 번 수계를 받은 적이 있는 김병준 실장은 4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새 법명을 달라고 부탁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미래불교 '묘목심기' 동참하세요"

어린이포교기금 마련 도예전 개최 설봉 스님



"어린이 포교를 위해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불교의 미래를 가꾸는데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불우청소년과 정신대 할머니 돕기, 어린이 법당 기금 마련 등 도예 작품을 통한 포교에 진력해온 설봉 스님(강화 무애원 주지 · 사진)이 어린이 포교 기금 마련을 위한 도예전을 열고 있다. 4월 9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제 1전시실에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 주최로 열리는 '자연으로 돌아온 생활도자기 설봉 스님 도예전'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도자기, 반상기, 다완, 촛대 등의 생활도자기 150여 점이 선보이고 있다.

'사(死)에서 생(生)으로'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에는 설봉 스님이 굴 껍데기를 이용해 직접 연구 개발한 유약이 사용된 생활도자기들이 선보여 관심을 모은다. 설봉 스님은 태안반도에서 사람이 먹고 버린 굴 껍질이 뒹구는 것을 보고, 버려진 굴 껍질을 영원한 생명으로 되살려내기 위해 10여 개월의 고심 끝에 굴 껍질을 이용한 천연 유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설봉 스님은 "10개월간의 노력이 이 전시를 성과를 거둬 앞으로 어린이 포교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이 직접 연구 개발한 굴 껍질로 만든 천연 유약은 인체에 무해하며 특유의 은은한 빛을 발해,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051)500-5385

천미희 기자

동림동문회 7대 회장에 혜자 스님



"소임 기간 동안 화합의 꽃을 피우는 일을 화두 삼아 정진하겠습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사진)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신 출가공동체 모임인 동림동문회 7대 회장에 선출됐다. 동림동문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 수국사 주지 자용 스님, 동국대 홍기삼 총장, 불교대학원 조용길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9일 서울 앰버서더 호텔에서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혜자 스님은 취임사에서 "동림회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진리탐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원을 하도록 터전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소나무 함께 살려야"

신응수씨 3천만원 쾌척



경복궁 복원을 총지휘한 신응수(사진) 도편수가 나무에 대한 사랑과 희노애락을 담은 책 <목수> 발간으로 받은 인세 3천만 원을 재선충병으로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쾌척했다. 신 도편수는 3월 25일 소나무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솔바람 모임' 전영우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강유신 기자

원융종 창종 25주년 법회 봉행



원융종(총무원장 법륜) 창종 25주년 법회가 3월 26일 서울 원융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법륜 스님은 경북 종무원장 불선, 충남 종무원장 체두, 부원장 보선 스님에게 우수종무원 감사패를 수여하고, 법원, 성인, 보현 스님 등을 각각 중앙문화원 부원장, 경기남부 종무원장, 인천 종무원장에 임명했다.

한국불교 해동종 창종 7주년 법회



한국불교 해동종(총무원장 도암)은 3월 26일 충주 이화예식장에서 창종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해운, 부종정 대곡, 승정원장 용성, 원로원장 도원, 포교원장 혜정, 종회의장 대법, 부의장 정관 도일, 사정부장 천강 스님 등을 비롯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수효사 효림노인복지센터 개관식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이사장 무구)이 3월 30일 효림노인복지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수효사와 백천사 스님들을 비롯해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등 신도 150여명이 참석했다. 무구 스님은 "봉사와 자비가 충만한 아름다운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흥국 대한불자가수회장 취임식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흥국) 회장 이 · 취임식이 3월 28일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대한불자가수회 총재)과 불자연예인 남진, 신충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회장에 취임한 김흥국(맨 왼쪽)씨는 "원로불자가수 복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심완식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장 취임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제7대 심완식 회장 취임식이 3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5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심완식 회장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해 나가고 원칙을 바로 세워 정법을 수호하고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박진선의 트롯시대



나는 오늘 차 안에서 트롯트를 들었다.
<박진선의 트롯시대>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다.

유행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트롯트가
상큼한 목소리의 주인공, 박진선과 함께 찾아갑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트롯트 유행가사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곳.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박진선의 트롯시대로 놀러오세요.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대구 94.5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



불자 세상보기

정 진 환
동국대 교육학 교수, 중앙도서관장

'책' 없이 배우는 토요일

3월 26일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가 일제히 첫 토요휴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수업제가 논의된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합의를 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 · 경제계의 근무시간단축 논의와 관련법 개정이 주5일수업제 도입에 촉진제가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5일수업제 시행을 2005년 월1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요휴무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기 적성교육, 체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토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적극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이나 학력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장 적응 · 문제해결 ·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사고력, 비판력, 판단력, 창의력 등을 포함한다. 주5일수업제는 학습공동체 창조, 교사의 자기개발, 학교 · 가정 · 사회의 파트너십 강화, 평생학습 토대로서의 학교 구축, 교육방법의 개선과 경험의 균형화 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주5일수업제에서는 지식전달과 관리를 위한 학교 조직 관념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자가프로그램 가능 인력 양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수업일 축소를 통한 학교근무시간의 단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학교를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주5일수업제는 교육공동체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학교는 지역사회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하고, 교사를 리더가 되어야 한다. 늘어나는 휴일을 교사는 자기계발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지나치게 간접경험에 의존하기 쉬운 지금의 교육을 제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건으로도 적격이다. 현재 간접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을 관찰, 조사, 견학, 사육, 봉사, 근로 등 자연체험, 생활체험, 연령간의 체험, 자원봉사, 직장체험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주5일수업제 시행에 맞춰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우선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별 대응 가능한 시설이나 자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인적 자원 확보 및 협력인사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토요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주5일수업제 운영을 학교단위에서 지역단위로 폭을 넓히는 사고가 필요하다. 단위학교별로 대응하기 어려운 활동도 학교 간 연계를 통하면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 많다.

대입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특히 고교 주5일수업제 운영은 난제일 수 있다. 물론 초 · 중 · 고를 막론하고 교과별로 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입장에서는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교과학습이 토요휴무일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주5일수업제는 긴장 해소와 사고의 폭을 넓히는 교과외의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스포츠 예술 문화활동이나 중 · 고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토요일에 활용하는 방안도 권할 만하다. 진로교육은 자신의 미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한 분야별 특강과 상담 개최, 열고 직업 현장 체험 등도 있다.

시험중심 · 주입식에서 벗어난 교육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5일수업제가 답답하고 숨 막히는 우리 교육상황을 '숨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미래의 불교는 어떻게 있을까? 지금 우리 불교계가 하는 모습 속에 있다. 우리 불교계가 하는 모습으로 보아 미래의 불교는 낙관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진단일 수밖에 없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가장 가까운 미래에 청년불자로 들어올 대학생 불자회의 활동이 거의 고사 직전이다. 외적인 지원이 거의 없이,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타 종교 동아리의 활동에 밀려 존재 자체가 위협을 겪고 있는 대학 불교학생회의 모습은 바로 가장 가까운 불교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또 하나, 젊은 세대가 쉽게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불교의 현대적 재해석과 참신한 방편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치자. 고사 상태의 대학생 불자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도 눈감고 귀막고 있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미래 세대의

대불련 '고사' 시킬 것인가

불자 양성에 대한 무관심, 불교계 전반에 퍼져있는 이 고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내일의 불교는 없다.

우선 당장 대학생 불자들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올바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님, 스님들, 사찰들과 연계를 맺어주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시 고사상태에 빠져있는 '대학생불교연합회'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지역적 전국적 유대 속에서 큰 움직임을 일으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불자들이 스스로의 모색을 통해 자신들 세대에 맞는 불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장 시주가 들어오는 계층 포교에만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불교계의 슬픈 모습이다. 그러다간 머지않아 사찰과 불상은 즐비한데 불자는 없는, 불교의 암흑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것을 막을 가장 시급한 작업이 무엇인가? 차세대 불교의 주역이 될 대학생 불자들의 맥을 살리는 일이다. 한 세대의 공백이 오면 그 후유증은 그 뒤에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메워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꺼져가는 대학생 불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나서자.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불명예 퇴진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최근 3개월 새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불명예스럽게 사퇴했다. 직계가족이나 주변 인사들의 땅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인사청탁 등의 각종 의혹이 불러온 결과다.

일련의 인사파동은 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전히 이런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읽지 못한채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무서운 경고다.

뒤늦게 정부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체계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복잡하게 분산시켜놓은 재산과 비위를 모두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에서부터 말단공직자까지 윤리관을 확립하지 않는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며, 공직자들의 자기성찰과 변혁, 국민들의 인내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어쩌면 그 이상의 역경이 뒤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실현해야할 명제임에 분명하다.

■박봉영(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조계종 비구니부 신설

조계종 제166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비구니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무원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이에 대해 많은 비구니스님들은 비구니부 신설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비구니부 신설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본다.

비구니부 신설은 시대적 요구



최근 어느 비구니 스님이 조계종단에서 추진 중인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 추진을 놓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찰 10곳 가운데 비구니 사찰은 한곳도 지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총무원 집행부의 고의적인 행정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종단의 비구니에 대한 소외와 인식부족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통해 최근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비구니부의 신설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분명 조계종 종헌에는 비구와 비구니가 2부승가의 구성원으로 명문화되어있다. 구성원 가운데 절반인 7000여명이 비구니인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취임과 동시에 총무원 문화부장으로 비구니 스님을 임명하기까지 했다. 종단 내 비구니가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는 종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21세기는 종교 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따라서 우리불교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대사회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구니의 활용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이제 조계종은 비구니 전담기구의 신설을 통해 비구니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 활용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운달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법 등 신중한 검토 필요해



조계종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스님들의 행정 참여라는 점에서 비구니부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또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남성중심에서 양성평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하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비구니부 신설을 주요 뼈대로 한 종헌 개정안이 제166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될 수 있었던 동력은 서울 수서에 건립된 비구니회관에 있다고 본다. 즉 새로 건립된 비구니회관에서 회장단을 주축으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았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비구니부 신설 종헌 개정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굳이 비구니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비구니 스님들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으로서 비구니부 신설에 따른 재정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종단 예산 중 실질사업비 보다 인건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재정확충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부서 신설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비구니부를 신설하기에 앞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이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 어떤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분리해 비구비부에서 담당할 것인지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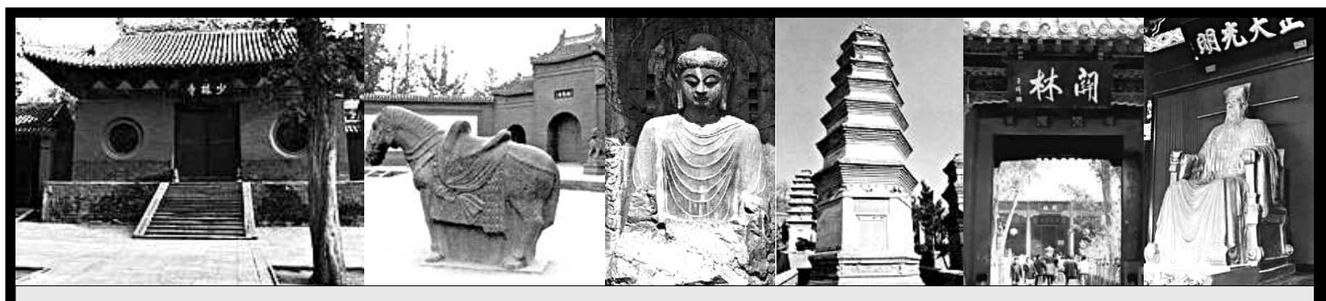
현 종단 상황을 살펴볼 때 비구니부 신설은 쉽게 논할 사항이 아니다. 원로스님과 율사스님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모인 공청회 등을 개최해 먼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종헌종법 제 · 개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적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현대' 만평

심 민 섭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5년 5월 1일 (4박 5일 투어) ● 요 금 : 4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포공사 관우의 관림 등

● 주요명소 :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 림 사
중국최초 불교사찰 백 마 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판관 포청천의 포 공 사
삼국지 관우의 묘지 탑 림

● 비자 신청 서류
여권 카피 1부 팩스 송부
(유효기간 : 6개월 이상)

◈ 신청마감 : 2005년 4월 25일

◈ 요금 : 499,000원 ◈ 출발일 : 2005년 5월 1일

DATE	CITY	TRANSIT	TIME	LOCAL SERVICE	MEALS
5월 1일	인천 정주	전세기	22/00 23/00	전세기로 서울 출발/정주 도착 후 호텔휴식	
				호텔 : 정주 홍산호호텔(4성급)또는 동급	
5월 2일	정주 등봉 낙양	전용버스	전 일	호텔조식 후 등봉.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고승의 부도인 탑림, 소림사무술 시범단 무술시범관광. 현지 중식 후 중국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광.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호텔 : 낙양 모란성 호텔(4성급) 또는 동급	
5월 3일	낙양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원 관광. 현지 석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관림 관광. 개봉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호텔 : 개봉 옥상 호텔(3성급) 또는 동급	
5월 4일	정주 개봉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북송의 화가 장택단이 그린 "청명상하도"의 거리를 재연한 청명상하원 관광, 판관 포청천의 기념관인 포공사 관광. 현지 중식 후, 철탑공원, 송도어가 관광. 정주로 향발 석식 및 호텔휴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호텔 : 정주 미래호텔(4성급) 또는 동급	
5월 5일	정주 인천	전세기 CZ8089	20/00 22/50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황하 유람구 (수륙양용보트 USD10)관광. 현지 중식 후 대하촌 유적 관광. 전세기로 귀국	호텔식 현지식

MEETING	○	SENDING	○	GUIDE FEE	○	AIRPORT	○	SIGHTSEEING	○
REMARK	● 선 택 관 광 : 수륙양용보트 탑승 황하 유람($10 / 1인) ● 불포함사항 : 기사와가이드팁($20 / 1인), 여행자보험 ● 포 함 사 항 :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 1실), 입장료, 관광지 전기차,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_전세기,인,관계로,출,도착,시간,변동,가능성,있습니다._								

● 이상 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 준비사항 : ❶ 현지 가이드와 기사팁은 미화(USD)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❷ 현지 음식이 기름지고 향이 강하니 개별음식(김치,커피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❸ 중국내 상점에서는 한국돈 및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니 약간의 위엔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약 금 : 175,000원 (1인 + 비자비)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

◈ 연 락 처 : (주)격린여행사 TEL 02)337-9337 FAX 02)337-3231, 3858

모아에너지산업 [주]

佛心

신비의 파동에너지

별똥별 보석염주

별똥별과 함께하는 시간,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전속모델 남일우, 김용림 부부

파동에너지 별똥별 보석염주 기적!

별똥별에 인체와 동일한 양파동을 전사 입력하면 체내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이 발생합니다.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암세포 활동정지, 혈압, 관절염, 두통, 신경통 등 각종 만성질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별똥별에서 강력한 회전전자파가, 경락에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활성화시켜 인체의 면역활동 및 생체활동의 개선효과,
특히 천연운석 자체에서 발생하는 생육광선과 원적외선 효능에 파동에너지 입력에 따른 음이온 발생합니다.

석가탄신일 맞이
20%특별할인 판매
~~₩360,000원~~
₩288,000원
기간 : 석가탄신일까지

특허 받은 파동에너지, 이런 분께 특히 좋습니다

- 수능, 취직시험을 앞둔 자녀
- 승진시험을 준비중인 아빠
- 생체리듬 활성화 증진
- 면역력 증가
- 어르신의 노화방지 및 치매예방
- 심신의 안정과 기력회복이 필요한 분

※ 에너지 발생카드 : 특허 제 34164호



과학으로 입증된 효과, 별똥별의 놀라운 효과

- 양성에너지 발생 측정결과 +16 증가
- 원적외선 방사율 91%
- 파동 음이온 발생
- 수맥전자 유해파 제거(사방 30cm)
- 소화장애 제거(음의 식품을 양이온으로 변환)
- 피로회복, 기력 증강, 노화방지, 치매예방
- 어깨결림, 세포조직 활성화, 요통 등의 통증 완화
- 혈액순환 촉진 및 혈압 장애 해소

문의 : 1588-6288
www.moaenergy.com

전국 대리점 및 영업부 직원 모집
대리점은 각 지역 선착순 마감하며 계약상담은 미리 예약하십시오.

별똥별(천연운석)이란? 별똥별이란 유성, 혜성, 소행성, 태양계를 떠돌던 우주의 부스러기가 지구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별똥별은 우주생성의 비밀을 캐는 중요한 연구재료로 쓰여며 낙하한 운석들을 실험해 본 결과 주위의 작한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우리가족 웰빙 필수품

별똥별 보석염주


짚풀생활사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장

인 병 선

희로애락 함께한 '짚' 알수록 매력 넘쳐요



25년간 5000여점 수집, 200여 공예기술 습득
힘들때 마음 달래준 불교가 짚풀문화 지키게 해
"교육과정 반영 통해 재평가 … 저변 확대 되길"

두엄자리에 던져두면 썩은 거름이 되고, 아궁이에 넣으면 연료가 돼 방구들을 덥혀주며, 물 가득한 가마솥에 넣어 끓이면 소여물이 된다. 이뿐이랴, 지붕으로 엮으면 초가집이 되고, 새끼를 꼬아 틀고, 매듭을 묶으면 짚신이 된다. 이처럼 다양하게 사용된 짚과 풀은 우리 전통적 삶의 양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된 재료였다. 하지만 너무나도 흔했던 탓일까. 아니면 서민의 문화였던 탓일까. 홀대를 받으며 우리 짚풀문화는 양철지붕과 슬레트, 플라스틱제 공산품에 밀려 사라져갔다.

이처럼 쇠멸해가는 문화의 한 자락을 붙잡고, 짚풀문화를 전통문화의 정수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가 있으니, 짚풀생활사박물관 인병선 관장(70)이 그다. '껍데기는 가라' '금강' 등의 걸출한 시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 · 민중시인으로 추앙받는 신동엽 시인의 아내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인 관장은 1970년대 후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짚풀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연구 · 수집하기 시작, 25년 동안 5000여 점의 공예품을 수집하고 200여 가지 공예기술도 습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 서울 청담동에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열었고, 2001년 명륜동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박물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짚풀문화야말로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지요. 삶의 한 부분으로서 형성된, 생산 · 기층문화로서의 짚풀문화에는 자유분방한 다양성과 생명력이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문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힘이 넘칩니다."

세계 유일의 짚풀 전문 박물관인 짚풀생활사박물관은 전시와 수장 이외에도 다양한 짚풀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짚풀공예전문가도 배출하고 있다.

인 관장이 짚풀문화의 매력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 무렵. 전통 문화를 찾아 전국 각지를 답사하던 그는 우연히 단양 베틀재 마을에 머물게 됐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노란 새 짚으로 지붕을 엮어놓았는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 모습이 갓 단장한 새색시 같더라고요. 솜씨 있게 꼬고 틀어 올리고 매듭지어 집안 여기 저기 걸어놓은 주저리, 등주리, 잠박 등 짚풀 민구(民具)까지 한데 대 재학 중이던 큰 아들이 학생운동을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강제로 군에 끌려간 것. 군대 내 의문사가 잦던 시절이라 인 관장은 불안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촛불을 밝혀 허공에 대고 무작정 기도했다. 이를 안 친구 하나가 그를 불교로 인도했다.

친구의 손에 끌려 찾아간 곳은 서울 보광사. 친구가 시키는 대로 법당에 들어가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오만함과 과오를 깨닫고, 참회하고 또 참회했다. 참회를 통해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인 관장은 정일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육조단경> <선가귀감> 등 선어록을 읽었고, 매주 토요일에는 참선정진에도 참여했다.

"<반야심경> '불구부정(不垢不淨)'의 의미가 도무지 풀리지 않던 때였어요. 정일 스님이 법문하길, 똥을 놓고 사람들은 더럽다 하지만 구더기에게는 더할 수 없는 먹거리요 안식처라는 것이에요. 이거다 싶었지요. 앉은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삼배를 올리고 말았어요. 남들은 더럽다 꺼리는 닭똥 · 쇠똥 묻은 민구를 저는 보배처럼 여기고 있었으니 바로 제 얘기 같더군요."

상대(相對)적 견해에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은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하던 마음에 물을 끼얹은 듯한 고요함을 가져다주었고, 부처님의 안심법문은 민중의 삶에 안식처가 돼준 짚풀의 포근함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만난 불교는 그로 하여금 온갖 갈등을 접고 짚풀문화 지킴이로서의 한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돼 주었다.

인 관장의 바람은 짚풀공예가 교과 과정에 편입되도록 하는 것. 일본에서 온 종이접기는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만, 정작 우리 짚풀공예는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짚풀문화의 원초적인 생명력은 예전 같지 못하지만, 전통 공예로서의 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짚풀문화 및 공예를 다시 평가하고 재정립할 때입니다. 교육과정 반영을 통해 짚풀공예 저변을 확대하고, 현대화를 모색해야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짚풀 문화, 21세기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또다른 생명력을 획득할지 지켜볼 일이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기자





나의 수행법

신향화 (上)



내가 불교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인과응보'란 말 때문이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그 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받는 모든 고통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서 지어놓은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억울했다. 또 로또 복권 한방에 내 업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서 막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이론 정립이 반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불교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 염송을 했다. 진언수행의 기본은 몸으로 결인(비로자나불 수인과 결가부좌)하고, 입으로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고, 뜻으로 관(마음으로 법신불을 관함)하면서 부처님의 몸과 입과 뜻을 좇아 이 몸 이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10년 이상 기복 수단으로 진언수행
어느날 문득 문제점 깨닫고 참회

그러나 진언수행의 시작은 의문투성이였다. 내가 부처님의 말과 행동과 정신을 흉내 내는 것일뿐 '내가 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입과 몸과 뜻으로 짓는 죄업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법신불이 되겠어' 하며 의심만 키워갔다.

또 불공의 의미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미연(未然)의 복 심고 미맹(未盲)의 화 끊는다'라는 진각종 교리를 집약한 <진각교전(眞覺敎典)>의 구절처럼, 눈앞에 닥친 일들(시험, 입학, 취직 등)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나를 볼 때마다 푸념이 커져만 갔다.

10년을 넘게 이렇게 진언수행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수행의 문제점을 깨닫게 됐다. 원인은 내가 진언수행을 너무 기복의 수단으로만 여겼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시험을 잘 보고 싶다거나 원하는 소원이 있다거나 할 때, 염송과 희사를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원도 커지고 바라는 것도 많아지면서 점점 희사와 염송이 수단이 되어 간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난 삼밀관행(三密觀行)의 요체는 어떤 것일까. 또 어떻게 육자진언을 염송해야 하고, 육자진언의 뜻은 무엇일까? 진언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렇게 진언을 간절히 외는 어느 순간, 내가 지은 모든 악업에 대한 참회가 들었다. 그러면서 진언수행이 악업의 연으로 맺게 될 나쁜 일들을 현명하게 헤쳐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결국 난 '내가 법신불'이라는 의미를 체득할 수 있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온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알라"는 <진각교전>의 말처럼, 아집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마음속엔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불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언수행은 하면 할수록 내 속의 불성을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는 시간을 늘려줬다.

특히 죄를 짓기 쉬운 몸, 입, 마음(三業)은 다시 생각하면 더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 진언수행의 삼밀(三密)관행의 핵심이라는 것 또한 깨달았다.(계속)

■ 서울 진선여고 교사

번뇌와 업장 녹여 '수행기틀' 제시

"눈에 보이는 중생 모두를 위해 다라니를 독송하라. 중생들에게 귀로 듣게 해 깨달음의 인연을 지어 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입으로 빠르게 다라니를 외게 하되 소리 소리마다 끊이지 않게 하면 금생에 성불할 수 있다."

참회와 발원의 경전, <천수경(千手經)>.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의 공덕과 의미를 강조한 <천수경>의 한 구절이다. 그럼 <천수경>은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을까. 또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왜 외는 걸까?

3월 27일 서울 수안사(회주 세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위신력,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천수다라니 백만 번 독송 기도법회'를 입제했다. 불교계에서는 <천수경>을 '수행의 길라잡이'라 부르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늘 독송하는 <천수경>의 요체와 독송 자세 등을 알아본다.

'천수경'의 요체

먼저 <천수경>의 경전사적 시원은 이렇다. 모체는 <법화경>이다. 그것을 축약한 것이 <관세음보살품>, 즉 <관음경>이고 <천수경>의 모경(母經)이 된다. 직계로 따지면,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아들 격이고 그것을 압축한 것이 바로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이다. 따라서 <천수경> 수행의 요체는 다라니 독송에 있다.

김호성 교수는 "천수경에서 대범천왕이 관세음보살에게 '이 다라니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묻자, 관세음보살이 9가지의 마음(九心)을 제시하고 있다"며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의 요체는 바로 이런 마음을 얻으라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결국 <천수경> 수행의 핵심은 자비심, 평등심, 무위심(無爲心), 공경심(恭敬心),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 공관심(空觀心), 무견취심(無見取心) 등의 9가지 마음이 곧 다라니의 본질과 생명임을 깨닫는데 있다는 것으로, 이는 <천수경> 수행의 목적이 된다.

'수행의 길라잡이'가 되는 이유

수행법 제시가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천수경>은 참회법, 염불법 등 실질적인 자기변화를 이끌어내는 수행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신묘장구대다라니로 대변되는 진언 독송은 <천수경>의 중핵을 이룬다. 42가지 사례별로 제시되는 진언들은 재가불자에게 마음공부의 '방향타'가 돼준다. 여기에 선의 도리까지 담고 있어, '수행의 기초교과서'가 된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천수경>의 이런 특징이 수행의 길라잡이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천수경>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업장을 녹이는 등 '수행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천수다라니를 외는 사람에게 도심(道心:보리심)을 무르익게 하고, 정법(正法)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는 <천수경>의 구절을 제시한다.

<천수경>의 이 같은 '수행 기초서'로서 역할은 근세 선지식 수월 스님(1855~1928)이 평생 <천수경>과 천수다라니를 지송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수월 스님의 행적을 좇은 책 <물 속을 걸어가는 달>를 펴낸 춘천지방검찰청 김진태 강릉지청장은 "천장암 행자 때부터 하루 종일 일만 했던 수월 스님은 항상 천수다라니를 외면서 번뇌 망상과 업장을 완전히 녹여버려 수행의 기초를 다졌다"고 말한다.

'수행 기틀' 다지는 지침

<천수경 선해(禪解)>를 펴낸 대전 국은사 주지 묘봉 스님은 "천수경은 천 · 만 가지 부처님의 법문을 요약하고 그 핵심을 드러낸 경으로 선의 요지, 염불, 경전 등을 두루 섭렵해 전하고 있다"며 "선의 측면에서 천수경은 존재의 세계 그대로가 일심법계(一心法界)요, 불신(佛身)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고 말한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도 마찬가지다.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가 곧 화두라고 말한다. 다라니는 번뇌 타파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라니 속에 담겨진 의미는 번뇌를 없애는데 장애가 될 뿐"이라며 "다라니를 외움으로써 번뇌 망상을 깨부수면 성불할 수 있고, 바로 이 부분에서 다라니는 선에서 화두가 하는 기능을 정확히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독송 자세는

가장 중요한 자세로 '다라니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던져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 그래야만 맹목적인 주술과 기복행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십선계를 지키며 다라니를 독송할 것 △제법의 실상을 꿰뚫어 자성이 공임을 자각하는 이참법(理懺法)으로서의 참회자세 견지 △자력 수행의 태도 확립 등을 꼽고 있다.

전재성 회장은 이와 관련 "되도록 한역으로 음사된 다라니보다 원음에 가까운 범음(梵音)을 통해 마음으로 새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3월 27일부터 '천수다라니 백만 번 기도'에 들어간 서울 수안사 회주 세민 스님은 "천수다라니를 독송할 때는 어떤 기원과 소원도 버리고 일심으로 정성껏 지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으로 바로 이곳이 극락정토임을 확인하고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천수경'이 수행길라잡이 되는 이유?



3월 27일 서울 수안사에서 열린 '천수다라니 백만 번 독송 기도법회 입제식'에서 2백 여명의 불자들이 다라니 독송을 하고 있다. 사진=노병철 기자

모체는 '법화경' … '다라니' 독송이 핵심
진언이 곧 화두, 의미 억지 해석 말아야

▮ 용성 스님의 천수다라니 지송수행법



"생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데, 어떻게 해야 견성(見性)할 수 있습니까?"

"지난 세상의 업장은 무겁고 선근은 약하니 견성하기 어렵다. 그러니 대비심주(천수다라니)를 부지런히 외워라. 그러면 자연히 업장이 소멸돼 마음의 광명이 드러나게 된다."

한국 근대 고승 수월 스님과 용성 스님의 문답. 16살에 해인사로 출가한 용성 스님(사진 · 1864~1940)은 의성 고운사에서 수월 스님을 뵙고, '천수다라니' 독송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

그럼 대선사인 용성 스님은 천수다라니를 어떻게 지송했을까? 스님의 저서 <각해일륜(覺海日輪)>에 따르면, "항상 깨끗이 목욕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향을 피워 일심정성으로 다라니를 지송하라"며 4가지 독송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라니를 소리 높여 욀 때는 그 외는 것을 돌이켜 볼 것 △입 안의 소리로 욀 때도 그 외는 소리를 돌이켜 볼 것 △입과 혀를 움직이지 않고 다라니를 생각할 때도 그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 볼 것 △다라니를 욀 때는 범서 '옴'자가 달처럼 뚜렷하고 밝은 것을 관하며 욀 것 등이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관법(觀法)을 행하면, 자연히 마음이 청정해 모든 번뇌가 없어지고 마음 전체가 밝아져 결국 '본 마음'을 깨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육자진언의 수행법과 공덕을 저술한 <육자영감대명왕경>에서 "육자진언을 염념불망(念念不忘)하게 외고 분명하게 생각하면, 무량삼매를 얻어 자성을 깨쳐 대각을 성취한다"고 기술했다. 이는 다라니 수행이 깨달음에 좋은 방편이 된다는 확신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이 깨달음에 있음을 설파한 것이다.

한국조동종 총본산 社團法人 韓國佛敎曹洞禪林

원효불교대학 공개강좌 안내

본 대학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의 종찰인 원효사가 불교대학 개강준비 일환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합니다. 본 대학은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이념으로 선교겸학(禪敎兼學)의 교학체계(敎學體系)와 불교지도자 및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이신 오형근교수(철학박사)님을 모시고 공개강좌를 실시함을 알리오니 많은 동참하시여 불법의 진리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1. 강좌과목
   가) 조동선학 논총(曹洞禪學 論叢) - 필자 직강좌
   나) 유식학입문(唯識學入門) - 마음의 체성과 작용을 자세하게 분류 체계화 설명
   다) 불교의 윤회관과 영혼 -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영혼설과 업력 윤회의 도리 해설
   라) 반야심경 - 대승불교의 공사상 해설
   마) 인도불교의 선사상 - 소승선과 대승선(조동선) 사상적 해설 강좌
2. 기 간 : 2005년 4월 7일 ~ 12개월
3.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대학강의 기준)
4. 강 사 :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 오형근 명예교수(철학박사)
5. 입학자격 : 가) 승려 및 일반불자(성별제한없음) 나)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6. 입 학 금 : 100,000원(원서료 및 교재비포함)
7. 수 강 료 : 50,000원(매월)
8. 제출서류 : 본대학 소정의 서류(여권사진 3매)
9. 수강신청 마감일 : 2005년 4월 6일
10. 특 전 : 가)본 대학졸업자는 졸업장 및 졸업 기념패 수여 나)본 대학졸업자는 종단 전교사 자격증 수여
11.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호 원효사
    원효불교대학 교학처 02)718-6221 / 713-0475

「曹洞禪學論叢」 제1집 조동선학논총

◇ 曹洞宗 源流訣 - 五家法統次序譜
釋金堂 (파평산 휴휴암주)
◇ 조동종 默照禪의 연구
吳亨根 (동국대 명예교수)
◇ 曹洞禪思想의 연구
洪修平 (중국 南京大 교수)
◇ 羅末麗初의 曹洞禪
金永斗 (원광대 교수)
◇ 조선시대 曹洞禪의 흐름
韓鍾萬 (원광대 교수)
◇ 중국 조동선과 新羅禪師 - 「동산록」所載의 신라인식을 중심으로
下麟錫 (전 아주대 교수)
◇ 眞如禪寺의 과거와 현재
崔錫煥 (월간 「선문화」 발행인)
◇ 현대중국 선종 중흥조 虛雲和尙 행장
一誠 (운거산 진여사 방장)



조동선(曹洞禪) 첫 연구서 출간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대표 총무원장 今禪 鶴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삼각산 원효사 전화 02)704-8065, 713-0475 팩스 02)704-8064

수행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이 모여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접점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3월 26일 한국정신치료학회 주최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선수행과 정신치료' 학술연찬회에서는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현웅(서울 육조사 선원장) 지운(대구 용연사 주지) 등의 스님들과 이동식(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 박병탁(박병탁 신경정신과 원장) 전현수(전현수 신경정신과 원장) 등 수행과 정신치료를 병행해 온 정신과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행과 정신치료의 상관성에 주목했다.

간단한 주제 발표에 이어 난상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연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연관관계에 대한 의문이었다.



현장 – '선수행과 정신치료' 학술연찬회

한국정신치료학회는 지난해 '수도와 정신건강' '도정신치료와 서양정신치료' 포럼에 이어, 3월 26일 스님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수행과 정신치료' 학술연찬회를 마련했다.

"선수행=정신치료" "고증돼야" 맞서


종범 스님


현웅 스님


지운 스님


이동식


전현수


박병탁

현웅 스님·이동식 박사 "궁극적으로 같다" 주장
박병탁 원장 "의식 변화, 사고·감정 통제와 달라"

현웅 스님은 "참 선심을 만나면 분별망상이 일시에 사라지는 등 선(禪) 자체가 정신치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선수행과 정신치료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道)정신치료를 제창하며 '애응지물 기제각(碍膺之物 旣除覺 · 가슴에 거리끼는 물건을 없애면 깨달음을 얻는다)'을 주장해온 이동식 박사 역시 십우도(十牛圖)의 정신분석적 해석 등을 내세워 수도과정과 정신치료는 둘이 아님을 주장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병탁 원장은 "정신치료에서의 관찰과 선수행의 관(觀)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신치료에서는 주객이 합일하는 삼매(三昧) 즉 지(止)의 과정이 없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신치료는 의식의 내용인 사고와 감정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선수행은 의식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은 선이고 정신치료는 정신치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운 스님 역시 "대부분의 정신치료는 의식수준까지만 얘기할 뿐 그 이상은 건드리지 못한다"며 "모양은 비슷하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엄밀하게 고증 ·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범 스님은 "정신치료자는 선을 통해서 구도 동기를 순수하게 배양시킬 수도 있겠지만, 정신치료와 선이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정신치료자들은 선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참선은 그렇게 분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객석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진 토론 자리에서는 정신치료의 과정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구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다. 한 질문자는 "마음 속의 애응지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대상의 존재가 확실해야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현웅 스님은 "애응지물은 불성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며 "치료나 수행의 과정 속에서 불성에 불어있는 그것을 관찰하다보면 애응지물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 본래 성품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지운 스님은 '불쏘시개로 불길을 일구면 불꽃이 크게 피어나지만 불쏘시개도 함께 탄다'는 <원각경>의 비유를 들어 "애응지물을 없애면 그것을 없애는 방편도 함께 없어진다"며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젖은 정신치료자와 수행자들에게 방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병탁 원장 역시 '마음을 보는 것은 누구이며 마음은 어떤 물건이냐'는 선종 4조 도신(道信)의 말을 빌어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정신치료자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불교적인 해법도 제시됐다. 이동식 박사는 "정신치료의 핵심은 언 땅에서 떨고 있는 환자에게 봄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치료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淨心) 부처의 자비심으로써 환자의 문제를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범 스님은 "열반을 구하든 깨달음을 구하든 '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애응지물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라며 "정신치료자가 보살의 자비심을 강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신치료자의 완전한 정심(淨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 자리에는 상담 및 치료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인 300여 명이 대거 참여하면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 '정신치료 대상자 가운데 선수행이 가능한 기준' 등을 요구하는 질문 등이 쇄도,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글 · 사진=강신재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2> 수행의 길 함께 가는 형제자매

20년 전에 해인사로 얼굴이 앳되고 덩치가 제법 있는 행자가 들어왔다. 데리고 온 보호자가 비구니스님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스님은 그 행자의 누나였다. 출가사찰 지정부터 은사선택, 승려노릇의 고비고비마다 조언해 주었다. 하지만 속가의 신심있는 부모마저도 '저 혼자도 모자라 동생까지 데리고 나갔다'는 원망 아닌 원망까지도 감수해야 했다는 이야기도 후일담으로 들었다. 지금 그 스님은 복지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원력을 실천하면서 반듯하게 승려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

마조 선사 문하의 등은봉 선사도 누이동생이 비구니였다. 절집에서 살다보면 형제 자매 등 가족이 함께 수행생활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언제나 대중들에게 어깃장을 놓긴 했지만 등은봉 선사가 유명한 것은 흉내낼 수 없는 열반 자세의 독특함 때문이다. 좌탈(坐脫)도 드문 일인데 한 술 더 떠 오대산 금강굴에서 거꾸로 선 물구나무 자세로 열반에 들었다. 대중한테 별로 대접받을 일을 해놓은 것이 없었던 까닭에 모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별스럽다고 혀를 끌끌 찼다.



물구나무 선 채 열반한 등은봉 선사
출가한 누이동생 한마디에 제자리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더러 쓸데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의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등은봉 선사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섰을 때 그 풍성한 동방아 승복의 오지랖은 어떻게 되었을까? 땅 방향으로 흘러내려 빨래도 제때 하지 않은 꼬질꼬질한 속옷이 누렇게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었을까? 괴각의 공통점은 빨래를 잘하지 않는 것인데… 누이가 대신 정기적으로 세탁해 주었다면 다행이고.

스님의 성품으로 봐서 누이 역시 그런 일로는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을 것 같다. 기록에 의하면 옷 역시 서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흘러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이야 그렇타손 치더라도 무정물인 옷 역시 끝까지 몸을 가리는 역할을 다했다고 하니 그 불가사의함 역시 선사의 공부힘의 현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오돈부(吳敦夫) 거사는 회당(晦堂) 노스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분의 열반이 남다른 것이야 감히 범부인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승복 또한 스님을 따라 그랬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대가 지금 입은 옷이 몸을 따라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데도 그것을 의심하는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다면 물구나무를 선 채 열반할 때 옷도 몸을 따랐을 뿐인데, 여기에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이 말에 거사는 그 자리에서 안목이 열렸다. 죽은 선사가 살아있는 거사의 안목을 열어주었으니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스승노릇을 한 셈이다.

그나저나 진짜 큰 일은 열반이후 발생하였다. 다비를 하려고 하니 선사의 육신이 그대로 물구나무를 선 채 꿈적도 않는 것이었다. 대중들은 웅성웅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누군가가 누이 비구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걸 보면 그 니(尼)의 경지도 이미 대중들이 인정할만큼 보통 수준은 넘었던 모양이다. 이 소식을 전해듣고 근처 토굴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그 곁에 서서 조곤조곤 한마디 하였다.

"오빠는 살아서도 괴각질로 대중을 피곤하게 하더니, 죽어서도 역시 세상인정을 따르지 않는군요."

그리고서 툭 치니 그제서야 넘어졌다. 선정에 든 여인을 망명보살이 손가락을 튕겨 깨어나게 했다는 '여인출정(女人出定;' 선문염송' 32칙)' 공안을 연상케 한다. 그 길로 다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남매간의 그리고 또 같은 길을 가는 수행자로서 애틋함이 있으면서도 법으로 승화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등은봉 선사의 괴각이력 속에서 고명양념처럼 등장한 누이의 모습이지만, 그동안 별났던 오빠의 행적을 일거에 상쇄시켜 버린 참으로 숙연한 광경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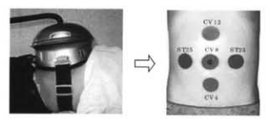
'각종 통증완화' 쑥뜸기 좌훈기 개발 출시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쑥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제품 - 쑥뜸기, 좌훈기

신상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2)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적용혈자리 : 회음혈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갱년기 장애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모사포유 www.moxa4u.com
D.M.I산업, 대구한의대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 (02)521-6353~4
제품구입문의 : (02)598-9834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우리는 이미지와 환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세계 안에, '너와 내'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으며, 마침내 '있고 없음'의 분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중언부언 주절주절 읊고 더듬어 왔습니다. 불교의 지혜란 바로 이 근본 사실을 통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실제를 말할 수 있는가

깨달음이란, 인류의 오랜 환상을 떠나 삶의 실제(實際)와 만나는 것입니다. 아 참, 불교가 진리의 이름으로 이 '실제'를 쓴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명(無明)의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을 투명하게, 자아의 집착을 떠나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때가 열반, 즉 자유와 불멸을 얻는 때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실제(實際)는 자아의 집착성을 떠나 있으므로 존재로도 비존재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제 앞에서는 일상적 언어와 관념이 경계와 예각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누가 눈앞에 역역한 이 적나라한 실제에 이름표를 붙이겠습니까. 이 절대는 인간적인 흔적들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순이나 갈등 또한 발붙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시간도 공간도 의미를 잃습니다.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공간의 분할과 의미는 전형적으로 인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물 사이를 가르고 분류하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서로 너무나 다른 것을 떠올려보시면 짐작하실 것입니다. 나와 책상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다들 놀랍니다마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노장과 불교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 구분은 사물의 성질 자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의견에 따른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어도 생선의 종류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신선한지 아닌지는 지나치다싶게 섬세하게 구분합니다." 공간들은 '그 자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기에 높다와 낮다, 크다와 작다가 실제(實際)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화엄경>의 수수께끼 같은 언설, 선사들의 반복되는 역설이 비로소 이해될 것입니다. "수미산이 겨자씨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찬다!"

시간도 공간도 없는 세계

시간은 인간에 의해 추상화된 것일 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시간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아, <금강경>의 유명한 사구게가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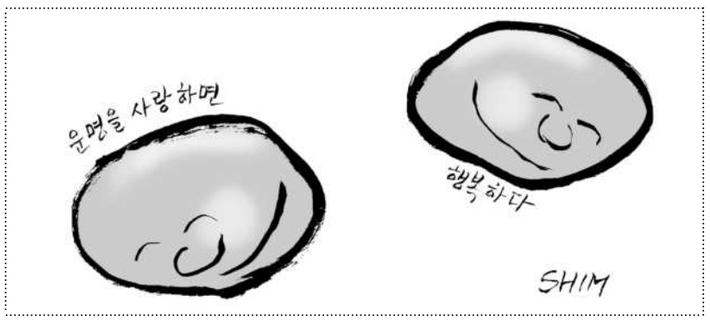
진정 살아있고, 살아가는 순간에는, 거기에는 시간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음의 현장을 떠나, 그 일체와 몰입의 순간을 떠나 마음이 콩밭으로 떠날 때 비로소 시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랑이 식거나 또 내일 회의가 있거나, 오늘처럼 원고마감에 쫓길 때 말입니다.

<금강경>은 시간이 없다 하는데, <화엄경>은 시간들이 서로 침투 융섭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말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시간은 상상된 관념인데, 구체적 경험 속에는 추상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무량겁(無量劫)의 시간이 일념(一念)에 나타나고, 현재 속에 삼세(三世)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그 자연적 귀결로 생사(生死)가 없습니다. 하여 "생사가 곧 열반!"입니다. 이 통찰을 얻은 자 영원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즉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붓다는 이 오랫동안 묻혀졌던 진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길은 그러나 붓다에게만 열린 길이 아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은 늘 '옛 길'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고타마 붓다 이전에 수많은 붓다가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붓다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지구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 체계에서 수많은 붓다가 또 그렇게 깨달아 그 진실을 설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 깨달음은 깨달음 가운데, 가장 높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깨달음이, 오랫동안 차폐된 공간에서 의식을 집중하여 자아나 화두를 응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불교적 깨달음이 동서양의 정신적 지혜의 전통에서 보편적 성질의 것이며, 그것의 획득은 오히려 일상의 공간에서 삶의 경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엄경>이 선재동자의 구도 순례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산사의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얼굴이 바로 선지식의 광명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수많은 여래 가운데 하나이니, 스스로 보살이고 여래라는 생각의 연금술, 그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모두 평등한 금사자들

메난드로스 왕이 인간의 서로 다른 운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어째서 사람들은 서로 평등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합니다. (…) 어떤 사람은 아주 넉넉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며, 어떤 사람은 미천하고, 어떤 사람은 고귀하며,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현명합니다."

"대왕이시여, 어째서 수목은 똑같지 않습니까. 왜 과일도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짜고,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맵고, 어떤 것은 씁쓸하고 어떤 것은 달겠습니까."

"그것은 종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왕이시여, 업(業)이 제각기 다르므로, 사람들은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며, 어떤 사람은 병이 많고, 어떤 사람은 무병합니다. (…) 어떤 사람은 천하고 어떤 사람은 고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현명합니다."

불교는 이 차이를 산술적으로 평균화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네 운명을 사랑하라(Amor fati)"는 니체의 영웅주의를 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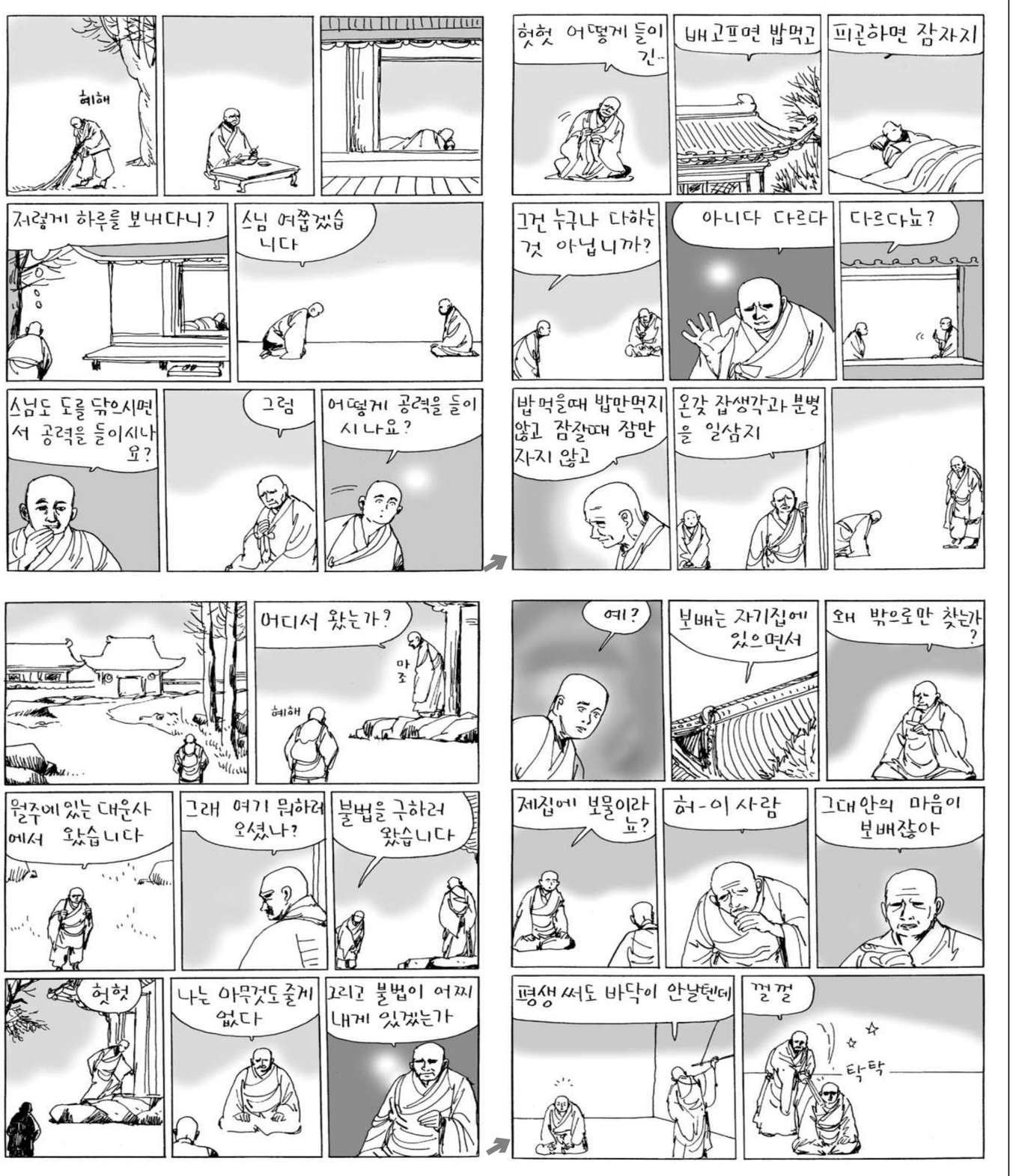
화엄의 종장(宗匠), 법장(法藏)은 측천무후를 위해 화엄의 이치를 금사자(金獅子)로 비유해서 강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금사자장(金獅子章)>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물과 사건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은 다만 형태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들도 모두 부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죽의 모습이 좀 다른 것은 다만 우연적 차이일 뿐이고, 실제 그 모두는 크고 작고가 나름대로 법계(法界)의 영광과 그 현란한 무도의 주인공들입니다.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 분별(分別)의 장애물을 치워야 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외적 조건들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치지 않으면서 각자 꽃피기 시작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⑫ 혜해 선사의 '공력'

조태호



혜해 선사(?~?): 당대(唐代) 스님으로 산서성 건주 출생. 마조 도일의 법을 이었으며 저술로 <돈오입도요문호> <대주선사어록> 등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깨달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문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깨달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혹자는 불교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신비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과연 깨달음은 그렇습니까? (불학자)

답1 : 깨달음은 글자 그대로 마음의 느낌입니다. 단지 느낌이 좀 강렬하면 좋으나 그렇다고 꼭 강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달음은 몰랐던 어떤 진실을 듣고 영혼이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한자로 각(覺)이나 오(悟)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각(覺)은 일상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대각(大覺)이라고 말할 때는 우주의 이치를 크게 깨달았을 때 씁니다. 오(悟)는 나오(吾)자에 마음 심(心)자가 붙은 것입니다. 마음에 대하여 크게 깨달았을 때는 대오(大悟)라는 말을 씁니다. 부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주의 이치도 크게 깨달았으므로 대각(大覺)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悟)라고 말하건 각(覺)이라고 말하건 어찌되었든 깨달음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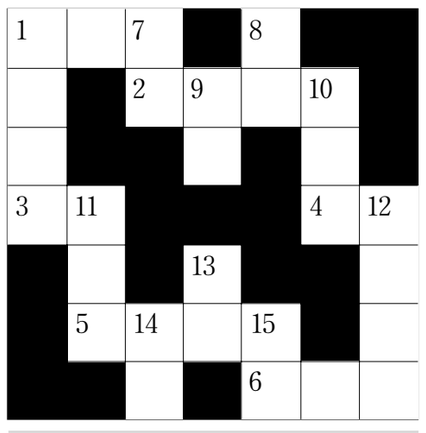
불교는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신행(信行)의 귀결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그 자체만으로 능히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가볍게 아는 것(知)과 다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알아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어떤 것은 체험으로 배우고 어떤 것은 선배에게 들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체험으로 아는 것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심선원)

답2 :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닫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달았다고 부처의 마음에 모두 조복됐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달았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 허가서를 받고 등교할 준비가 된 것일 뿐입니다. (도레미)

답3 : 깨달음에 계합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체험, 지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솔직하고 순박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어도 들어올 수 없지만 현명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문은 일정한 처소가 없어서 아무 곳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두 큰 바다로 들어와서 한 맛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다면, 당신이 부처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헤아림이 정지견을 장애합니다. (개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사미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로 근책율의라고도 함 2. 엄동의 심한 추위 3. '물안경'의 한자말 4.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 5.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얻게 됨 6. 물건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조세.

세로

1.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사방에 서있던 나무 7. 국가 비상사태시 행정 ·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것 8. 민간에서 구술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9. 어린이를 위하여 지은 노래 10.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11. 가수의 노래 없이 악단의 연주로만 된 대중음악 12. '대나무가 결을 따라 쪼개지는 형세'를 나타내는 고사성어 13. 풍물의 다른말. 14. 상반신은 사람의 몸이며 하반신은 물고기인 상상의 동물 15. 지나치게 크거나 부풀려짐.

정답은 26면에

신비로운 티베트 밀교 미술로 풀다

1987년 문 연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소장 미술품 중 131점 가려 뽑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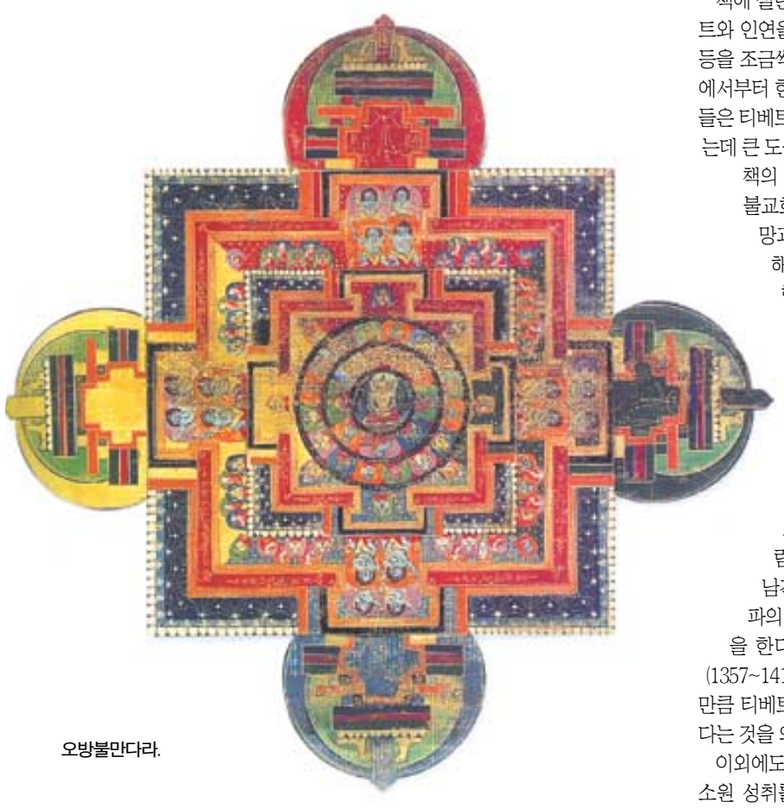
티벳의 밀교미술
현장 스님 | 부다기획

티베트 사람들은 만다라나 불교 미술품을 제작하는 일 그 자체를 불성에 이르는 과정이며, 동시에 깨달음을 향해가는 수행과 같은 것이라 여긴다. "좋은 불교영화를 만드는 것은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티베트 승려출신의 영화감독 키엔츠 노부의 말처럼.

특히 티베트인에게 있어 불교는 강한 정신력으로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미술품에는 티베트인의 기도와 수행, 그리고 신행 등이 작품에 그대로 농축돼 있으며, 그들 삶의 세계 뿐만 아니라 죽음 뒤의 정신 세계까지도 엿볼 수 있게 한다.

1987년 부터는 바로 이런 티베트 유물을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 스님)이 그곳이다.

최근 티벳 박물관이 출간한 도록인 <티벳의 밀교미술>은 박물관이 소장한 미술품 가운데 131점을 가려 뽑아 정리했다. 이 책은 티베트 밀교 도상을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화(탕카), 조각(불상), 공예, 밀교법구, 불경(금사경, 경전 덮개 장식), 생활민속품(차도구, 감실조각) 등으로 분류해 놓았다.



오방불만다라.

책에 실린 작품들은 현장 스님이 20년전 티베트와 인연을 맺으면서 그림, 조각, 공예, 민속품 등을 조금씩 모아온 것이다. 대체적으로 19세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것들로 분포된 이 작품들은 티베트 불교의 세계와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티베트 불교회화인 '탕카' 다. 탕카는 중생의 욕망과 번뇌를 이겨내고 지혜와 자비를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는 정토의 세계가 핵심을 이룬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탕카에 그려진 도상은 불보살, 조사, 호법, 수호존, 만다라 등으로 그 종류도 다양해 도상 자체가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다.

티베트 불교에는 전통적으로 닝마파, 샤카파, 깔마파, 겔룩파 등이 존재하는데 이 책에는 이 종파들의 조사도(祖師圖)도 수록돼 있다. 이 그림들은 티베트 불교 역사상 발자취를 남긴 유명한 인물을 그린 것으로서, 종파의 내력과 계보를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중 겔룩파의 창시자인 쫑카파(1357~1419)의 그림이 많이 그려진 이유도 그만큼 티베트인들에게 차지하는 그의 위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수명연장(壽命延長)과 구복(求福) 및 소원 성취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성된 '타라보살'이나 '호법존'도 이 책에 등장한다.

그런데 책장을 넘기다 보면 티베트의 대표적 미술품인 '만다라' 도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왜 일까?' 의아해 하겠지만 '티베트 만다라'는 인도와 네팔의 만다라에 비해 그 형태와 종류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설명에 필요한 지면이 많이 할애된다.

또한 도상의 이해도 쉽지 않으며 더욱이 티베트 민간신앙과 점성술의 영향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혼재돼 난해하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는 제외시켰다.

이 책에는 또 법구와 공예품도 실려 있다. 티베트 불교 의식에 쓰이는 법구들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인골로 만든 의식구들이다.

뼈로 만든 악기나 그릇 등 법구류는 티베트 불교에서의 주술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밀교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책 말미에 붙은 티베트 탱화로 그린 한국 고승 진영도 흥미롭다. 티베트 부부화가인 락삼과 체링, 왕궁화가 믹말이 구산 · 청화 · 초의 · 성철 · 서옹 스님 등을 그렸는데 사실감이 뛰어나 마치 영정 사진을 보고 있는 듯 정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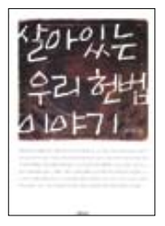
현장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삶의 고통과 불행을 깨달음으로 바꾸어 주는 티베트의 지혜와 불교 문화예술을 바로 이 한 권의 책에 정성껏 담으려 노력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쫑카파의 변신중 문수보살(사진 위)과 나무위에 채색한 경판 덮개.

전문가 서평



살아있는 우리 헌법이야기
한상범 지음 | 삼인 펴냄 | 1만8천원

이 책은 헌법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한상범 교수가 쓴 일반인을 위한 헌법 해설서다. 40년 넘게 동국대에서 법학을 가르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을 지낸 헌법학자 한상범(69)씨의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값진 책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우리 헌법의 중요 조항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단순히 법 조항의 변화만 살핀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의 헌법정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 헌법이 모태로 삼고 있는 서양의 법 제정 역사를 따져가며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헌법 교과서'를 표방하며 학자나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편에서 헌법을 해설하고 자신의 견해를 붙인 것도 독자들이 편하게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헌법은 '권력자의 족쇄이자 시민의 무기'라고 강조하고 헌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권력자의 욕심에 의해 훼손되고 칼질 당한 사사오입, 3선 개헌, 유신헌법 등 우리의 헌정사를 훑어보면서 어느 규정이 개헌의 핵심이고 어느 규정이 장식 문구에 불과했는지 대담하게 폭로한다. 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일본의 메이지 헌법과 독재의 잔재도 비판한다.

'보통사람' 위한 헌법 교과서

우선 그는 1948년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 조선총독부 법제가 식민지 탄압과 봉건 잔재가 결합돼 있는 사이비 근대 법제였고, 광복 후에도 우리 손으로 이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군사정권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본디 목적인 헌법이 '시민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둔갑한 점이다.

1996년에 검찰이 12 · 12 쿠데타 주역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성공한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라는 법리를 내세운 것을 두고 그는 "이미 대통령이 되어 버렸으니 기정사실로 수긍해야 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결과"라며 "군사정권 30여 년은 법률가에게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법철학 자체를 포기하는 법적 허무주의를 심어 놓았다"고 한탄했다.

대표적 언론 탄압 조항인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죄와 불고지죄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수사과정에서나 재판에서 이런 법리가 소용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의 문제도 꼬집었다. 대통령의 경우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고 필요할 때에 계엄권과 긴급명령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은 일본 메이지(明治) 헌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를 돌아볼 때 남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자부심을 가질 대목도 많다는 평가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우리 헌법 전문에 언급된 3 · 1운동과 임시정부 정신, 4 · 19 이념은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산물이었으며, 이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로 시작되는 일본의 헌법보다 훨씬 자랑스러운 것입니다."라는.

■최승혁(변호사)

UFO와 하나님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반짝반짝 빛나는 단쇠(쇠덩이) 같은 것이다.
▷ 날개가 달려 있다.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바퀴가 달려있다.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수정같은 궁창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와/제트분사)
▷ 궁창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에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과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하나님 선물로 알고 이를 神主로 서듯 하는 것처럼 현시시대에 UFO(우주인)을 유일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궤변과 비과학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범벅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죽이는 하느님을 보았는가? 무차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권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합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요.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경 TEL.042)623-0829 FAX.042)621-0110

불꽃속의 명당
만 성 지음

매장과 화장, 그리고 명당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화장에는 10가지 이로움이 있고 매장에는 10가지 해로움이 있다.

도서출판 초롱 02)738-5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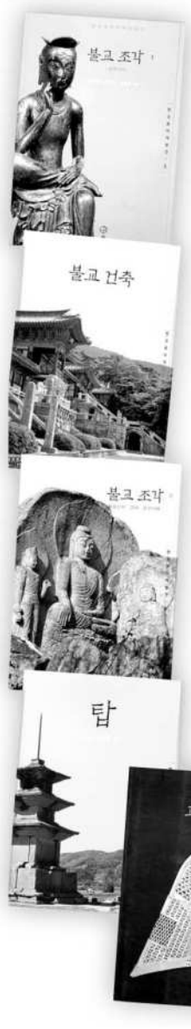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 도 기

회 · 원 · 모 · 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

형상화된 '부처님 가르침' 한눈에



솔출판사 '한국 美의 재발견' 총서 14권 완간

회화 ·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 집필
컬러사진 3000여장…딱딱한 이론 대신 쉽게

"석탑은 어떻게 쌓아올린 것일까?" "범종은 어떻게 제작했을까?" "전각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최근 완간된 <한국 美의 재발견> 총서 14권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총서는 솔 출판사가 '서양문화에 밀려 경시되었던 자랑스런 우리 문화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첫 선을 보인 기획시리즈다. <불교조각 Ⅰ, Ⅱ> <탑> <불교회화> <불교건축>과 같이 온전히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책뿐 아니라 범종과 사리장엄구 등을 다룬 <금속공예>,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소개하는 <과학문화> 등을 통해서도 총서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부피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의 아름다움을 '재' 발견하기 위해 시작한 이 시리즈는 독자들이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첫' 디딤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심미성과 독창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공감대가 대중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현실에서, 5천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의미 있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불교건축>의 경우 인도와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발현한 사찰 건축의 전개 과정을 개괄하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찰을 답사해 그 아름다움의 원형질을 찾아보고 있다.

책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전문 집필진. 미술사학자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前 경주박물관장)와 고고학자인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감수를 맡았고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원복 국립광주박물관장,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유마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등 24명의 전문가가 집필을 담당했다. 이들은 딱딱한 이론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정리했고,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는 최대한 풀어썼다. 특히 <탑>에서는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국보 39호)처럼 지난 1996년 해체 · 수리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 등 최신 성과들을 대폭 반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의 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전면 컬러의 도판과 사진. 각 책마다 200~300장씩, 전 시리즈에 걸쳐 3000여 장 가까운 사진이 사용됐다. 일례로, 지금까지 발견된 불상 중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뚝섬 출토 금동여래좌상'부터 1872년 제작된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화'까지 100여 점의 조각상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불교조각 Ⅰ, Ⅱ>는 책장을 넘기며 사진만 훑어보더라도 대략적인 조각사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글 중간 중간 '알아두기' 항목을 두어 '초조대장경 목록' '한국 범종의 과학적 구성과 울림소리' '불보살의 옷에 나타난 문양' '석탑을 쌓는 방법' 등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책 말미에 실린 '도움이 되는 글과 그림'에서는 용어 해설과 시대 변천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연표(年表)와 사진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불상이나 탑, 탱화 등을 단순히 '예배'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불자들이라면 이번 총서에서 조형언어를 통해 형상화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대자유인 선사>**(김형중 외 지음, 조계종출판사, 7천원)=김형중(동대부고) 박영동(동대부여고) 우인보(동대부중) 교법사가 중국과 삼국, 근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선사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간단히 정리해 엮었다. 달마대사부터 한암 스님까지 38분의 선사들을 만날 수 있다.



■ **<1분 앉으면 1분 부처>**(니시지마 와후 지음, 유 키미카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7천원)=니시지마 와후의 <불교문답>과 <좌선법>을 한 권으로 묶어 옮겼다.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그림으로 익히는 좌선법'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은이 자신인 '우도노인'과 가공의 인물인 '적심청년'의 문답을 통해 사성제와 보리심, 인연법, 좌선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



■ **<노자 도덕경>**(김광하 지음, 너울북, 1만5천원)=불교인권복지단체 '작은 손길' 김광하 이사장의 <도덕경> 해설서. 김 이사장은 <도덕경>을 81장으로 나누어 보는 기존의 담론에서 벗어나 전체를 하나로 이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자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와 사회 문화적 토대를 살핌으로써 해석에 객관성을 더하려 노력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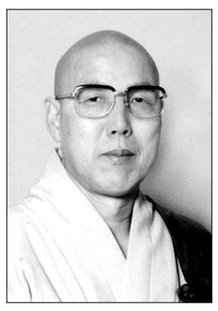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이장의	은정희	소명출판
3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방외지사	조용헌	정신세계원출판국
5	영가현도	우룡스님	효림
6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스님	불광
7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8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효림
9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묘원	행복한숲
10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헨리 데이빗 소로우	오래된미래

도서 안내:(02)737-0695

<전강 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전등록 전 5권
바로보인 벽암록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선문염송 6권까지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증도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권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사명대사 선시 · 게송 풀이



"보통 학계에서 사명대사의 '사'자를 '泗'로 쓰고 있지만 '四'자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밀양 표충사에 소장된 <사명당대사집> 판각본에 콧물 사(泗)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밀양 표충사에 주석하고 있는 거부 스님(前 수덕사 승가대학장 · 사진)은 최근 펴낸 <사명대사어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2002년 표충사의 사명대사 유품을 열람하다 우연히 <사명당대사집>의 목판본과 판각본을 발견했고, 이를 우리말로 풀이한 주석서 <사명대사어록>으로 펴냈다. <사명당대사집>에는 사명대사의 선시(禪詩)와 게송(偈頌), 사찰 기문(記文) 등이 담겨 있다.

스님은 "사명대사의 사상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책으로 펴내게 됐다"고 말한다. <사명당대사집>의 서문을 쓴 조선시대 문신 허균이 "이 어록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썩지도 않기를 바라며 사명대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했던 뜻이 바로 거부 스님에 의해 오늘로 이어지게 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스님은 결제철에는 원문을 번역하고, 산철이면 걸망을 메고 1~2차례씩 현장 답사에 나섰다. 글의 배경이 되는 사찰과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명대사의 숨결을 느껴보기 위해서다. 스님은 "답사를 통해 사명대사가 승병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느낀 여러 소회와 충정, 도반들과의 애틋한 마음이나 세월의 무상함 등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스님은 앞으로 사명대사의 '난중일기'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등을 엮은 <분충서난록(奮忠紓難錄)>도 펴낼 예정이다.



사명대사어록
거부 스님 엮음 | 무이정사 | 1만8천원

천상의 미소 라다크

라다크의 미소를 찾아서 글/사진 여태동 | 이른아침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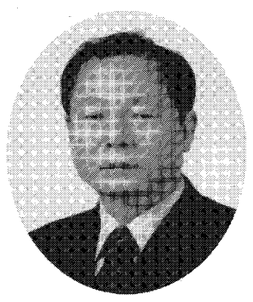


인도를 여행했던 사람이라면 열차가 몇 시간씩 지연돼도 불평하지 않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갠지스강에서 목욕하는 인도인들의 이야기가 그리 새롭지 않다.

불교신문 여태동 기자가 쓴 <라다크의 미소를 찾아서> 역시 삶과 죽음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인도와 인도인에 대한 놀라움이나 동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교계 기자 12년의 경력은 이러한 표피적 현상에서 불교적 사유를 이끌어내는데서 빛을 발한다.

한 달간의 여행은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다람살라에서 만난 티베트인들에게서는 그들이 겪은 설움과 고달픔, 50여년에 가까운 망명정부 생활에 지쳐 서서히 자라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 등을 읽어낸다.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천상의 미소'를 보여주는 동자승들의 모습에서 한 줄기 답을 찾는다.

"일주일의 짧은 기간 동안 라다크를 여행하면서 지금까지 거추장스럽게 가져왔던 추상적인 불교의 껍질을 던져버릴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고 배려하면서 공동체를 일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다." 이 밖에 불교 4대 성지를 찾아 본 감상과 인도 여행상식 등은 인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듯하다.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 부처님 진신사리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050-5844-0108(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생명·문화까지 담는다

'황금보다 귀한 보물-사발' 展 | 영암도기문화센터 - 4월 1일부터 3개월간


'황금보다 귀한 보물-사발' 전이 열리는 영암도기문화센터 전시장.

시대 · 종류별 동아시아 사발 한자리
日로 건너가 국보된 '이도다완' 눈길

우주를 담는 그릇이란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술을 채우면 술잔이 되며, 차를 따르면 찻잔이 되는 까닭에서다. 그래서 이것을 모은 전시의 주제를 '황금보다 귀한 보물'이라 이름했다. 성(聖)과 속(俗)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부처의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전남 영암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는 4월 1일부터 3개월 간 센터 상설전시관에서 이화여대박물관이 기획한 '황금보다 귀한 보물-사발' 특별전을 연다. 국보나 보물 딱지를 붙인 '명품'과는 거리가 먼, 민간에서 각종 음식을 담는데 널리 쓰이던 '사발'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5천년의 세월 동안 민간의 삶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체취를 담아온 한국과 중국 사발 400여점이 진열대에 오른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처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사발들을 시대별 · 종류별 · 지역별로 7개의 공간에 구분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사발에 시대와 종류의 구분이 있겠냐 싶지만, 사발은 도자기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자기의 초기형태인 '토기'를 모은 흙사발을 시작으로, 청자의 기원으로 유추되는 황색빛의 녹갈유 사발, 검은빛의 흑갈유 사발 등이 전시장 초입에 진열된다. 중국 남선종(南禪宗)의 맑은 차와 함께 서해를 건너와 고려에 꽃을 피운 청자 사발, 소박한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조선 고유의 분청 사발 등도 각각의 전시실에서 선보이며 고려와 조선 자기의 특징을 드러낸다.

특히 분청 사발 가운데 '이도다완'이 이목을 끈다. 조선에서는 '막사발'로 불리며 민간에서 통용되던 이 사발은 일본으로 건너가 국보 및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며 더없는 인기를 누렸다. 심지어 어느 성주는 자신의 작은 성(城)하나와 분청 사발 하나를 맞바꿨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다. 이외에도 순백의 미가 돋보이는 백자 사발과 그 위에 푸른 빛 그림을 담은 청화 백자 사발 역시 함께 만날 수 있다.

이화여대박물관 나선화 학예연구실장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동아시아 사발을 한데 모아 전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생명과 문화를 담고 있는 사발 자체의 예술성과 동양 도자사를 함께 읽어낼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61)470-2566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조선에서 '막사발'로 불리던 '이도다완'은 일본으로 건너가 국보가 됐다.


토기(삼국시대).


녹갈유 사발(요).


흑유 사발(송).


연꽃무늬 청자 사발(고려).


분청 사발(조선).


관요 백자 사발(조선).


청화 백자 사발(원).

전시기획자가 말하는 '전시실별 관람 포인트'

■ 토기 전시방

토기는 점토질의 태토(도자기를 만들 때 쓰이는 기본 흙)로 800도 이하의 온도에서 구운 그릇을 말한다. 기원전 5천년부터 삼국시대 이후까지 이어진 흙사발에서 사발 제작의 역사가 시작된다.

▶ "생명을 담은 흙의 기운을 느끼자. 거칠고 투박한 형태와 선(線)에서 현대적인 미감을 느껴봐도 좋다."

■ 녹갈유 전시방

낮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는 단단하지 못해 그 쓰임새가 다양하지 못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던 중, 우연히 유약을 발견하게 된다. 가마 속의 나뭇재가 날려 흙그릇 어디엔가 스며들었고, 나뭇재와 흙이 높은 온도에서 결합해 엿기름같은 유리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을 보통 자연유(自然釉)라고 부른다.

녹갈유 사발은 이러한 원리에서 만들어진 자기다. 가마 속 온도가 1300도에 가까워지면 태토의 유리질화가 진행돼 강도가 높아지고, 또한 유리질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누런빛이나 푸른빛이 난다.

▶ "흙에서 푸른 옥(玉)으로 가는 과도기적 자기다. 자연유약으로 누렇고 푸른 옷을 입게 된 자기의 빛깔을 살피고, 구연부(입술이 닿는 부분)의 형태가 초기 토기에 비해 얇아지면서 벌어지는 것을 주목하라."

■ 흑갈유 전시방

중국의 송나라에서 제작돼 근대까지 널리 쓰인 것으로, 산화철 함량이 높은 붉은 흙물과 잿물을 입혀 검은빛 자기를 만들어 냈다.

▶ "송나라 당시 음용했던 흰 거품의 차와 색의 대비를 이루며 조화된다. 검은빛에서 문득문득 드러나는 갈색, 청색, 붉은색 빛깔을 유심히 관찰해 보자."

■ 청자 전시방

유약의 원리를 발견한 이래, 12세기 고려는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상감청자'가 개발된다. 청자는 유약의 유리질 현상으로 반사가 심해, 양각 · 음각의 문양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인이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문양을 박아넣는 것이다. 나무에 조개껍질을 박아 넣고 옻칠을 한 나전칠기와 똑같은 기법이다.

▶"청자의 미려한 빛은 참선의 높은 경지를 색으로 드러낸 것이다. 푸른 옥빛과 함께 상감청자 사발에 섬세하게 새겨진 연꽃무늬, 연당초무늬, 귀얄무늬 등을 꼼꼼이 살펴보자."

■ 분청 전시방

1350년경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청자를 만들던 관요(官窯 · 국가에서 운영하던 가마)가 문을 닫고 도공들은 개별작업을 벌인다. 그러나 그 질이 나빠 좋은 빛깔의 청자를 뽑아내기 힘들었다. 그래서 칙칙한 빛깔을 감추기 위해 상감할 때 쓰던 백토로 하얗게 분장을 하게 된다. 그것이 세계도자사에서 유례없는 '분청사기'의 시작이었다. 분청사기 민간에서 자유스럽게 만들어낸 자기였기에, 도공들의 개성이 담뿍 묻어난다.

▶ "도기의 투박한 느낌과 자기의 세련되고 매끈한 느낌이 공존하는 사발이다. 자기 같은 도기, 도기 같은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는 조선 분청 사발은 중국 북방의 자주요(磁州窯)계 도자기와 상통하는 특징이 있음을 유념해 비교 관람하자."

■ 백자 전시방

조선에서 분청사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백자를 완성한다. 태토 속에 철분을 완벽하게 제거해 산화를 막았고 흰빛을 그대로 살렸다.

→ "흙에서 백옥(白玉)으로 가는 기술혁신을 느낄 수 있다. 좌우대칭의 매끈한 관요 사발, 거침없는 터치가 살아넘치는 민요 사발을 비교 · 대조해 보자."

■ 청화백자 전시방

백자는 청색 코발트 안료로 문양을 그린 청화백자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중국 원나라에서 기술의 완성을 본 청화백자 사발은 백옥 바탕에 꽃과 새, 풍경과 인물, 길상의 상징들이 담겨진다. 조선에서도 국가가 분원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다른 조선백자의 미를 창출한다.

▶ "중국 백자 사발에 자유롭게 펼쳐진 다양한 빛깔과 정교한 연꽃무늬가 관람 포인트. 한국백자의 맑고 품위있는 분위기와 비교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말 것."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황금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④

3월 26일

주제 - 선과 삶

"마음 깨달아 꿈 깨면 그것이 웰빙"



인각(仁覺) 스님은

· 1940년 충남 공주生.
· 범어사에서 나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
· 범어사 강원 대교과 졸업 이후 태안사에서 범룡 스님을 모시고 〈화엄경〉 열람.
·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30여년 동안 수선안거.
· 현재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
· 전국선원 수좌회 공동대표

說禪 인각 스님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구모당중제옥마 龜毛堂中啼玉馬 하고
토각교상주철우 兎角橋上走鐵牛 라.
석인수미타금고 石人須彌打金鼓 하고
목녀해저취무가 木女海底醉舞歌 로다.

옥마는 거북털로 만든 집에서 울부짖고
철로 만든 소는 토끼뿔로 만든 다리위로 달아나네.
돌로 만든 사람은 수미산에서 금으로 만든 북을 치고
바다 밑 목녀는 술에 취해 춤추고 노래하더라.

이 게송을 바로 알고 바로 볼 것 같으면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다. 혹이나 이 법문을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사족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송은 참 깊고 오묘합니다. 분명히 알 것 같으면 불조로 더불어 꼭 같이 수용(受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체 티끌이 없어서 극락세계 상적광토(常寂光土)와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또한 생사(生死)마저도 초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선은 만법의 근원 찾는 길

그런데 어째서 이 몸이 없어지면 죽었다고 슬퍼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왔다고 즐거워합니까. 오고 감이 있고 나고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명(無明)이 중생의 눈을 가려서 본래 생멸(生滅)이 없는 경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가려지면 중생의 가지가지 번뇌가 수없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신심과 대용맹심을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여 자기마음을 확실히 알아차릴 것 같으면, 청정진여(淸淨眞如)의 진불(眞佛)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생멸이 있는 경계를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깨닫지 못하면 백천만겁에 고통을 받고 또 생사를 받아서 육도윤회의 세계를 돌고 돌게 마련입니다. 옛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선을 하는 이는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느니라. 이 조사관을 뚫게 되면 모든 대지와 시방세계가 모두가 거북의 털이요 토끼의 뿔이거늘 어찌 세계가 있고 생사가 있겠는가" 했습니다.

중생은 무시이래로 금일에 이르기까지 오고 가고 가고 오며 한없이 윤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과거에 지은 바를 기억하고 있는 제 8식을 인으로 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근본무명을 없애야만 해결이 됩니다. 근본무명을 없애지 못하면 나기 싫어도 나와야만 하고 나고 싶어도 뜻과 같이 나지 못하며 지옥, 아귀, 축생 등의 육도를 돌고 또 돌며 윤회를 거듭합니다.

곧 일념착오로 인해 생사속을 윤회하면서 여러 가지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은 만법의 근원을 찾는 것이니 근원만 찾으면 지엽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요즘 참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선(禪)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내가 배부르듯이 이 공부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혼자오고 혼자 가지 누구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혼자 가는 이 길목에서 스스로 꿈을 깨지 않고는 그저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잠깐 꿈속에서 살다 가는 것이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시 보이는 환(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이치의 꿈을 깰 때 시방세계의 모든 우주가 나요, 내 몸과 둘이 아닌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오직 이 꿈을 깨서 불조와 더불어 나란히 어깨동무 할 수 있는 그런 대 불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법(法)이 많이 쇠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성쇠(盛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진리에 불교가 빛나는 것이고 그것을 등질 때는 진리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또한 사람 사는 것이 복잡해지고 착잡하고 어지럽다고 하지만 그 주인공, 영원한 불성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셔서 '일체중생(一切衆生)이 개유불성(皆有佛性)이다' 했습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일뿐 본래 불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한 것이죠. 그 불성은, 그 주인공은 절대 어지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항상 한가하고 또 한가합니다.

이처럼 일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주인공, 참된 자기를 발견해서 사는 것이 해탈의 세계입니다. 참선을 잘 하면 모든 경계에 흔들림이 없어 자기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는 큰 힘이 생깁니다.

'나' 라고 생각하는 자아는 아집

우리의 마음은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해치고 파괴할 수도 없는 또한 취하고 버릴 수도 없으며 마치 허공과 같이 끝도 한계도 모양도 없고 칼로 베어도 상처가 없고 불로 태워도 끄슬리지 않으며, 한계가 없으니 그릇에 담겨질 수도 없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갖 기멸심이 일어납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파도가 치지 않도록 고요하고 평정하게 안정된 마음 즉, 마음의 기멸(起滅)이 없는 터를 닦는 것입니다.

무명에 가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착각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에 천하대지가 벌어지고 육도만행이 있는 것이지, 그 마음자리란 분명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열심히 참구한다면 만법을 포용하는 자기 생명을 회복해서 참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즘 웰빙, 웰빙 하는데 참선을 해서 자기 마음, 자기 주인공을 깨달아서 꿈을 깨는 이것이 참다운 웰빙이 아닌가 합니다.

불교는 원래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인간 본래의 참모습을 밝혀서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깊은 불교의 근원을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실천해 온 것이 바로 이 선불교입니다. 그러므로 선은 불교의 종교적 생명체라고 할 수 있고 교를 초월해서 그 근원에서 자유자재한 진인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의 큰 뜻은 망식((妄識)을 탈각(脫却)하고 참된 자아를 스스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는 참나가 아닌 망식으로 고통스럽고 허망하며 분열과 불안을 가져오는 아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정된 자아의 무명을 깨트리고 참다운 인간상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참선이라고 하면 모두 어렵고 특별한 종교수행으로 알고 있는데 욕망과 아집으로 뭉쳐진 삶을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탈각하고 진실하고 자비롭게 살자는 그러한 법입니다.

선법은 이율배반적인 인간이 진실한 자기 진인(眞人)으로 돌연히 전환함으로써 무명번뇌를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과학적, 지성과 생의 충돌까지도 보편적이고 자주적인 정의를 지시해서 적극적인 대기대용(大機大用)의 역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교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해봐서 확철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럼 참선 공부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화두를 간절히 참구해야 하는데 화두를 참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생명체가 지적인 의식을 초월해야 합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의단에 자신의 전 존재가 통일되고 또 긴장되어서 몸과 마음이 한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두를 참구하여 더욱 순일하게 정진하면 의식분별이 끊어진 은산철벽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화두가 분명하면서도 더욱 명백히 드러나면 의식의 기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의식의 기별이 없어진 상태지만 혼침(昏沈)에 떨어지지 않고 소소영령(昭昭靈靈)하게 화두와 의단이 일체가 돼 무의식의 차원까지도 뚫고 나가게 됩니다.

화두에 생명거는 순간 행복

한번 확철히 깨달음을 얻으면 변하지 않는 참된 자아(自我) 즉, 임제(臨濟)가 말한 무위진인(無位眞人)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참된 자아는 새로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옛부터 있었던 것인데,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다와 산이 아무리 바뀌어도 간화선 수행을 통해 얻은 참된 자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병들지도 않는 불로인(不老人), 즉 참된 삶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참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불로인(不老人)을 찾지 못하거나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두에 생명을 걸고 수행해본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고 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꿈을 깨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곧 간화선법입니다. 그래서 최상승법이라고 했습니다. 참선은 자기에 대한 물음이고, 또한 인생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참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물음부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커다란 의심을 가지고 참구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자기의 자성(自性)을 올바로 알 것인가? 무엇이 과연 내 참마음인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와 같음을 항상 궁구(窮究)하는 것이 간화선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자 여러분, 참으로 꿈을 깨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언제 어디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해서 참삶을 사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 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불서보급 30년 전통" 동진기획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경전사경책
• 표지:레자크지 옵셋 4°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앞면)
(후면)

경전사경책
한문·한글반야심경, 한문·한글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한글관세음보살보문품, 한문·한글불설아미타경
무지 경전사경책

순금액자
• 순금99.9%(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기입가능)
• 값 30,000원

순금카드
• 순금99.9%
(100개이상 사찰명 기입가능)
• 값 5,000원

Since 1975
동 진 기 획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051)515-8888(代)
FAX:(051)508-0101
H·P:011-554-2988

■ 불교서적 ■ 불교카렌다 ■ 주문카렌다 ■
■ 불교용품 ■ 연 등 ■ 사찰인쇄전문 ■

E-mail:tunhwang@yahoo.co.kr
www.dongjin.biz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구독신청 '大' 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자녀는 스마트폰!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스마트폰 아이벗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 (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 화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④

망상 일때 화두 들이대면 바로 사라져 음식 조심해 적게 먹으면 혼침에 도움

화두를 생명보다 중히 여기고 상기병 두려워 말고 용맹심 내야



질의 법사 : 효암 스님
·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 10여년 동안 제방 선원에서 정진

효암 스님: 부처님께서도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 언급하셨듯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혼침과 산란심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신심과 의정이 돈발해 간절함이 생긴다면 이러한 장애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기에 혼침과 산란심이 큰 장애가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각 스님: 혼침과 산란, 수마와 도거(掉擧) 등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본래는 없습니다.

출가를 하면 맨먼저 <초발심자경문>을 배웁니다. <초발심자경문>에 '광겁장도(曠劫障道)에 수마막대(睡魔莫大)'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겁이라고 하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세월 동안에 도를 가장 장애하는 것이 수마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수마보다는 산란심이 더 문제가 되었지요. 이 망상이 좀 잠을 자야 수마도 오고 혼침도 옵니다.

그러나 산란심이든 수마든 우리 정진하는 납자는 본래 없다고 들어가야 돼요. 오직 의정이 돈발해서 화두정진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걸 가지고 극복이니 뭐니 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은 먹는 거 조심하는 것이 상당히 혼침을 막아줍니다. 음식을 조심해서 맑게, 양도 적당하게 공양을 하고 바로 돌아앉아도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을 그런 정도의 공양을 먹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잠도 잘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혼침은 저절로 자취를 감춥니다.

산란심, 이것 또한 무시겁래(無始劫來)로 내려오는 그림자입니다. 마음자리에서 보면 본래 없는 것인데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 놈한테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계속 흘려 다닌단 말이죠. 그 나타나는 그림자, 망상, 그 놈한테 우물우물해서 따라다니면 안돼요. 망상이 일어났다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거기다가 바로 화두를 들이대면, 그놈은 바로 자취를 감춰요. 화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화두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단 사흘을 하더라도 신명을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소득을 얻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치는 순간에 반드시 우리는 소득을 얻는 것이지, 어물어물, 적당히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사중득활(死中得活)입니다. 그야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한번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효암 스님: 제방에서 정진하다보면 정진 중에 갖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알았다고 하면서 괴이한 언행을 하는 경우도 간혹 봅니다.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대처하는 방법과 특히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각 스님: 공부중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기가 각자 다르고 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특히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내어서 그야말로 이리저리 알았다고 큰소리도 칩니다.

이것을 '광증(狂症)', '식광(識光)'이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하나의 환(幻)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거든요. 진실로 돌아가서 자신을 분명히 살펴보고, 그래도 안 되거든 믿을 수 있는 선지식을 찾아가되 모든 걸 몽땅 털어 내놓고,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와요. 그것도 안 되면 어록(語錄)을 봐야 됩니다. 어록들을 차근차근, 진실한 마음으로 살피다보면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됩니다.

또한 누런 부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시방세계가 전부 금빛으로 화해서 내가 부처님세계에, 영산에 태어난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게 공부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환(幻)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직 화두를 잡고 의단이 독로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지호경: 재가불자들이 화두 참선을 하고자 할 때, 그 바른 수행법과, 또한 화두를 지극하게 들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각 스님: 첫째, 참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셔서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못 깨닫는가? 우리가 이미 깨달아 있는 부처님인데, 알지 못할 뿐이다 했거든요. 그럼 그 불성자리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참선법이거든요. 그럼 화두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화두는 한번 받으면 생명보다 중히 여겨야 됩니다. 설령 생명을 잃을지언정 화두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맹세가 없으면 아예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옥에 가라면 지옥에 갈수도 있는 확실한 믿음이 가는 그런 분에게 화두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화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진실한 공부가 되느냐? 화두를 내 생명보다 중히 여기되 그 다음에 화두라는 건 의심 안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하려해서 하는 의심이 아니고, 모르니까 의심하잖아요.

어째서 '정전백수자'라고 했는가? 모르거든요. 이 화두라는 것은, 이 의심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금생에 못하면, 어느 생에라도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금생에 사람 몸 받고 불법을 만났을 때, 한번 해 치우자 이거죠.

이 때 용맹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용맹스러운 힘이 없으면 화두를 뚫고 나갈 힘이 안돼요. 커다란 용맹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큰 파도가 하늘까지 치는, 그러한 속에서도 매하지 않는, 그러한 의기를 가지고 화두 해 나간다면 절대로 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화두 하나에 일념정진해서 의단이 독로가 되고 그야말로 오롯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은 반드시 깨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온다 이거죠.

공부 중에 나타나는 장애는 틈을 주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문을 열어두면 도둑놈이 오듯이 우리가 화두를 들다가 화두를 놓치면 문 열어두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지호경:초심자들이 화두를 받아 공부를 하다보면, 흔히 여러 가지 경계들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정진에 장애가 되는 증상들, 예를 들면 상기병(上氣病) 같은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십시오.

인각 스님: 상기(上氣)라는 것은 공부를 하다가 기운이 위로 솟구쳐서 머리가 아프고 정진을 못하는 상태를 상기라고 합니다. 사실 공부하다가 상기 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상기를 무서워하면 안돼요. 상기는 물론 안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상기를 하다가, 정진을 하다가 죽으면 어떠냐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조절하면서 하되 웬만하면 다 무시하고 한번 경지에 오를 때까지 몸부림을 쳐야 되요. 머리가 한번 터져보라 이겁니다. 그만큼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만, 저는 사실 마지막에는 약을 가지고 했어요. 머리가 전부 다 터져가지고 한 꺼풀이 완전히 다 벗겨지는 그런 상태로 들떠서 어느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니까 '진득찰'이라는 풀을 알려줘요. 그래서 한 걸망 뜯어서 푹 삶아서 먹고 머리도 감았어요, 워낙 다급하니까.

누워서 잠도 못자고 좌복 위에 피도 쏟고 나중에는 하도 화가 나서 소금을 가져다가 소금을 끓는 물에 넣고 그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데, 삼베로 만든 걸레로 빡빡 문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꺼풀이 훌떡 벗겨지면서 머리에서 벌건 피가 나오고 피고름이 나와 대야가 벌겋게 됐을 정도예요. 그리고는 나았지요. 상기를 안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무서워할 병도 아니니 상기가 좀 되더라도 너무 겁낼 것은 없어요.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상기와 동시에 법을 또 통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재가 질의자 : 지호경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졸
· 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 부의장 및 부산총동문회 회장 역임
· 현재 건축가협 부산시회장, 조계종 신도회 이사



3월26일 봄꽃이 만발한 범어사에 4천여 불자가 모여 인각 스님의 법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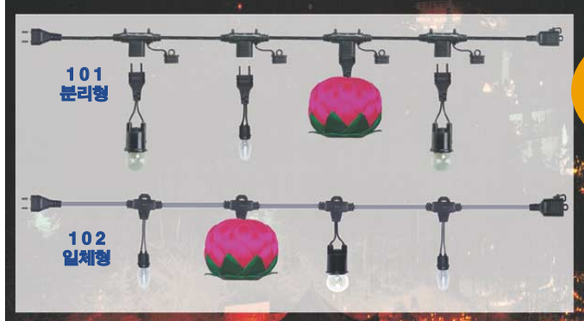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3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고행의 길이며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돈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
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4일 - 8월 5일 (33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게왕국-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예청-호탄-민풍-쿠차-루오지앙-하루고-돈황
- 안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수미산 여행은 많은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볼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칼라멘트가 6배 (특 칼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4월 6일 수요일 제 520 호

게시판

'소박한 밥상' 저녁공양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생명살림불사를 위한 후원의 밤'을 4월 15일 저녁 7시에 서울 신촌 아트레온 토즈에서 연다. 저녁공양 및 한생명, 작은학교, 불교생협, 교육원의 장기자랑 시간이 준비돼 있다. 후원금 접수는 1구좌 10만원. (02) 733-1884

파라미타 연수생 모집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열고 연수지원제로 활동할 연수생을 모집한다. 18~30세 이하의 재학생 및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1부와 자기소개서 1부이다. (02) 723-6167

경락마사지 전문봉사자 교육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락마사지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에 교육하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02) 723-5101



성보박물관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불교문화의 이론과 현장답사를 겸한 박물관 문화대학 강좌(사진)를 개설한다. 강의는 4월 17일부터 12월까지 이어지며 중간 중간 사찰 현장답사도 겸할 예정이다.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월정사성보박물관으로 수강신청서 1통 및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면 된다. (033) 334-1817

20면 상식 퍼즐 정답

사	미	계		전		
라		엄	동	설	한	
쌍			요		라	
수	경				산	파
	음		농			죽
	악	인	악	과		지
		어		대	물	세



남쪽에서 시작되는 꽃봉오리가 차례로 벌어지며 사방을 물들이면 우리 마음 속 겨우내 있었던 근심도 봄 햇살에 모두 풀릴 것만 같다. 산으로 들로 떠나고 싶어지는 4월, 한국관광공사가 4월에 가족과 함께 가볼만한 곳 네 곳을 정해 일반에 공개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신선놀음 하듯 꽃 풍경도 즐기고 등산도 할 수 있는 경주 남산.

꽃망울 톡톡…봄햇살의 유혹

한국관광공사 추천 4월 가족과 함께 가볼만한 여행지 4곳



안성 - 천년고찰과 남사당 바우덕이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청룡사, 석남사, 칠장사 등 천년고찰이 있는 경기도 안성은 어떨까.

가족과 그림 같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고찰에서 참배를 한 후 안성의 상징인 남사당 풍물놀이를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남사당 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는 40년 전통의 강선영 무용단이 펼치는 태평무(중요무형문화제 제29호)와 남사당 풍물놀이 상설공연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와 6시 30분에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10월 말까지 열릴 예정이다.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031)678-2068



경주 남산 - 지붕없는 박물관 풍광도 보물급

봄에는 벚꽃도 유명하지만 모처럼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다가 사람과 차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일은 없었는지. 이번 주말에는 산에 오르며 저 멀리 발아래 펼쳐진 벚꽃들을 유유히 감상하자. 경주 남산에 올라 볼 수 있는 경주의 배리평야와 그 일대의 꽃이 만발한 4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특히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불상과 유적이 남아있다. 배리석불입상에서 시작해 삼릉을 거치는 서남산 코스는 마애관음보살상, 선각육존불, 마애석가여래좌상등 가지각색의 부처님을 만날수 있다. 동남산 코스는 보리사의 약사여래와 사방면에 탑과 부처상이 새겨진 부처바위, 감실 부처등을 볼 수 있다. 코스가 험난하지 않아 아이들과 오르기에 제격이다.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390



제천 청풍호반 - 맑은 바람 밝은 달 그리고 벚꽃

제천시에 있는 청풍호반은 1978년 시작된 충주다목적댐 건설로 생겨난 호수다. 청풍문화재단지를 정점으로 비봉산과 금수산을 끼고, 호반 입구에서 청풍면 소재지까지 13km길이로 벚나무가 이어져 있어 가족들과 주말에 소풍을 나가기 제격이다. 올해 9회째 개최되는 청풍호반 벚꽃축제는 4월 16일, 17일 양일간 본행사가 진행되고, 행사기간 중 하루는 청풍문화재단지를 무료로 개방한다. 단지 내에는 SBS '대망' 촬영소와 고려 충숙왕(1317) 때의 한벽루(보물 528호)가 있다. 청풍문화재단지를 나와 호반 쪽으로 조금 더 걸어 내려가면 청풍나루에서 유람선을 타고 충주호의 절경을 빠짐없이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제천 10경과 단양 8경 중 하나인 옥수봉은 충주호에서 볼 수 있는 절경 중 하나다. 제천시청 문화관광과 (043)640-5680



완도 - '해상왕' 장보고 전설을 찾아

최근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해상왕' 장보고(790~846)의 일생을 다루면서, 덩달아 완도에 마련된 드라마 세트장이 여행객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3만평 부지에 신라방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완도읍 군외면 불목리 세트장에는 설평과 이도형 상단이 머물던 집과 상가, 정화여각 등 40여 동의 기와집이 수로를 중심으로 양편에 늘어섰고 수로에는 배도 떠 있다. 호수처럼 잔잔한 다도해의 수평선이 펼쳐진 시원한 소쇄포에는 저잣거리, 군영막사, 망루 등의 청해진 본영과 신라왕궁을 재현해 놓았다. 국내 최초 도지정 문화재가 됐을 정도로 사실적인 두 곳의 세트장에서는 현재 월·화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50-5208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이은비 기자 renv@buddhapia.com

이영화 어떠세요?

3일 밤낮 걷고도 씩씩하고 당당한…

엄마 감독 : 구성주 출연 : 고두심, 김예령 등
개봉 : 4월 7일 등급 : 전체관람가



영화 '엄마'에서 고두심이 막내딸을 낳던 마흔 살, 그해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 이후 네 발 달린 운송수단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는 못한 겁쟁이(?) 엄마다. 하지만 막내딸 결혼은 꼭 눈에 담고 싶어 차로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미련 맞게도 꼬박 3일 밤낮을 걸어가는 '막무간의 성격이지만 정겨운' 엄마의 삶을 해남에서 목포까지 150리 길을 걷는 동안의 과정으로 그려냈다.

엄마의 삶은 고단하다. 하지만 엄마의 삶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힘들기만 한 것일까.

영화 '엄마'는 되묻는다. 3일 밤낮을 걷는 엄마의 씩씩함과 당당함은 인내가 아니라 선택이자 용기가 아니냐고.

어머니의 삶 속에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힘'이 있다. '잘난' 엄마든 '못난' 엄마든 엄마는 늘, 언제나 엄마다.

영화 '엄마'가 영화로서 작품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 것은 전문 평론가들의 몫이다. 이것을 제껴 놓는다면, 내 엄마를 생각하며 한번쯤 볼만한 영화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공연

우주 창조의 신비 선율로

印 플루트 연주자 밀린드 다테 명상음악 콘서트



밀린드 다테.

우주 창조의 신비와 소멸을 인도 전통 대나무 플루트 '반수리'의 운율에 담아 즉흥연주로 풀어내는 공연이 열린다.

최고의 반수리 명인이자 우리나라에도 명상음악가로 잘 알려진 밀린드 다테가 내한, 충무아트홀에서 4월 11일 개관기념 페스티벌로 '아침의 탄생' 명상음악 콘서트를 갖는다.

1부 '아침의 탄생'에서는 해맑은 태고의 자연과 잉태되는 생명을 형상화한 명상적 이미지가 강한 즉흥선율을 펼치고 2부 '혼돈'에서는 창조의 신이자 파괴의 신인 시바를 음악으로 그려내 우주가 다시 혼돈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다.

"명상 음악의 본질은 소리를 넘어선 곳에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밀린드 다테는 인도 푸나 출신의 세계적 명상음악가로, 오쇼 라즈니쉬 아쉬람 음악의 중심 멤버로 활동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음반 '아유타에서 불어온 바람(Wind from Ayuta)의 반수리 연주로 처음 소개됐다. 인도와 한국의 퓨전그룹 '쌍깃 프렌즈'의 단원이기도 하며 송광사, 조계사 등에서 연주를 갖고, 티베트 명상음악가인 나왕 케촉과 협연하여 명상음악의 진수를 들려준 바 있다. (02)2230-6631

이은비 기자

전시

고구려 문화 베일을 벗다

남북공동기획, 北서 유물 250여점 공수



연가 7년명 금동일관삼존상.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북한 소재 고구려 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중도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기획으로 준비한 '고구려대탐험전'이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연가7년명금동일관삼존상' 등 남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양식의 고구려 불상 외에도 평양에서 직접 공수해온 약 250여점에 달하는 유물이 공개된다. 그 중 '해뚫음무늬금동장식'은 중앙에 구슬을 박은 두 겹의 동그란 테 속에 태양을 상징하는 세발까마귀가 새겨져 있는 고구려의 대표적 금속 공예품으로, 고구려인들의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수막새 기와, 단지, 시루, 말등자 등 생활문화 유물을 비롯해 고구려인의 고분 축조 양식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악리3호무덤' 등이 실물크기로 복원, 전시된다. 전시장 밖에서는 고구려 의상을 입고 수레에 올라타 활을 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헌규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상의 강인한 민족정신과 예술성을 알리고, 투철한 역사관과 민족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42)601-7894~6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요로모로 베개



베개로도 등받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요로모로 베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있어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픈 학생이나 목이 뻐근한 직장인에게 좋다. 부드러운 탄력이 있는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들어졌으며 청녹색, 진분홍색의 두 가지 색상이 있다. 일반형 2만 6천원, 고급형 3만 5천원이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4일 07:00 아침저널
5일 17:10 무명을 밝히고
6일 10:05 신행상담실
7일 06:20 새로운 인생
8일 14:05 음악의 마을
9일 16:10 BBS 초대석
10일 09:05 영화음악실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4일 07:50 명상음악산책
5일 15:10 명상육아
6일 23:30 한국의 명찰
7일 17:30 산중대담
8일 17:20 오늘은 좋은날
9일 16:10 부처님경전이야기
10일 15:3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3월 31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특집 해외불교성지순례<태국>(4월 8일 저녁 7:30~8:00)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태국. 불교사원인 와트(Wat)와 주요 유적지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활을 통해 태국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미를 짚어본다.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신수회 회장상)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상)

민지오 (대구시 남구 이천동)

오랜만에 고3인 막내 성모가 온다기에 푸줏간을 들렸다. 무심코 주인아주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미국대통령이 재선이 되었으니 앞으로…."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무슨말씀이세요? 미국에 선거 있었습니까?"

"네, 어제요."

"어머! 난 몰랐네. 아주머니, 어제 신문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근 7~8년을 TV와 신문을 보지 않고 오직 불교에만 매달려 있었던 난 미국 대통령 선거일도 몰랐었다는 부끄러움에 신문매체에 새삼스런 관심을 갖게 됐다. 여태껏 어떤 신문이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공양간에서 날짜 지난 신문을 들춰보고 있었으니 말이다.

순간 시선을 멈추게 한 현대불교신문의 신행수기모집 공고문.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뭔가를 내놓을만한 자신도 없었기에 간혹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도 흘려버렸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마음이 동해졌다.

12년 전인 1993년 4월 30일 새벽 3시가 지나서였다 이상한 소리에 놀라 아이들 방으로 가보니 큰 딸 혜선이가 경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나에게는 1남 2녀가 있었다. 13살인 혜선이는 6살 때부터 1년에 한번 정도 나를 놀라게 했다.

혜선이는 이번엔 몇 시간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원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아이들 아빠가 도착하여 병원에 옮길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부산 모병원에 입원하여 MRI촬영 등이 이어졌다. 그날부터 약 20일간, 의사들의 위급하다는 소리와 함께 6~7번을 대형 산소호흡기가 아이 옆을 지킬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엄마, 이 아이 이렇게 혼수상태로 있어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20일이 지나자 한방에 있던 환자 가족들 간에는 농담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혜선이는 엄마가 와서 울기만 하면 정신이 드는데 뭐"였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기도 했다. 그 상황에서도 애 아빠와의 사이는 아이가 쓰러지기 전 "이혼하자"는 말이 오갈 단계까지 갔을 정도로 나빴다.

한 달이 지나자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어떤 치료방법도 없고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퇴원하라고 했다. 서울 병원으로 가니 받아주지 않았다.

경희의료원으로 옮겼다. 그곳에서는 한 달 정도 지켜보자며 입원을 허락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곳에서도 별 진전이 없다면서 퇴원을 종용했다.



그림 · 문병성

집에 오자 아이는 눈도 뜨고 간혹 웃기도 했다. 이때부터 난 아이들 뒷바라지는 뒷전이었다. 기본적인 엄마의 역할만 하고 가까운 서점을 들락거리는데 분주했다.

업, 인과응보 등등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유품>중에는 화살 맞은 이가 화살을 얼른 빼지 않고 '누가 겨냥했을까?' 등을 물어보다가 숨이 끊어지고 만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난 그때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성철 큰스님 열반소식이 매스컴를 탔다. 그 당시의 난 큰스님 법어집은 물론 책장만 지키고 있던 깨알 같은 글씨의 책들까지도 불교에 관한건 무조건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했다. 책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백련암에서 3천배기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음에는 아이 둘을 동반하고 백련암에 가서 3천배를 했다. 그 뒤 1년 간격으로 드나들며 3번을 더 했다.

나의 마음은 차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불교의 묘미에 젖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 앞 포교당에 들려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하루 천배를 하며 <지장경>을 독송하는 등의 신행생활을 해나갔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최하 12시간은 족히 넘었다.

백일기도 중 몽중가피가 있었다. 칼날 같은 바위조각들이 수직으로 치솟은 깊은 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까봐 덜덜 떨면서 기어오르고 있었다. 어느 순간 정상에 올랐다. 올라서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기어올랐던 그 밑을 바라보며 "어휴!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을까?" 라고 말했다.

1996년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대구불교대학에 입학했다. 그때에도 나는 몽중 가피가 있어 3~4개월 후에 일어날 일들이 보이고 들리고 했었다. 이때 난 포교사도 포교당을 운영할 수 있다기에 포교사고시에 응시하여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었다.

나의 하루일과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됐다. 집 정리하면 8시, 혜선이 돌보고 절을 300배한 후 2시간동안 기도에 들어간다. 1시간 운동 다녀와서 혜선이를 다시 살펴보고 바로 간경기도에 들어간다. 이 시계추 같은 세월이 5년이 다 되어갈 무렵 혜선의 몸 조짐이 이상했다. 등창도 잘 낫지 않았다.

그 상태가 계속 되더니 3~4개월 후 눈을 감았다. 아이가 눈을 감을 당시에도 난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다. 혜선이 49재 동안에는 5~6시간 계속 앉아 기도만 붙잡고 있었다. 기도 하고 있을 때면 몸에 이상이 오는 느낌도 감지되었건만 '죽으면 죽었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이 당시의 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무조건 알아내야만 했다. 그 해탈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아이가 누워 있어도 기도만 하고, 눈을 감아도 기도만 하고 있었다.

혜선이가 눈을 감은지 6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즉 불교를 공부한지 5년이 조금 지난 1998년 9월 28일에야 그렇게도 목말랐던 갈증이 풀렸다.

'아! 그것이구나' 란 대답이 되어 돌아왔다.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혜선이가 한없이 보고 싶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알려고! 이것을 알려고 그렇게도 헤매고 헤맸더란 말인가!'

그 당시는 어떤 경전을 보든 그것이 모두 이해됐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다. 그리고 이상했다. 한 바퀴를 돌아 이제 다 알 것 같은데도 뭔가 잡히지 않았다. 단지 알았을 뿐이지 내 것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힘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소위 원력이라는 것이다.

'아, 그것이구나' 갈증이 풀렸다
그러나 알았을뿐 내것은 아니었고
뭔가를 잡기위한 원력이 필요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기도가 들어갔다. 얼마 후 남편의 야비한 행위에 질려 언니 집에서 기거 하며 수행에만 매달렸다. 백일 동안의 수정 같은 기도는 '성철큰스님을 감동케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백일 후 꿈속에서 뵌 큰스님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다정한 모습으로 말씀을 주셨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 백일 동안 난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대구로 와 마땅한 곳이 없어 식당이나 노래방을 찾아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산으로 돌아와서는 매번 뜨겁게 눈시울만 붉히곤 했다.

백일이 되는 날 남편의 사과를 받고 아이들 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말뿐이지 변하지는 않았다. 부부간의 사랑, 정이 없어도 자식의 끈으로 지탱된다는 말이 있듯 나 역시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의 정진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집에 들어간 지 6~7개월 후 남편에게서 표현할 수 없는 살기 비슷한 것을 느껴 몸이 오싹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법무소 사무실을 찾았다.

법무소 직원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압류는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나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백일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젠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었다. 그런데 바로 이틀 후 남편이 새벽에 방문을 두드렸다. "이 미친….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폭언이었다. 그러고는 이층에 계신 아이들 할아버지에게 들렀다가 출근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난 절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다 듣지는 못했다. 기도 도중 '뭔가 있구나. 그 오싹하던 시간이 지금이구나' 싶었지만 평상시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

조금 후 성모가 "엄마, 아빠가 이상해. 나보고 빨리 학교가래"라고 말했다.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언니는 "집에서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말고 성모 학교 갈 때 같이 나오너라"고 했다. 그때부터 내 몸과 마음은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 할아버지 식사를 하는 중이면서도 모른 척 했다. 새벽에 아들에게서 다 듣고 있었으리라. 'XX병원사람들이 와서 집안이 소란스럽더라도 놀라지 말라' 는 말을, 그리고 '겁을 줘서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는 돌려보내겠다' 는 것을 말이다.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였건만 성모를 학교 보내고 무서워서 택시를 탔다.

그리고 오후부터 떨리는 몸을 이끌고 이혼 소송을 밟았다. 그날 밤 친구와 여관방에서 12시에 헤어지고 나서도 난 다시 절을 하며 못다한 기도를 졸면서 마무리 짓고 있었다. 이틀이 멀다 하고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여관을 옮겨 다녔다. 몇 번을 그러고 나니 친구가 장기간 투숙할 수 있는 모텔이라며 한 곳을 소개했다.

그곳에서 두달 15일을 거쳐하다가 모 암자로 공양주 일을 가게 됐다.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정해진 기도를 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새벽 5시에 밥을 짓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났다. 그곳에 간지 달포 되는 날이 마침 추석이었다. 그 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재 지낼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알람을 새벽1시에 맞췄다. 두시간을 기도하고 공양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서였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자수 대진 합장

간(肝)이 간염 간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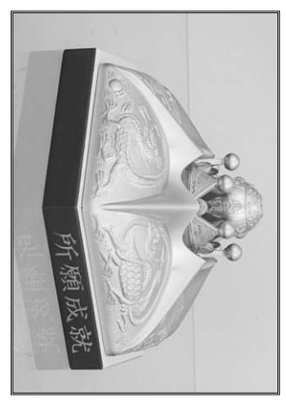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커피대신 잎차 마시니 대화 솔~솔, 업무 쑥~쑥


불교전문여행사 구광국 대표(오른쪽)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방문객과 상담하고 있다. 차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간의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녹차 열풍에 '차' 애용하는 사무실 늘어
상담 길어지고 친근함에 이미지 상승
공간 활용, 손님 방문 빈도 고려 구입해야

대출상담을 위해 은행에 들른 A씨. 은행 직원이 "차 한잔 하라"며 건네준 것은 티백 녹차가 담긴 종이컵. 뜨거운 종이컵을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상담이 끝나 버렸다. 아직 반도 채 마시지 못한 녹차. 남기자니 미안하고 다 마시자니 티백 녹차 특유의 떨떠름함이 입에 남아 멈칫거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번거롭다'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잎차 대신 티백 녹차나 커피믹스를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티백 녹차는 중국산 찻잎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맛이나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커피는 대화가 길어질 경우 한 잔 더 청해 마시기도 애매해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녹차 열풍을 타고 사무실에서도 간단한 다구를 준비해 차를 우려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 방이동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현(37)씨는 석달 전 3인용 다구 한 세트를 샀다. 직업상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보니 '차'를 애용하게 됐고, 그 중 몸에 좋은 녹차를 마셔보자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서울 인사동의 한 전문점에서 다구와 차를 샀고, 간단한 사용법을 배웠다. 다구 사용법도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몇 번 차를 우리다 보니 자신에게 맞는 간소한 다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차 담는 통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차 봉지를 잘 밀봉해 두고, 다건(다기의 물기를 닦는 천) 대신 테이블 냅킨을, 찻숟가락 대신 티스푼을 사용하는 식이다. 김 대표는 "처음엔 서툴고 실수도 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뿐 아니라 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몇 번씩 차를 우려마시다보면 자연히 대화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한다.

차인이 많기로 유명한 대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구은행은 회사 차원에서 차 마시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2003년 전국 300여 개 지점에 8인용 다구세트를 일괄 지급한 것이다. 고객에게 차를 직접 우려 대접함으로써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 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회사 연수기간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차에 대한 강의를 열기도 했다. 대구은행 태전동지점 손계환 지점장은 이때의 인연으로 직접 녹차를 우려 손님들에게 건네고 있다. 손 지점장은 "차를 즐겨 마시고부터 졸음도 줄어들고 몸도 한층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차를 우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지고 세상사는 이야기나 속 깊은 이야기도 오가게 돼 상담자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도 사무실에서 차를 마신 후의 변화다.

그렇다면 사무실에 작은 다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

녹차를 마시기 위해 다구를 마련한 사람들 중에는 몇 번 사용하곤 '번거롭다'며 방치해두는 예가 많다. 사무실의 공간 활용이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구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신의 사무실에 응접 테이블이 있는지, 하루에 손님은 몇 명이나 오는지를 따져본다.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5인용 다구를, 그렇지 않다면 3인용 다구나 찻잔이 있는 1인용 다구를 사용한다. 거름망이 있는 1인용 다구도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 개를 둘 경우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설거지하기에도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다구를 둘 장소가 넓지 않으면 3인용 다구나 찻잔이 있는 1인용 다구에 찻잔 2~3개를 추가하는 것도 좋다.

차를 마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은 냉온 정수기(혹은 커피포트)와 다관, 숙우, 찻잔이다. 숙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식힌 후 찻잎이 든 다관에 따라 우리고, 우려진 찻물은 숙우에 따라 찻잔에 나누면 된다. 다호(차를 담아두는 그릇)나 찻잔받침, 찻숟가락, 퇴수기 등은 필요에 따라 구입한다. 이 밖에 찻상이나 다반이 있으면 다구를 보관하거나 옮기기에 편하다. 손님을 위한 차 테이블이 따로 있다면 다포를 깔아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차를 처음 마시는 사람이라면 우전(곡우 전에 딴 찻잎으로 만든 차)이나 세작 같은 비싼 차 보다는 중작 정도가 적합하다. 하동이나 보성 등 국내 농가에서 만든 중작은 보통 100g에 2~3만원선이다. 잎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차 우리기가 번거롭다면 국산 찻잎으로 만든 티백 녹차를 사용한다. 티백 녹차를 숙우나 다관에서 우린 후 티백을 빼내고 찻잔과 함께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무실에 다관과 숙우, 찻잔만 갖추어도 훌륭한 찻자리가 만들어진다.

자사차호 강연 및 시연회

도서출판 바나리와 지유명차는 4월 1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중국공예미술대사초청 강연 및 시연회'를 개최한다. 자사차호(紫砂茶壺)에 대한 강연과 제작 시연회가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2회 중국도자예술전'의 본행사로 치러지는 것이다.

강연에서는 서한당(徐漢棠) 중국 공예미술대사가 '의흥 자사차호의 특수성'을, 사준당(史俊棠) 강소성 도자행업협회장이 '의흥 자사공예의 현황'을, 서달명(徐達明) 강소성 공예미술명인이 '자사차호에 담긴 예술미'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차호 제작시연은 범위군(范偉君) 중국고급공예미술사가 맡는다. 참가비 무료. (02)762-5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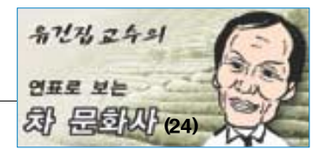
차문화협, 들차 경연대회

우리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들차회 경연대회'가 4월 17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경기전내에서 열린다. 한국차문화협회와 전주시,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회, 천년전주사랑모임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회별 차예절 발표회와 들차회 경연대회, 다구 전시회, 화전놀이 등이 개최된다. (02)701-0475

지리명 상표보호 받는다

'보성녹차' '하동녹차' 등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해당 지역의 생산자 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녹차'나 '하동녹차' 등 지역 특산품의 명칭이 단체표장으로 출원 시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지식재산권으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등록을 받으려는 생산자 단체 등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 대상지역 등을 기재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려시대 ⑫



고려말 척불정책에 차 퇴조
중국 산차 생산으로 대중화

전대에 고양되어 꽃피었던 차문화는 왕조의 쇠락과 함께 퇴조하게 된다. 더구나 신돈이 권력에 가까이하고부터 불승(佛僧)에 대한 성토와 불교계의 부패상이 문제되어 억불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유학자들의 척불운동으로 부녀자들의 사찰 출입이 금지되니 자연 사찰의 재정과 다풍도 위축된다. 이는 나아가 청자다기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기법의 다기 생산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명의 건국과 동시에 송대에 극에 달했던 차 문화의 틀을 크게 돌려놓는다. 즉 연고차의 생산중단과 산차(散茶) 생산으로 나타난다. 지금의 관점으로는 차문화가 한 걸음 퇴보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면에 차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차의 순수성을 살렸다는 면에서는 크게 발전된 일이라 하겠다.

일본도 우야다(宇治茶)가 자리 잡고 차의 유파도 생기기 시작한다.

① 길재(1353~1419): 문신으로 호는 야은(冶隱). 목은, 포은, 양촌에게서 배웠고 성균관 박사가 됐다. 차를 즐겨 '산가서(山家序)' 등을 남겼다.

② 〈현릉칙간백장청규〉: 공민왕 때 보우 스님에 의해 간행되었다. 우리나라 불가의 다례가 원래 백장청규에 준칙하였으니 먼저 나온 선원청규와 더불어 불가 다사(茶事)의 율(律)로 되었다.

③ 신돈이 왕의 신임을 얻어 궁정 출입이 잦았는데, 어전에서 화제를 나눌 때는 차를 마셨다.

④ 공민왕이 다반제절(茶飯諸節)의 일을 상기시켰다.

⑤ 하연(1376~1453): 조선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차인이다. '산승이 보낸 신차를 읊은 시'에서 고형차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⑥ 장가구(1270~1354): 원대 희곡작가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금원산곡' '풍입송 객오강' 등의 글 안에 차 얘기가 자주 나온다.

⑦ 시내암(?~1376): 원명 사이의 소설가로 〈수호전〉의 작가다. 소설 속에 차 얘기가 몇 곳 나온다.

⑧ 왕불(1362~1416): 명대 서화가로 산수와 묵죽에서는 당대 제일이라 칭한다. 차를 좋아해서 다시 몇 수를 남겼다.

⑨ 홍희문(1282~1366): 원대 시인으로 차를 잘 마셨다. '차토다가(煮土茶歌)' 등의 다시를 남겼다.

⑩ 명 태조 주원장을 송대의 연고차가 제조와 점다에 지나친 인력이 낭비되고, 특수층만이 향유한다고 생각해 산차생산을 지시하고 연고차의 생산을 중지시켰다. 그래서 포다법(泡茶法)이 크게 퍼져 차의 본령(本領)을 찾게 됐다.

⑪ 한혁: 명대 선비로 시문에 능하고 차를 즐겨 '백운천자다시(白雲泉煮茶詩)'로 유명하다.

덕상: 명대 시승(詩僧)으로 차를 좋아해서 많은 다시를 남겼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고려시대	1352 길재의 출생 ① 1356 공주가 스님께 다시(茶匙)를 선물 〈현릉칙간 백장청규(玄陵勅刊百丈淸規)〉② 왜구들의 극성 1363 문익점의 환국 1365 신돈이 어전에서 음다 ③ 1367 이제현의 죽음 1368 공민왕의 다반 기사 ④ 1370 하연의 출생 ⑤	1354 장가구(張可久) ⑥ 1359 홍건적 @ 시내암(施耐庵) ⑦ 1362 왕불 ⑧ 1364 주원장의 등장 1366 홍희문 ⑨ 1368 명(明)의 건국 ⑩ 1373 다마사(茶馬司) 설치 @ 한혁, 덕상 ⑪	1368 족리의만 장군이 됨 @ 〈모귀회사(慕歸繪詞)〉 〈정훈왕래(庭訓往來)〉 등의 저서
원대			
남북조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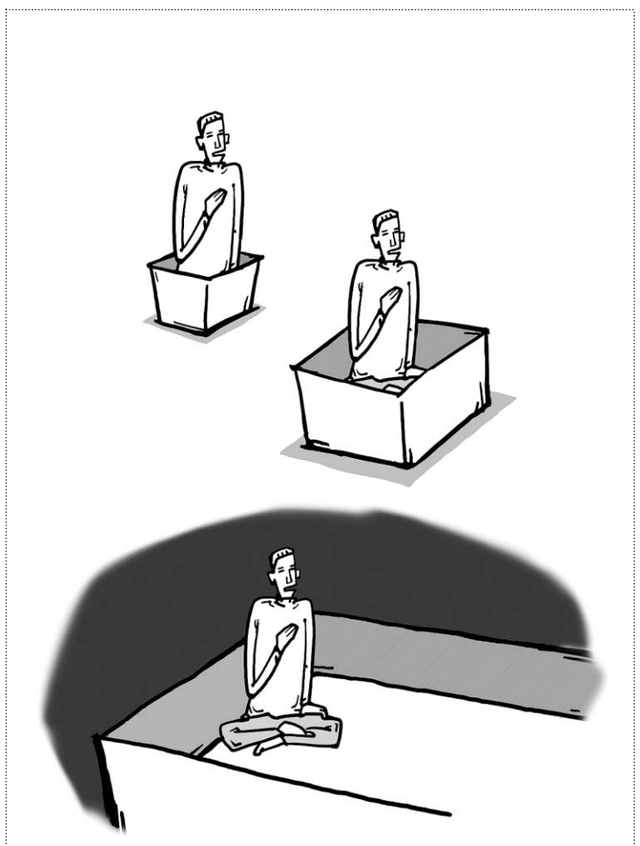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최면-전생-빙의치유 상담
– 개인상담 및 치유, 교육 및 세미나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직접 개인상담과 교육 및 세미나를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섭식장애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상담심리, 최면 및 전생치료, NLP치료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 "최면과 전생퇴행", "NLP의 원리"와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kmseol@daum.net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옻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 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 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054-372-5721 금용사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한번 맡겼으면 태연하라!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 주인공이 저의 근본임을 일깨워주시고, 주인공이 저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시고, 일체 현상이 주인공의 나툼임을 일깨워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님으로부터 한마음 공부를 지도받으면서 체험하였던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쭈어볼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어떤 분이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남의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사기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그분이 우연히 저의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 관계를 판 사람에게 설명드리고 해서 재판이 일단 심리가 종결되고 선고가 남았는데 2월 말에 선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남의 땅 문서를 위조해서 넘겨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순수한 농부였지마는 법원을 기만해서 남의 권리를 침탈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상 관계는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선고가 나는 날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주인공에 관하기를 어떻게 관했느냐 하면은, '비록 그 사람이 남의 땅을 침탈하였다 하지만 이미 본 주인에게 땅이 돌아갔고 그리고 그 사람이 2개월여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참회의 생활을 했다면 그것으로서도 충분히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60이 넘은 피고인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한번 용서하여서 다시 사회에서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주인공에게 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보러 가고 저는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10시 선고였는데 11시 40분경에 저의 직원이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법정으로 왔습니다. 직원이 와서는 "10시 선고인 재판이 3시로 연기되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판사님을 찾아뵈니까 여러 가지 정상 관계는 참작할 점이 많이 있지마는 어쨌거나 스스로 남의 땅을, 그것도 법원을 기만해서 등기를 넘겨갔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된다면 법원의 권위가 부서지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판사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은산철벽의 그런 절망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판사님이나 저나 그 피고인이나 모두가 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님에게 다시 한 번 그 기록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판사님께서 선고를 3시로 연기한 이유가 어떤 문서 하나를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선고를 연기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서를 직접 찾아가지고 오후 2시 20분경에 다시 그 판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판사님께 서류를 드리고 나서 판사님이 다시 서류를 검토하니까 그 서류가 기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제가 갖고 간 그 서류가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도 용서하기는 힘들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본인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판사님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하겠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순간까지도 저의 마음은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고 되지 않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다.' 하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판사실을 나오면서 주인공에게 그렇게 관하고 아침에 그렇게까지 관하고 나왔는데 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공에게 주었다 뺏었다 하면 주인공이 결재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지, 주인공에 맡겨야지.' 하는 생각을 다시 가졌습니다. 그러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2시 50분경에 그 판사님이 찾는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를 도저히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미리 하려고 그래서 다시 찾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판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생각을 바꾸셨노라고 그러시면서 워낙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용서는 하되 용서하는 기간을 길게 잡겠노라고 하시면서 3시에 선고를 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셔가지고 육십 넘은 노인을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판사님이 차를 한잔 하자고 저를 사무실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판사실에 들어가니까 그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로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날 40여 명의 피고인을 선고를 하면서 유독 그 사람만을 3시로 연기를 했고, 그 서류 또한 굳이 그 당시에 판단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는데 3시로 연기했고, 만약에 10시에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면 징역 1년이 그대로 선고되었을 텐데 그 피고인이 상당히 운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판사님도 연세 많으신 분을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오히려 당신도 마음이 개운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주인공의 도리에서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감사함은 말로 두루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에 울산지원 법당에 가서 스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몇몇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주인공의 나툼이 얼마나 위대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주인공의 나툼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의문을 갖느냐 하면, 그것이 주인공의 나툼이라 하지만 그것이 관법(觀法)이라든가 놓는다든가 그러한 믿음의 힘이 아니고 이미 그러한 것이 그 피고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용서를 받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물론 스님께서 말씀하신 녹음테이프의 비유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그러니깐 말입니다, 자기의 팔자 운명은 자기가 지어가는 것이지 어디에 뒹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뒹쳐져 있고 차안(此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자기 마음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도 없고 그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마디 해드릴 건 만약에 변호사님이 바로 자기 일이었다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일이었다면 어떻게 또 생각을 했을까 이겁니다.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 그렇게 됐다면 바들바들 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남의 일처럼 턱 말기고 턱 놔뒀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서 가루가 돼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태연해라. 한번 맡겼으면 태연해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그런데 내 일이 되고 가까우면 더 바들바들 떨고 남의 일이면 착 맡기고 턱 아주, 그럭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은 되는데 왜 내 일은 안 되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 원인입니다, 바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반면에 그런 틈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도 알아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질문자2: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법(觀法)과 맡기는 법에 대해서 한마음 공부를 해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딪치는 장애들에 대해서 놓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맡기고 관하면서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고로 닥쳐오는 그런 것들이 고로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떠한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부처가 무엇인지, 본래자성불이 무엇인지 자(子)와 부(父)가 상봉하는 순간을 굳이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고
좋은 마음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겁니다
딴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여쭙겠는데 부와 자가 상봉하는 그 순간의 모습은 어떠하며, 부와 자가 상봉하는 그 순간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겠는지 한 말씀 바라겠습니다.

▲스님: 예. 아까 염주 얘기 했죠? 지금 사람이 마음과 마음 줄에 꿰어서 육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염주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하면서도 부와 자가 상봉하고 있는 겁니다. 상봉하면서 서로 가만히 있으면 부가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까 과거 부와 현재 자가 상봉해야 된다. 상봉하지 않으면 가히 채찍이 나한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형성시킨 것도 그 줄이니까,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던 나니까 자꾸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부가 자와 둘이 아니게 됐을 때에 묘법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부와 자가 한데 합쳐졌을 때는 자유스럽죠. 좀 생각을 했다 할 때는 그냥 부가 한데 합쳐주니까 생각을 하는 것도 법이고 또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아예 조용하고 적정이 되고요. 부가 되니깐, 자가 생각이 없이 그냥 부가 하나로 되니까 적정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도 하나요, 저리로 가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질문자2: 고맙습니다. 주인공이 저의 근본임과 주인공이 저의 모든 것을 다함과 일체 현상이 다 주인공의 나툼임을 굳게 믿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세계의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팽개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졸과 알이 반드시 꿰어져 있어야 염주라는….

▲질문자3: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광주지원의 청년회원인데요, 공부해나가다 보면 어느 때는 잘 잡고 가는데 이제 잘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탁 나면 그 마음이 꾸준히 가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해이해져요. 해이해져가지고요, 조금 탁 놔버리는데 또 놔버리면 그냥 그렇게 놔버린 기간 동안 내가 해이해졌구나 하고 괴로워해요. 괴로워서 다시 잡아야지 하는데 또 안 잡아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보니까요, 조금 잘 잡아갈 때는 기분이 즐거운데, 나쁜 기분이 아니라 괜찮은 기분이 드는데 그때는 이거 좋구나 하고 또 그렇게….

▲스님: 그 요건을 말하자면 내가 잘될 때는 좋고 잘 안될 때는 마음이 답답하죠?

▲질문자3: 예.

▲스님: 그런데 답답한 마음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고 좋은 마음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거든. 딴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선장이 그거를 다스릴 때, 답답한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돌려놔야지 만약에 답답한 거를 딴 걸로 알고 좋은 거를 딴 걸로 안다면 안 돼. 그거는 답답한 거나 좋은 거나 슬픈 거나 모든 안되는 것 되는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되놓으라고. 그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건 가르치기 위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고 발전되게 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안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구나!' 하고 거기다가 되놓기를 바래요.

▲질문자3: 그런데요, 스님 법문하실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보니까요, 이게 너무나 나에게, 내가 지금 나이도 어린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 거다. 근데….

▲스님: 이거 봐요. 계속 놓는 게 아니라 계속 놓고 돌아가는 거지. 왜 계속 놓기만 하고 있나? 그럼 목석이게? 그러니까 그 말 떠듬떠듬하는 것도 네놈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게 좀 침착하게 하게끔 해줄 수 없어? 너밖에 없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러고 거기다 말겨, 응? 말을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자꾸 자주자주 하면 상대방이 듣기에 침착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도 고치라고, 내가 고쳐준다는 게 아냐. 고치라구!

▲질문자3: 예.

▲스님: 그렇게 해봐!

▲질문자3: 열심히 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부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공부를 하시다가 정말 바르게,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스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만 따라서 하면 그게 바른 것인지. 그런데 이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요. 어떻게….

▲스님: 이거 봐. 나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생활을 지금 당장 가정에서 해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보고 듣고 행하는데 그 생각이 들고 생각이 나고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생각이 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는 사람 아닌감? 누구한테 따라 하라는 게 아니야. 자기가

☞30면으로 계속

남의 일처럼 내 일도 턱 맡기고 놔둘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생활해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 그놈이 하는 거라 이 소리지. 그러니깐 돌려서 구정물이 들어오면 새 물로 대치해서 써라 이런 식이나 똑같애.

▲질문자3: 예. 감사합니다, 스님.

▲질문자4: 포항지원에서 왔습니다. 입시 때 올리는 축원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입시 전에 축원을 올리는데, 축원을 스님들께 올리는거 하고요, 또 정성금을 불전함에 넣고 스스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거는 스님네들더러 해달라기보다는, 스님네들더러 해달라면 의존하는 거죠. '저 스님네들이 오죽 잘해주랴.' 하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직접적이고 간편하게 내가 직접 올리고, 축원문을 찾아가지고 무슨 한 달을 외워준다거나 이런 거 다 헛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다 헛거는 아니겠지만. 한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적든 많든 내가 정성금을 갖다가 놓고 정성을 들일 때 한마음으로 모든 스님네들, 큰스님이나 작은 스님이나 또는, 자기나 자기 아들이나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모든 걸 한데 합친 게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주인공, 너만이 꼭 이룰 수가 있고 침착하게 시험 보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아주 지극하게, 자기 일이니깐 자기가 얼마나 침착하게 잘하겠습니까? 그게 제일이지, 벌써 한 다리 걸러가면 손등이 돼. 그러니까 침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고. 그러니깐 본인들이 하란 얘깁니다, 본인들이.

▲질문자4: 감사합니다. 스님, 올해도 시험 보는 우리 한마음 가족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시생들이요. 그 마음들 한데 다 묶어서 스님 그 자리에 맡겨 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아니, 이것 좀 봐요? 또 맡겨 놓고 간대요. 아,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물을 퍼먹으면 샘물을 그냥 풍풍풍풍 퍼먹을 수 있는데, 목마르지 않도록. 그런데 남한테 퍼달라고 한다면 그거 목마른 걸 기다려야 하고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질문자4: 스스로도 농사를 짓지만 스님께서도 한마음 내주십시오.

▲스님: 한마음은 본래 돼 있다니깐. 참, 요 묘법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군요.

▲질문자5: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제 근본자리에 감사드리며 또 그 근본자리가 있음을 가르쳐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법당에 와서 예불을 올리거나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할 때에요.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아, 스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건 그런가보다.' 또 여쭙고 싶어도 또 '혹시 이게 결례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궁금증은 많이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의 보살님이 얘기하실 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르면서 하기 때문에 헛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 많은 궁금증 중에서 세 가지만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요, 법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를 저희들이 지낼 때 우주떡을 굽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홀수로 굽는 것과 또 한 장, 세 장, 일곱 장, 아홉 장 그렇게 장수마다의 어떤 그 뜻이 있는지요? 그리고 왜 꼭 홀수로써 구워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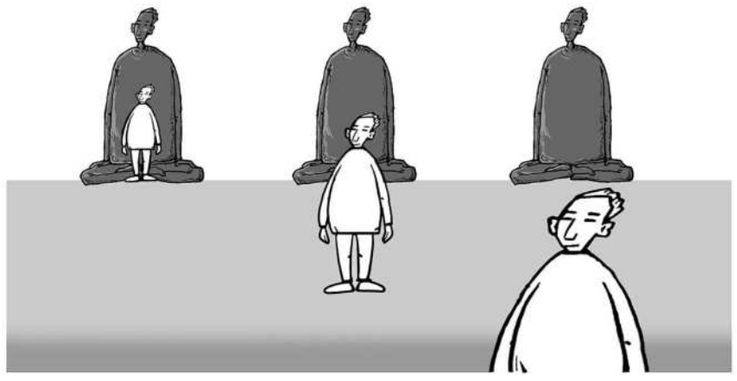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의 팔자 운명은 자기가 지어 가는 것이지 어디에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님: 이 세상만사가 변해서 돌아가긴 해도 돌아가는 거는 천차만별로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집는 데도 보는 거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작은 걸 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걸 볼 수도 있고, 들더라도 작은 걸 들 수도 있고 큰 걸 들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걸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때는 작은 걸 들 때 한 손으로 집고 조금 큰 걸 들 때는 두 손으로 들고 더 큰 걸 들 땐 같이 들고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저 한 조각을 부쳐놓더라도 세 조각이 될 수 있고 일곱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보이는 거는 한 조각이지마는 보이지 않는 데선 수만 수천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데서 볼 때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먹는 사람도 그것 한 조각 가지고는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곱 조각씩 이렇게 그냥, 일곱 조각을 한 조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깐 자유권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산 사람이 먹기 위해서 일체 우주천 세계에, 도리천 세계에 모두가 한자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한마음으로 공식(共食)한다는 뜻을 여러분한테 알리기도 하거니와 그 영령들은 그 자리에 바로 출현하시기 때문에,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영령은 어느 한 상 차려놓은 것만이 아니라 전체에 한도량으로 삼아서 한 방석에 앉으시니 그렇게 좋은 일이다 이거죠,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조상들이, 즉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재사 지낼 때, 스님네들이 안 차려놓고 영령들이 들어와서 스님네 마음속에 탁 들어와 보니까 '아이구, 내 것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에 안도감과 그 시원하고 좋은 마음과 천도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질문자5: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49재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49재를 부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7 · 1째 되는 초재에 회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1 · 3 · 5 · 7 이렇게 쳐서 할 때도 있고, 또 7 · 7해서 또 7번을 다 해서 끝낼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님: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육신의 칠성판에, 죽으면 육신을 갖다 칠성판에 모시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여섯 개의 육근(六根)에 의해서 칠성이 아주 잘생겼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깐 그거를 비유해서 그거를 만든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과거로부터 현실로, 미래로부터 또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주 간편하게, 사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사십구재 날까지 자식 된 도리로 정성을 지극하게 하기 위해서 삼세 번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질문자5: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불자들 중에서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제사를 저희들 절에 부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집에서 지내는 그 마음과 절에서 지내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스님: 그 차이점은 있겠죠. 스님네들이 공부를 해서 더 잘 아니까 영령들이 스님네들 마음하고 같이 하니깐 좋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니까 지극하게 부모 생각을 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거는 먹을 거대로 그냥 음식을 해서 지내고, 그냥 제삿상에는 간편하게 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주 더더욱 좋죠.

위패를 꼭 모셔놔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꽃 한 송이라도 갖다놓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한 분의 위패를 써놓지 않는 대신에 전체를 올리는 천혼문을 씁니다. 일체 조상님들 어떠한 분이라도,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아들의 또 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모두 친지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일체를 다 넣어서 나는 덜 먹었다, 나는 왜 안 찾느냐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체를 넣으면 됩니다. '일체 조상님들! 모두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하십시오.' 하고 천혼문을 써서 해드린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에 다 맡기시면 되고요.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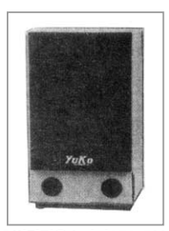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대승불교 관음종 관동불교대학

제 3기 수강생 모집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이념을 전파하고 불교 교리 및 역학 풍수지리 관상학 성명학 최면학을 배우고져 하시는 재가 신도님이나 스님들의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 기본과정 :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가. 모집부문 : 역학, 관상학, 성명학, 풍수지리학(현장실습), 최면학
나. 교육기간 : 4개월 완성 주2회
다. 수업일정 : 수, 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라. 개 강 일 : 2005년 4월 20일 예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 이력서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 특 전 : 본 대학을 수료하신 분께는 역학 자격증 및 풍수지리학 자격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전화나 서신 문의 하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신청 문의 강원도 사천면 사기막리 69-1호 성불사
전화 : 033)647-5475 / 647-0324

대승불교 관음종 관동불교대학장 김고명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Sale!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후식으로 망고스틴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된장·고추장 한 숟가락에 몸짱 OK

최근 연구 발표에 '장류 다이어트' 모임 늘고 관심 증폭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부터 겨우내 알게 모르게 불어난 체중을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이어트약을 먹거나 무리하게 밥을 굶어가며 체중감량을 하기보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긴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으로 '몸짱'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미 인터넷에는 전통장류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팀이 '된장이 비만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장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토종 장(醬)으로 '몸짱' 되세요

원푸드는 NO,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 커

△전통 장류 다이어트 어떻게 할까?

발효된 장을 식사 때마다 하루에 두 번씩 한 숟가락(약 15g)을 생으로 먹거나 장류를 넣은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푸드 다이어트(one-food diet:한 가지 음식만 먹으며 체중을 감량하는 것)와 달리 식사를 매끼, 골고루 잘 챙겨먹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에 하되 식사량은 80% 정도로 제한한다. 주식은 현미 · 잡곡밥으로 하고, 반찬은 두부 ·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 · 달걀 · 살코기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2:1 비율로 섭취한다.

장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전통 장을 이용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살빼기가 아닌, 식습관을 바로잡는 식이요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달리기나 체조, 스트레칭 등의 운동도 함께 해주어야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삽화 · 박구원

생청국장 체중감량에 탁월, 위장질환 환자 고추장 피해야

△청국장 다이어트



얼마전 둘째아이를 낳은 김채영(32 · 주부)씨는 "살을 빼고 싶지만 모유수유를 하느라 선뜻 다이어트약을 먹거나 굶을 수 없어서 청국장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김씨는 3개월 정도 아침 저녁으로 청국장 가루를 꾸준히 먹고 5kg을 감량했다.

청국장 다이어트의 또 다른 효과는 배변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청국장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약 15억 마리의 바실러스균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 청국장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청국장으로 1년 6개월 만에 15kg을 감량한 김한복 교수(호서대 생물정보학과)는 "청국장을 가열하면 청국장 속의 미생물과 핵산 · 효소 · 비타민B군 등의 이로운 생리활성물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청국장을 먹는것이 좋다"고 한다. 김 교수는 "구운 김이나 야채에 쌈을 싸서 먹거나 분말로 만들어 생수나 두유에 타먹는 것도 좋다. 굳이 찌개를 끓일 때는 미생물과 효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청국장을 나중에 풀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된장 다이어트



체중감량 효과가 널리 알려진 것은 청국장이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된장이 장류 중 가장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비만방지 효과가 일어나고, 된장에 담겨있는 레시틴 성분이 몸 안의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이다. 된장에 염분이 많아 먹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섭취량인 30g의 된장에는 약 3g정도 염분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된장 다이어트만으로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지는 않는다. 단, 너무 짜게 느껴질 경우 오이, 당근, 양배추 등의 야채를 찍어 먹거나 국이나 찌개로 끓여 먹는다. 된장 역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끓여도 영양소가 파괴되지는 않는다.

△고추장 다이어트

고추장 다이어트는 고추장에 포함된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의 지방 연소 작용을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이다. 잘 숙성된 고추장은 체내의 지방을 연소할 뿐 아니라 지방성분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체중이 늘지 않도록 억제해준다. 장은재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과체중 여대생 17명에게 8주간 고추발효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지방, 특히 복부지방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고추장 다이어트를 시작한 구본영(25 · 대학생)씨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그 중 두 끼는 고추장이 듬뿍 들어간 찌개나 탕, 비빔밥, 회덮밥 등을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고추장 다이어트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는 "위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위염이 있거나 속이 쓰릴 경우,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는 고추장 다이어트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12)

'뤼 때빠 왜겐' 세 에너지 평행해야 건강

지난 10여 회에 걸쳐 티베트의학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펴보았다.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 티베트의학의 존재와 가치 특성 역사 및 현황 등 겉모습만 둘러본 것이다. 이제 티베트의학의 외양에 대한 개괄적인 '산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구성 체계를 본격적으로 '탐사'해 보기로 하겠다. '산책'과 '탐사'가 주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만큼이나 설레임과 중압감이 동시에 교차하는 야릇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어느 깊이만큼 들어가야 독자의 관심과 호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의사나 약사 또는 한의사도 아닌 평범한 불자님이실 독자 분들을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게 얼만큼 의약학 전문어를 절제하고 또 풀어써야 할 것인지? 의학과 불교이야기의 안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적정할 것인가?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독자님들의 애정 어린 고언과 조언 깊이 새겨 반영할 각오이다.

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피부를 스치는 바람의 감촉으로 가녀린 이파리의 가느다란 떨림으로 그리고 산들바람에 헤적이는 나뭇가지의 흔들림으로 그 존재를 실감하고 또 믿는 것이다. 뤼는 그러한 공기나 바람 요소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실제 기(氣 · air), 풍(風 · wind) 등으로 의역된다.

우리 몸에 뤼가 과도하거나 부족할 때 그리고 그 흐름이 막혔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으로는 불안증 심계항진 불면증 피부건조증 결장부조 그리고 뼈의 동통과 통증 등이다. 뤼는 심장 폐장 대장 혈관 및 신경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특히 불면증 심장병 그리고 중추신경계관련 질환자들에서 뤼의 흐름에 불균형이 쉽게 감지된다. 서구 사회에서 가장 흔한 질병은 거의 뤼 관련 질환들이다. 산업화와 서구화로 정신없이 치달아 온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이다.

혈압장애 다발성경화증 또는 파킨슨씨병

'뤼' 몸속 혈액 영양분 공급, 마음 신체 움직임 관장
과하면 뼈 통증 · 불면증 등 질병…생활부조화 현상

티베트의학의 이론은 세 기본에너지로부터 출발한다. 그 세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이고 치료이다.

<사부의전>(규지rGyud-bzhi)의 비유에 의하면 세 에너지는 세 형제와 같아 한 형제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형제들도 편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심신이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 에너지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뤼(rLung) 때빠(mKhris-pa) 및 왜겐(Bad-Kan)' 세 에너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뤼는 티베트에서 운동성(mobility)을 뜻한다. 이 미세한 에너지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순환하며 혈액과 영양분을 나른다. 체내에서 영양분과 노폐물을 분리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뤼의 주요 기능은 마음 말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것이다. 팔다리를 뻗고 걷기도 하고 그런 운동과 활동들이 모두 이 에너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육안이나 무슨 현미경 같은 정교한 장비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디 바람이나 공기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현대병들은 모두 뤼의 불균형에서 발단한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대증요법만으로는 완치가 어렵다. 여기에 티베트의학의 가치와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티베트의학은 서양의학의 한계를 보완하여 현대병의 치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부의전>에는 뤼 관련 질환들이 5가지 유형으로 총 63가지나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주요 유형들만 살펴보겠다.

첫째, 생명유지뤼(維命氣)이다. 이 뤼는 뇌에 자리를 잡고 인두에서 식도를 따라 밑쪽으로 운행한다. 음식을 삼키고 침을 뱉고 재채기하고 트림하고 흡입하는 운동과 마음의 중심을 잡는 기능을 돕는다.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념할 점은 경험자나 전문가의 지도 없이 너무 지나치게 정신을 집중시킨다거나 화두에 몰입할 때 이 생명유지뤼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정신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티베트에서는 수행자가 생명유지뤼로 고생하면 잘못된 수행습관 탓으로 간주한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수행건강학과
대구 · 부산지역 학생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장소에서 접수)
2. 교육과목
● 무량의경 (한문)
● 묘법연화경 (한문)
● 관 · 보현보살 행법경 (한문)
● 두뇌운동법 (의념) ● 호흡운동법 (조절)
● 유화운동법 (동작) ● 음식영양학 (체질)
● 기타교양과목 (특강)
3. 교육기간 : 4년 (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 구 : 화요일 오전10시30분-12시30분
● 부 산 : 목요일 오후 2시-4시
5. 교육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 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수행지도사 자격증 수여 (심사후)
● 건강활법사 자격증 수여 (심사후)
● 평생학부과정 진학자격부여 (평생무료학습)
● 이스트 웨스트 대학교 대체의학과에 편입가능
● 수료후 연구활동 등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財)韓國平生大學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북한 3대 특산품 금강약돌
은행석베개볼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생명의 빛 생명의 기
(주)금강닥터에서는 북한3대 특산품이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금강약돌을 수입하여 은행석이란 제품을 개발 화제가 되었으며 추가주문이 쇄도하여 감사를 드리며 음이온을 첨가하여 더욱 나아진 신제품 은행석을 추가 생산하여 판매합니다.
베개속에 신비의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을 첨가하여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 머리를 맑게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압상승 억제효과
◆팔 찌 : 전신에 기를 골고루 전달하여 심장박동을 원활하게 하며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다이어트에도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제품을 직접 선 체험하시고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소원성취

영 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인천 영흥도 토굴에 묻혀 수행중에 있는 납자로서 영험한 부엉이 길상도를 소개드리고저 합니다.
어느 때 한 선비를 만났는데, 선비께서 대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가 넘쳐나기에 만인을 위하여 알려드리니 이점 꼭 지켜주기 바란다며 하시는 말씀이, 부엉새를 그려서 집없는 이와 사업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옛 중국 문헌의 기록을 두루 살피고 정성과 원력을 세워 그려서 그 집에 3년동안 모셔두면 집없는 사람은 3년 안에 집을 사고 사업하는 이는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수년간 실천해 왔는바 별다른 일 뜻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이들이 소원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그려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H·P : 011-9458-6616
FAX : 031- 316-9114
영흥도 서래달마원 구암 합장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장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을 가서 점을 봐도 시원치 않는 분
- 하는일이 되는 노릇이 없고 덕과복이 없어 고통에 사시는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꿈에 영가가 자주 보이시는 분
- 이사나 매매, 이동 변화가 궁금하신 분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님을 친견하면 큰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뭐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지장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불기2549년 마하몰 봉축용품 기획상품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전화 02-732-1520

등



▮ 황금연등
· 20,13,10.5,8,6인치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사용



▮ 공단등
· (大)23Cm,(中)18cm,(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빨강,흰색(영가등)



▮ 캐릭비닐터만월등
· 32cm × 32cm
· 분홍,파랑,빨강,노랑,초록,색상별



▮ 연꽃등
· 진분홍,연분홍,주황,연두,보라



▮ 캐릭터 청사초롱
· 소재 : 숙고사, 프라스틱 · 고급본염인쇄 · 1박스 = 100개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 및 단체명 무료인쇄

▮ 만월등
· 32cm × 32cm
· 노랑,연두,분홍,빨강,오렌지,흰색(영가),오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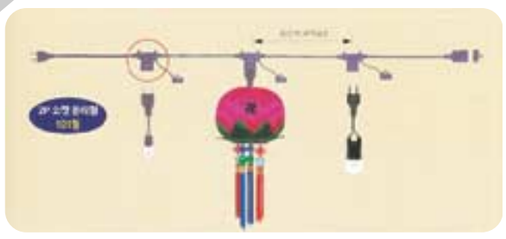
▮ 비단팔모접등
· 28cm × 24cm
· 분홍,노랑초록,빨강,파랑

▮ 팔각조립등
· 26cm × 28cm
· 핑크,오렌지,초록,파랑,봉축빨강,봉축노랑,
성도일빨강,성도일노랑

▮ 종 등
· 40cm × 27cm
· 노랑,연두,분홍,빨강,오렌지

▮ 풍경등
· 빨강,분홍,노랑,초록,파랑

연등전선







▮ 사찰용 연등전선 (법당용, 외곽용)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수막









▮ 봉축현수막 : 실사 · 90cmX6m (48,000원)
· 90cmX7m (56,000원) · 90cmX8m (64,000원)

▮ 봉축현수막 :세로(실사) · 6m (60,000원)
· 7m (70,000원) · 8m (80,000원)

▮ 장엄 번(만장기)
· 90cmX210cm (40,000원) · 90cmX230cm (45,000원)

▮ 지하철(장엄)현수막
· 105cm×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 변경가능

봉축캐릭터용품



▮ 봉축리본 세트
· 일반 : 25,000원 · 고급형 : 35,000원 ※100개 1세트



▮ 연꽃리본
· 25,000원 ※ 100개 1세트



▮ 봉축캐릭터 앞치마
· 4,500원 ※ 200벌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사찰명인쇄 및 내용변경 가능



▮ 봉축 버튼 · 4,000원 ※10개 1세트



▮ 봉축 풍선세트 · 30,000원 ※ 100개 1세트(대롱 포함)



▮ 봉축 타이슬링
· 2,800원
※ 4개 1세트

▮ 만자기/법륜기/불교기
· 20,000원
· 90Cm×135cm
※ 다른 사이즈 제작가능



▮ 차량용 깃발
· 4000원
· 20X30cm



▮ 봉축카드세트 · 6,000원(10장 1세트)
※ 200장 이상 주문시 사찰 · 단체명 인쇄 및
속지 인쇄해 드립니다.

단체주문상품



▮ 캐릭터 벽시계
(플라스틱)
· 15,0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 헤드폰 알람시계
· 24,000원
(하늘색,은색)



▮ 순금카드
· 15,000원
· 25,000
(케이스포함)



▮ 황향목 담채연꽃차걸이
· 8,000원(1개)
· 34,000(5개)



▮ 운월 달마족자
· 50,000원
· 청곡 이한동 화백작품
· 220mm X 430mm



▮ 캐릭터 벽시계
(원목)
· 20,0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 LED라이트 알람시계
· 18,000원
(핑크,그린,화이트)



▮ 연실염쇠고리
· 6,000원
▮ 연실합장주
· 6,000원
▮ 연실핸드폰걸이
· 6,000원



▮ 풍경차걸이
· 4,000원
· 갈색,분홍,연두



▮ 이미지 큐브
· 10,000원
· 신기한 입체블록으로 보는
부처님일대기
※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제작해 드립니다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현대불교

불기 2549년(서기 2005년) 4월 6일 수요일(음력2월28일)

제 520호(부록) buddhanews.com

2~4면 □생활 속 뿌리 내린 간화선
5~6면 □간화선 지침서로 본 참구법
7~9면 □설선법회 10대 선사들의 공부법
11~13면 □경전 · 선어록 읽기와 간화선
14면 □선수행과 정신치료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주 및 법회일정(앞으로 일정)

4월 2일	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닦는 선수행
4월 9일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선수행의 바른 길
4월 16일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 –생사문제와 선수행
4월 23일	원융 스님(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화두는 조사공안이다
4월 30일	정광 스님(봉암사 태고선원장) –선수행의 단계
5월 7일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 –회향법어 및 무차선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범어사 보제루
● 문의 :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법회 전체 동영상 중계 buddhanews.com
매주 현대불교신문 24~25면 법문내용 소개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시골 나부랭이가 감히 부처가 되겠다고?"
"어찌 불성(佛性)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선(禪), 지금 이순간 나의 삶이다

혜능과 오조 홍인 선사의 첫 만남. 혜능은 '선(禪)에는 차별의 선(線)이 없다'며 대차게 말한다. 승속, 신분, 지위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깨달음의 대중화' 선언. 바야흐로 육조 혜능 스님의 말처럼 한국불교계가 '선의 황금시대'를 맞고 있다.

'선 수행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을 바로 알고 실제 참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서적들이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대학생들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도 간화선 수행이 단골로 오른다.

이런 추세에 호응하듯 조계종은 4월말 종단 최초로 간화선 수행지침서 <간화선>을 발간하는 한편, 간화선수행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을 마련하는 등 간화선 수행의 저변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 미황사 서울 금강선원 등 전문적으로 참선 실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찰도 속속 늘어나 '간화선풍(看話禪風)'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같은 선풍은 지난해 봄 서울 조계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해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법회'가 계기가 됐다. 선방에서 직접 실참하며 수좌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원장 스님들이 도심으로 나와 간화선에 목마른 대중들에게 무엇이 간화선의 고갱이이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선용해야 하는지를 풀어 설명했다. 조계사 법회를 시작으로 도선사, 불광사, 보문사, 부산 혜원정사, 감로사, 소림사, 대구 동화사 등에서 고승 및 선원장 초청법회와 담선법회가 열려 간화선을 알고자 하는 대중들의 열기를 북돋았다.

특히 범어사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주최로 3월 5일~5월 7일 매주 토요일 범어사에서 열리고 있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에는 매주 4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보제루와 앞마당을 가득 메우며 선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이 열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종단과 사찰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간화선 수행의 올바른 이해와 실참 유도를 위해 △누구나 와서 실참할 수 있는 시민선방의 상시 운영 및 증설 △간화선 수행 전문 지도자 양성 △간화선 관련 법회의 지속적 개최 등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 취재팀 :
김재경 · 천미희 · 김철우 · 여수령 · 강신재 기자
사진 : 고영배 · 박재완 기자



재가자 '용맹정진' 주말을 달군다



'이미 선풍(禪風)은 불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실참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공부마당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통선의 진수를 아낌없이 보여줬던 한국불교계에 새롭게 떠오른 화두다. 그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 올해도 선 관련 법석이 줄줄이 마련되는가 하면, 조계종은 간화선 수행의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화선 기초' '실참 단계'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단계별로 구성한 수행 지침서 《간화선》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재가자들의 간화선 수행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까지 마련돼 간화선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가자들의 수행에 대한 의욕도 나날이 커가고 있다. 매안거 마다 3천여 재가자들이 전국 30여 시민선원에서 수행을 하고, 평상시에도 전국 50여 시민선방에서는 직장인, 주부 등 재가 선객으로 붐비고 있다. 또 선어록 공부모임도 늘고 있으며, 주말에 철야참선정진을 하는 등 재가자들의 참선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주말 철야참선 하는 곳

지역	단체	시간	연락처
서울	미타사	매주 토	(02)662-4736
	보림회	매주 토	(02)914-6187
	법련사	매월 마지막 토	(02)733-5322
	수선회	매주 토	(02)517-3108
	선학원 선정회	매월 셋째 토	(02)732-3327
	우곡선원	매월 첫째 토	(02)2055-3111
	화계사 선우회	매주 토	(02)900-4326
부산·경남	부석사	매월 마지막 토	(054)633-3464
	범어사	매월 첫째 토	(051)508-3122
	통도사 극락암	매주 토	(055)382-7083
	통도사 부산포교원	매주 토	(051)816-2241
	해운정사	매주 토	(051)746-4812
	해인사 백련암	매월 넷째 토	(055)932-7300
	해인사 원당암	매월 첫·셋째 토	(055)963-9551
대전·충청	대구구도회	매월 마지막 토	(053)654-8533
	대전구도회	매월 셋째 토	(042)527-0559
	공림사	매월 셋째 토	(043)833-1029
	법륜사	매월 둘째 토	(043)878-6122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매주 토	(042)825-0515
기타	장안사	매월 마지막 토	(031)703-7766
	홍련암	매월 첫·셋째 토	(063)263-6072



■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노력들

이러한 한국 선불교의 활성화에 힘입어 불교계에서는 올바른 수행법과 문답법, 점검체계 확립 등 다각적인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이 올 4월말 출간할 '(가제)조계종 수행지침서 간화선'은 선 수행을 시작하는 출재가자들을 대상으로 간화선 기초, 실참방법, 깨달음과 그 이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불교계 안팎에서는 간화선 수행풍토 진작은 물론 대중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인에게 맞는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개발과 선 수행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신도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교안'은 각 주제별로 강의 형식으로 구성하고, 개인 수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 등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서울 금강선원에서 한 달간 시범실시 중인 이 교안은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사찰과 시민선원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불교계 전문가들은 간화선 대중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 시민선원의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내실화 및 모범 사례 발굴 △'문답-점검' 시스템 복원 및 선지식간 정기적 만남의 장 마련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계층별 눈높이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꼽고 있다.

■ 재가자 참선 붐

매년 여름과 겨울, 3천여 스님이 안거수행에 들어가는 결제를 본받아 재가자들의 참선 수행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여름과 겨울 3개월간 실시되는 안거 때면 3천여 명의 재가자들이 일제히 선방에 방부를 들인다. 매주 또는 매달 정기 철야참선을 하는 재가불자들도 늘어나 스님 못지않은 용맹정진이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국의 시민선원은 재가자 안거수행을 하고 있는 30여 곳을 포함한 50여 곳. 매달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불자들은 1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생겨난 20여 사찰수련회 동문회에서 정기 참선을 하고 있는 회원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제 참선이 스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난 셈이다.

서울 보림회 전홍근 총무는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과 이로 인한 이혼 등 가정 붕괴로 정신적인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재가자들의 참선에 대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간화선 지침서 · 교안 발간 등 열기 고조
전국 50여곳 1천여명 수행 … 증가 추세
철야참선 주말 수행패턴으로 각광

■ 선어록 공부모임도 늘어

선사들의 깨닫기까지 수행과정과 깨달은 순간들의 상황을 기록한 선어록이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판단아래, 선어록을 공부하는 모임도 늘고 있다.

현재 선어록을 강의하는 선원이나 수행단체는 강남포교원, 안국선원, 우곡선원, 무심선원 등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선어록연구소는 교학적인 차원에서 강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공부는 선어록 해설과 설법을 통해 사람들이 자칫 빠져 있기 쉬운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이끌어주고, 이를 토대로 반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 체험을 지도해 주는 특징이 있다.

깨닫는 일이야 학인이 주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유발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어록 공부는 이제 참선 수행자들의 인기 있는 공부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다.

■ 참선열기 뜨거운 토요일 밤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전통사찰이나 시민선원, 재가 수행단체에서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철야정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고 있다. 바쁜 일과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과 주부들 사이에서 새로운 주말 수행패턴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가 불자들은 철야 참선을 통해 1주일간 미뤄둔 선정 수행에 집중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를 활기차게 맞이하고 있다.

매주 철야참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은 서울 화계사, 보림선원, 미타사, 수선회를 비롯해 부산 해운정사, 통도사 극락선원, 대전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부석사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기 철야참선법회를 열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해인사 백련암(매월 넷째 토)과 원당암(매월 첫, 셋째 토), 선학원 중앙선원, 서울 법련사, 통도사 분당포교원 장안사, 대구구도회 등이 매달 1, 2회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곡선원, 범어사, 공림사, 대전구도회, 법륜사, 홍련암, 장안사도 매월 1회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21c 고유가 시대

사찰 난방이 달라진다. 법당 난방 걱정 끝!!

확실한 난방!! 저렴한 난방비!!
신축 건물시 시간과 공사비용의 절감효과!!
안전한 반영구적인 시스템!!



배관난방이 아닌 선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세계 7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입완제품.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세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혁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갑니다.



난방 종류별 단가 비교표

구 분	심야전력(축열식)	전기판넬	도시가스	보일러등유	LPG	한국전자난방
가 격(원)	31,24(kwh)	71,5원	500원(㎥)	650원(ℓ)	950원(kg)	71,50원(kwh)
연료소비량(월)	192(kwh)	167(kwh)	13(㎥)	17(ℓ)	12(kg)	43.2(kwh)
난 방 비(평당)	5,998원	11,941원	6,500원	11,050원	11,400원	3,088원
단가지수(%)	194	386	210	358	369	100
10평 난방비(원)	59,980원	119,410원	65,000원	110,500원	114,000원	30,880원

음이온 시험 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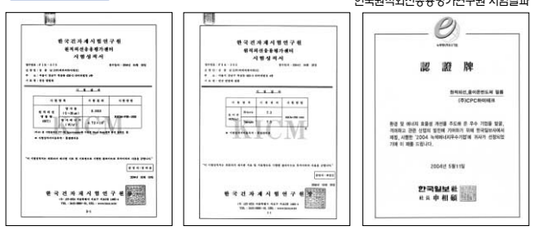
시 료 명	음이온(on/cc)	발급번호
발열필름	158	kfim-236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방 사 율	방사에너지	발급번호
90.3%	3.64 ×10²	kfi-403

검증 인정서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결과



신축공사는 개축공사보다 시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봄맞이 난방보수" – 특별 이벤트

이벤트 기간 설치 의뢰시 종전시공비의 10% 할인혜택

• 특별보급기간 : 2005년 4월 1일 ~ 2005년 4월 30일
• 특 별 이 벤 트 : 설치비 10% D/C
원적외선 방석 2개 증정 (에불시 사용하세요)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keh21.com"

■ 시공순서 (보통 모양과 넓이의 공간이라면 1시간 정도로 시공완료)



시공은 매우 간단! 매우 짧은 시간 이내에 완료되므로 공사비가 업청 저렴합니다.
바닥난방이라 하면 종래의 온수식이나 전기히터식이 전부였습니다. 온수식은 보일러나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배관을 설치해야만 했고, 전기히터식도 커다란 부피의 히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열 필름은 깔기만 하면 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으며, 공사라 할만한 대대적인 작업도 없습니다. 현장의 목수나 전기공들도 간단히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름은 얇고 가벼워 운반도 쉽습니다.

마루의 형상이나 넓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수한 범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5종이나 되는 타입이 마련되어 있어 화장실이나 변형된 내부구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량할때의 시공도 간단합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8평의 바닥난방은 하루만에 끝납니다.

손질이나 정비를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구조는 매우 심플하며 내구성도 높기 때문에 손질이나 정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 전체를 통해 열을 발산하므로 골고루 전해집니다. 따라서 플로링이 열의 불균형으로 인해 틀어지거나 변형될 우려가 없습니다.

(주)한국전자난방
keh21.com '21C 난방의 선두주자'

■ 설치의뢰 080-017-0100 ■ 상담전화 043)221-6006

망상 끊고 참나 찾기 '큰 효과'

경계 허물면 청정심 … 갈등 극복
"늘 온전한 현재에 깨어 있어야"

선수행과 정신치료는 상관성이 있을까.

최근 선수행은 수련의 의미를 뛰어넘어 정신치료에도 효과적인 방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요가나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데 이어, 90년대 이후부터는 검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수행을 환자 치료에 본격적으로 응용하기 시작했다.

3월 26일 한국정신치료학회 주최로 열린 '선수행과 정신치료' 학술연찬회에서 현웅 스님(서울 육조사 선원장)은 "참선심을 만나면 분별 망상이 일시에 사라지는 등 선(禪) 자체가 정신치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참선수행과 정신치료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같은 단체가 주관한 '수도와 정신건강' 세미나에서도 같은 맥락의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창용(대구 대동병원)씨는 "화두를 들고 자기 마음을 비추는 선의 경험을 통해 생각에 끄달리는 '자아'가 아니닌, 모든 경계를 허문 '참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은 약화된 자아를 강화하거나 미숙한 자아를 성숙시키는 서양의 정신분석치료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의 체험이 전제되면 평소 자기라고 믿어왔던 통상적 '자기'가 하나의 투사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이 불성과 같은 청정한 '一心'으로 회귀돼 정신적인 고뇌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위빠사나 명상 역시 정신치료에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한별정신병원에서 위빠사나를 응용한 명상치료를 선보이고 있는 최훈동 원장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몸과 마음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위빠사나 명상이 정신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위빠사나를 수련하면 '과거'를 수반하지 않고도 '현재의 탐욕'을 관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최원장의 주장이다.

임승택(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도 지난 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주최로 열린 '명상과 정신의학' 포럼에서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쾌·불쾌 등의 느낌을 그 자체로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현상임을 깨닫게 되며, 결국에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빠사나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이완 프로그램인 '명상과 자기치유'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 역시 위빠사나 명상이 정신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 원장은 "몸과 마음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다보면 모든 것이 일어남과 사라짐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그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과거 경험에 집중하던 생각의 습관을 깨고 늘 온전한 '현재'에 깨어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별정신병원 최훈동 원장이 정신질환자들에게 명상을 지도하는 모습.

"참선, 고혈압 등 예방"
한림대 송동근 교수팀 발표

한림대 의대 천연의학연구소 송동근 교수 연구팀은 몇 년간 꾸준히 참선을 해 온 이들의 혈액을 조사한 결과 체내에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일산화질소(NO)의 농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박희선 박사의 생활참선 수련센터에서 1주일에 1, 2회씩 한 번에 1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천천히 호흡하며 심신을 이완하는 수련을 해 온 30~80대의 남녀 20명을 선정해 혈액을 채취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면 혈관 이완 효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선·명상 뇌 변화시켜"
美 위스콘신大 신경과학자들

참선이나 명상과 같은 오랜 정신수련을 한 사람은 실제로 뇌 활동이 바뀌어서 그 같은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수준의 깨달음(awareness)을 얻는다는 불가의 주장이 현대 신경과학계의 뇌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위스콘신대 신경과학자들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파견한 티베트 고승 8명을 대상으로 수년간 실험·연구한 결과 수련이 정신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주파인 감마파와 뇌 공조(共調) 등의 과학적 용어로써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오랜 수행자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뇌활동을 보여줬다"며 "정신 수양을 오래하면 골프나 테니스 연습이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뇌에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랜 참선을 한 티베트 고승들은 그렇지 않은 실험 대조군과 달리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감마파 활동을 보인 점을 들어, 명상은 명상시에만 뇌 활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뇌에 항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절취선

'설선법회' 발전을 위한 설문에 동참하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더욱 알찬 법회를 진행하기 위해 참여 대중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다음 법회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성심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질문에 맞는 항목을 찾아 동그라미를 하시고, 기타 항목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요.

<설문 참가자 기본 사항>

■ 불자님께서 사시는 지역은?
1) 부산 2) 경남 3) 수도권
4) 기타지역( )

■ 불자님의 연령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 불자님의 성별은?
1) 남 2) 여

■ 불자님의 소속 사찰은 ?
1) 범어사 신도
2) 타사찰 신도( )
3) 기타( )

1. 이번 법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 다니는 절에서 2)포스터
3)주변사람 소개
4) 신문, 라디오, 방송, 인터넷 등
(매체 이름 :)
5) 기타 ( )

2. 3월 26일까지 4차례 진행된 설선대법회에 몇 번 동참 하셨습니까?
1) 1번 2) 2번 3) 3번 4) 4번

3. 앞으로 법회를 한다면 어떤 시간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주중 오후 2) 주말 오전
3) 주말 오후 4) 기타( )

4. 법주 스님들의 설법 내용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1) 쉬운 편이다 2) 너무 쉽다
3) 적당하다 4) 어려운 편이다
5) 너무 어렵다

5. 법주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 문답시간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유용하다 도움이 된다
2) 다소 형식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3) 기타의견

6. 불자님은 참선 실수 프로그램에도 등록해 동참 하십니까?
1) 한다 2) 안한다

7. 앞으로도 계속 참선 실수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1) 하지 않는다 2) 집에서 한다
3)선원 및 선방을 이용한다.
4) 기타( )

8. 참선 프로그램의 좋은점과 개선점을 적어 주세요.
1) 좋은점

2) 개선점

9. 이번 범어사 설선대법회에서는 법회와 참선 출석체크를 위한 아이디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아이디카드 활용도에 대해 불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잘 모른다
3) 매주 체크를 한다.
4) 체크를 하지 않는다.
(이유:)

10. 법회 진행에서 고쳐야 할 점 및 범어사에 바라는 점을 적어 주세요.

설문 보내주실곳: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기획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신문사 편집국

입문에서 인가까지 수행체계 정착

최상승 수행법이라 일컫는 간화선 수행법은 한국불교에서 그 수행전통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계승·발전돼오고 있다. 스님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간화선이 지난해 조계사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법회' 등을 기점으로 대중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간화선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선문답과 지도점검 등의 공부시스템 복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간화선에 있어서 선지식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른 것으로, 법문을 듣고 단박에 깨닫는 공부법이 부각되고 있다.



삽화: 박구원

공부시스템 복원 통한
간화선 저변 빠른 확산

일대일·일대다로 장애 해결 '엄격 지도'
개인별 화두점검, 최상승까지 이끌어
시공간 제약없는 사이버 상담도 인기

■ **'문답-점검' 복원, 간화선 대중화 전제 조건**

정진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어떤 장애에 부딪쳤을 때 선지식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간화선을 전통 수행법으로 하는 조계종에서는 '자기점검' 이외, 선지식에게 받는 '지도점검'이 더욱 중요하다.

간화선의 기본적인 공부과정은 선(禪)을 공부해 본성을 깨닫기로 결심하는 '발심',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선지식의 대답을 듣고 생긴 의문을 해결하려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 선지식을 찾아가 답을 확인하는 '감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과정은 수행자가 최종적으로 크게 깨달아 '인가' 받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이처럼 진행되는 간화선 공부법의 핵심이 바로 '문답과 점검'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원장 스님들은 '문답과 점검'이 간화선 대중화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강조한다.

원명선원 회주 대효 스님은 "간화선 수행법은 좌선, 관법 등 특별한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교육법인 문답법에 그 핵심이 있다"며 "문답과 점검이 활발해져야 간화선 수행이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일(1)대일(1)' 문답·점검 되살리고 있는 수행단체**

현재 스승과 제자간의 문답-점검이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은 서울 화계사 선우회, 전등사, 선도회가 대표적이다.

28년째 주말 참선철야정진을 하고 있는 선우회는 화계사 前 조실 숭산 스님이 회원들을 상대로 일대일 '공안 인터뷰'로 점검을 해온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숭산 스님으로부터 인가받은 선우회 회장 권유리심 보살이 대신 점검을 하고 있다.

'7일 만에 깨칠 것'을 강조한 해안 스님의 선풍을 이어온 전등사 전등선림 역시 매달 15일 새벽, 스님과의 독대를 통해 수행점검이 이뤄지며, '경책(警責)'과 '격려'라는 스님의 처방이 주어진다. 신도들은 수행 점검이 단 하루도 수행을 소홀히 할 수 없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종달 이희익 거사가 1965년 조직한 선도회 역시 '입실(入室) 지도'라는 일대일 점검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초보자들은 수식관 등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기초수행부터 지도받지만, 구참자들은 무문관(無門關; 남송 무문혜개 스님의 공안집) 48칙(則)을 화두로 들고 체험한 경계를 매주 토요일 現 선도회 지도법사인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에게 점검받는다.

■ **'일(1)대다(多)' 문답·점검하는 수행단체**

다수의 제자를 대상으로 문답을 통해 수시로 수행을 점검하는 단체들도 있다.

안국선원 원장 수불 스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손가락 등을 통해 '살아 있는 화두(活句)'를 던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문답을 통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도점검을 해준다. 특히 안국선원은 <육조단경> <선요> <몽산어록> <마조어록> 등 전통 조사선의 어록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법하고 문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어록을 철저히 체화(體化)한 후, 오늘의 목소리로 되살려내는 과정을 중시한다.

현정선원 원장 대우 거사와 법기회 강정진 지도법사, 명상아카데미 혜봉 거사는 정기법회를 설법과 문답을 통해 진행한다. 법문을 듣다가 의문 나는 점이나 정진 과정에서 부딪친 경계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 **늘고 있는 사이버 수행문답**

사이버 공간에서도 문답과 점검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200여 곳의 불교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가운데 전문적인 수행문답이 이뤄지는 사이트는 20여 곳. 이 가운데 선문답 형식에 따라 수행문답을 하고 있는 사이트는 현정선원, 무심선원, 보림선원, 선림도량, 마하수련원 등이 대표적이다.

무심선원은 실제로 김태완 법사가 문답식 법회를 통해 네티즌 선객들의 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일대일 점검과 참선 법문이 주요 공부 형식으로, '생활선'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의심나는 점은 언제든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점검해주는 방식이 일반화됐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사이버 생활수행 도량인 '목탁소리'는 평소 일터에서 정진하다가 3주에 1번씩 모여 '밝은 모임'이라는 수행점검시간을 갖는 한편 매일 사이버도량에 수행일기를 올리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매일 수행상담을 하는 양평 법왕정사(cafe.daum.net/sorisan) 주지 청견 스님은 2년 전에 입제한 '100만명 매일 108배 만일결사'에 동참하는 회원들에게 수행점검표를 나눠주고 있다.

선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은 "간화선에서는 스승과의 실제적인 '문답과 점검'이 절대적인 생명줄이 된다"며 "오늘날 간화선 수행풍토가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 수행 문답하는 사이트

단체	인터넷 주소	문답 점검 법사
현정선원	www.fuoyee.or.kr	대우 법사
무심선원	www.mindfree.net	김태완 법사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정목 스님
위빠사나	vipassana.buddhism.org	묘원 법사 등
소리산참선캠프	cafe.daum.net/sorisan	청견 스님
관수련회	www.kwan.or.kr	구선 스님
마하수련원	www.mahazen.org	벽공 스님
선림도량	www.daedosun.org	운거 스님
여래선원	www.buddhapia.cc	붓다피아 스님
호두마을	www.vmcwv.org	혜연 스님 등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수불 스님
축서사	www.chooksersa.org	무여 스님
참나찾기교육원	www.minsoozen.pe.kr	박민수 법사
초기불전연구원	www.chobul.com	대림 스님
명상아카데미	www.bodhitao.com	혜봉 법사
보림선원	www.borim.co.kr	묵산 스님
목탁소리	www.moktaksori.com	법기 스님

■전국 시민선원

지역	단체명	연락처
서울	금강선원	(02)445-8484
	도선사	993-3161
	길상사	3672-5945
	묘심선원	523-8005
	미타사	2662-4736
	법련사	733-5322
	보리수선원	517-2841
	보현사	756-3636
	봉은사	516-5652
	불광사	413-6060
	서울 강남포교원	539-2631
	선학원	732-3327
	수선회	732-5960
	입제선원	888-6937
	조계사	732-2183
	전등사 전등선원	762-0643
	한국불교연구원	762-5624-6
	화계사	902-2663
	삼보선원	913-2859
경기	망해암	(031)443-5559
	봉선사	527-5974
	수원포교당	255-2692
	용화선원	872-6061
	안성 도피안사	676-8700
	정각선원	903-9628
	한마음선원	470-3100
충청권	갑사 선방	(041)857-8981-2
	대자암	857-5800
	용화사	557-2129
	대전구도회	(042)527-0559
전라권	광주 자비신행회	(062)231-2733
	석탄사	(063)538-1268
	전남 보광사	381-4242
	전북불교대학	226-7878
	홍련암	263-6072
부산	범어사	(051)508-3122
	금화사	582-3042
	부산불교교육원	466-4080
	안국선원	892-9877
	어여선원	740-6288
	해운정사	746-2256
	통도사 부산포교원	816-2241
대구	대구구도회	(053)256-8589
	동화사	982-0101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753-8883
	법왕사	766-3747
	영남불교대학	472-6288
경상권	울산 학성선원	(052)271-5352
	학성선원	271-5352
	영주 부석사	(054)633-3464
	정토수련원	571-6031
	직지사	436-6013
	정인사	(055)256-5450
	통도사 보살선원	382-7182
	해인사 백련암	932-7300
	해인사 원당암	932-7308
	홍제사 황령선원	382-1181
	황대마을선원	963-9551
제주	남국선원	(064)733-2278

‘법거량’이 무엇입니까?

“본래 둘이 아닌데, 어찌 둘이 됩니까?”
“어찌 분별하느냐?”
“스승과 제자가 둘인데, 어찌 분별을 안 하겠습니까?”
“악! 나가거라.”
“어디로 나갈까요?”

보림사 회주 묵산 스님이 지난 1955년 고봉 스님에게 던진 ‘불이법문(不二法門)’ 법거량이다. 전광석화와 같이 오가는 즉문즉답(卽問卽答)에 두 스님의 선기가 번뜩인다.
인가(認可)를 중시하는 선종. 법거량은 화두참구로 깨달음을 얻는 간화선 수행전통에서 중요한 점검법이다. 수행자의 화두타파 유무, 깨달음의 증득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법거량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법거량이 출 · 재가자들에게 던져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단연 선문답을 통한 자기 공부 점검에 있다. 또 출 · 재가자들에게 깨달음의 기연을 주는 공부법이 된다.



사진은 지난 2000년 백양사에서 열린 ‘제2회 무차선 법회’에서 당시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과 한 수좌의 법거량 장면.

‘즉문 즉답’으로 깨달음 이끄는 공부법 부각

□ 복원되는 법거량 전통

백양사 고불총림이 1998년, 2000년, 그리고 부산 해운정사가 2002년에 조사선(祖師禪) 선양과 승속의 구별 없이 깨달음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무차선법회를 봉행했다. 이들 무차선법회는 ‘진정한 고수는 드물고 앵무새만 늘고 있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해소하는 중요한 법회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런 법거량전통 복원 노력은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봉행 중인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로 이어진다. 간화선 수행법을 일반 재가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자리라는 점, 특히 5월 7일 마지막 회향법회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법주로 나서 무차선법회를 연다는 점이 그렇다.

법회는 질의법사 및 재가 질의자가 법회별로 2~3 명씩 지정돼 법문후 청중을 대신해 법주 스님에게 질문해 자세한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다. 질의법사도 수십년 선방에서 공부한 선원장급 구참 수좌와 수십년 수행이력의 재가자들로 구성돼 질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계가 문자선, 의리선, 구두선 등으로 ‘말 길’로만 선어록을 외는 법거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무차선법회 등과 같은 법석을 통해 말 이전의 소식을 보고 들어 마음자리에 곧장 계합할 수 있는 선문답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 법거량(法擧量)이란

법거량은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뤄진다. 제자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드러내고, 스승은 제자의 공부 뭄뭄이를 점검한다. 또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은 깨친 법을 서로 확인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거량을 일반적으로 ‘선문답’이라고 한다. 물고 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계를 드러내고 확인하기에 그렇다.

법거량의 방식은 ‘즉문즉답’으로 진행된다. 한 치의 양보도 알음알이도 끼어들 틈 없이 치열하다. ‘할’(喝;깨우쳐 주기 위해 ‘억!’하고 큰 소리를 지름)과 ‘방’(棒;죽비나 손으로 일격을 가해 깨우침을 주는 행위)까지 날린다.



범어사 설선 · 백양사 무차선 법회 등 큰스님들께 지도점검 받는 귀한 기회
상대방 근기 따라 깨침 주는 것이 핵심
자신의 공부 미숙함까지 화두 삼아야

법거량의 이 같은 ‘파격성’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원리에 있다. 즉 말, 행동, 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자가 앓고 있는 병(의심)에 맞춰 약(점검)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직지인심의 기연을 제자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법거량의 핵심이다.

□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법거량은 수행자에게 화두참구의 필수 조건인 3심(의심, 신심, 발심)을 일으킨다. 스승이 제자에게 발심의 기회, 신심 증대, 의심 해소 등의 기폭제를 준다. 이를 통해 공부의 진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법거량의 이 같은 가르침은 중국 임제 선사가 스승 황벽 선사에게 맞은 ‘30방(棒)’에서도 엿볼 수 있다. 3년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자, 임제 선사는 황벽 선사에게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세 번 찾아가 세 번 묻는다. 하지만 족족 30방을 맞는다.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은 임제 선사는 고한의 대우 선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한다. 임제 선사는 “황벽이 그렇게 자비스러운 법을 편다”는 대우 선사의 말을 듣고, “황벽의 불법도 몇 푼어치 안되는구나!”하고 확철대오를 한다.

황벽 선사의 30방은 제자에게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듯 말 듯 하지만 법거량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법거량은 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문답을 통해 시험하는 것”이라며 “법의 궁금증을 일으켜 공부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줘 조사선 수행점검법의 핵심이 된다”고 말한다.

□ 법거량을 통해 가져야 할 불자의 자세는?

재가불자 간화선 수행모임 선도회 박영재 지도법사는 “법거량은 일종의 ‘응용공안’”이라고 말한다. 즉 법거량은 역대 조사들이 주고받은 공안, 선어록 등의 내용인 만큼 그것들을 화두 참구하듯 공부하는 것이다.

박 법사는 특히 질문의 주체에 따라 법거량의 유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먼저 대기설법을 연원으로 한 법거량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박 법사는 공부의 깊이를 헤아려 본다는 측면에서 법거량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수행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왜 마음공부에 미숙했는지’에 대한 반성조차 화두참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수행자는 늘 스스로 여법한 자리에서 법을 올바르게 드러내고 경계나 말에 쫓기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 · 점검해야 한다고 박 법사는 말한다.

이를 위해 박 법사는 수행자들은 우선 스승을 부단히 대면하면서 정기적인 입실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실참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선교쌍수(禪敎雙修)가 된다는 것이다. 또 법문이나 경전, 선어록 등을 통해 불법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대진 스님이 말하는 ‘금강경’ 선공부

“분별심을 놓아라”

모양으로 부처를 찾거나 보지말고
순결한 텅빔 속에서 집착없는 삶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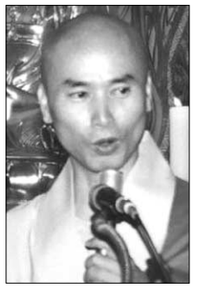


사진은 2004년 서울 보문사에서 열린 대진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불자들.

“방아를 다 찧었느냐?”
“다 찧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키질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늦게 오조홍인 대사는 혜능 행자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아무도 모르게 <금강경>을 강의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
혜능은 이 구절에 이르러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날 밤 홍인 대사는 혜능을 선종의 제6조로 정하고 전법의 징표로 가사와 발우를 물려준다. 육조혜능 스님과 <금강경>과의 기연이다.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는 조계종헌의 규정에서 보듯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택한 것은 “한 곳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부처를 찾거나 보지 말 것을 강조한 정신” 때문이다.
또 인욕, 보시바라밀 등을 강조한 <금강경> 실천행 역시 소의경전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에 포함된다. 육조혜능 스님이 <금강경>으로 깨친 후 중시한 것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서울 보문사에 매년 ‘선(禪)으로 본 <금강경>강의’를 개최해 선객들의 주목을 받은 대진 스님(백장암선원)은 “<금강경> 법문을 듣고 기억하거나 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심(無心), 무념(無念)이 되는 것이 <금강경>을 바로 듣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불법과 세간법에 대한 집착, 열반과 해탈, 깨달음이란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순결한 텅빔 속에서 침묵과 휴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금강경> 공부의 요체라고 말한다.
다음은 대진 스님의 <금강경> 강의에서 요약한 마음공부법이다.

‘지금 여기’서 설해진다

<금강경>은 2500년전의 한때(一時)만 설해진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설해지고 있다. 삶에 대한 헐떡임과 욕망, 갈망이 모두 사라졌을 때 부처님의 맑고 빛나는 눈동자와 고요한 숨소리를 느낄 수 있다.



대진 스님

귀와 의식을 활짝 열면 <금강경>의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을 일깨울지 모른다. 모든 시비와 분별심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법문을 듣는다면 <금강경>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설해진다.

깨달음은 마음과 무관

‘깨달음의 마음’이란 없다. 오히려 깨달음은 마음과 무관하다. 진여심이나 평상심과 같은 마음은 없다. 그런 말들은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설한 명칭이다. 이 마음의 이면에 뭔가 있다고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 ‘무심(無心)’을 삼독(탐진치)이 없어진 마음이라 말해서는 안된다. 무심이란 말 그대로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있는 한 성인과 범부, 선과 악, 번뇌와 보리가 한결같을 수 없다. 마음이 사라져야만 이러한 분별심이 사라진다. 깨달음은 무심이 주는 선물이다. 일심이 아닌 무심, 일념이 아닌 무념, 진심과 보리심이 아닌 무심이 돼야 한다.

‘어떻게’ 하려는 순간 이미 어긋난다

깨달음에서 ‘어떻게?’란 말은 불을 수 없다. 어떤 의도와 노력으로 자기를 뜯어고치고 향상시키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휴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이미 주어져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고 찾아 헤매는 동안은 깨달음은 없다. 진정한 휴식이 찾아올 때 깨달음의 꽃은 피어난다.

깨어있는 찰나찰나가 축제

깨달음과 열반은 저 멀리 설정된 이상향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다면 찰나찰나 축제가 될 것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야 한다. 열반은 이미 주어져 있다. 여러분은 이미 생사를 넘어서 있다. 이 순간 이렇게 피어있다.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없다면 삶의 애착과 고통, 중생이라는 생각, 열반의 세계가 모두 허구이자 꿈일 뿐이다.

머물 곳을 찾지 말라

여러분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몸의 세포와 맥박은 물론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니 안주할 곳을 찾는 순간 무덤이 된다. 이것이다 싶어 잡으려 할 때는 이미 어긋난다. 머물지 않고 집착이 없을 때 늘 살아있게 된다.

마음은 조복할 대상이 아니다

마음을 항복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몸을 항복받은 후 자기 마음과 싸움을 하지만, 이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새로운 아집을 형성한다. 존재하지 않는 마음과 왜 힘들여 싸워야 하는가. 하늘 높이 날아 오를 기회의 시간은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침묵 속에서 귀기울일 때 주어진다.

자아의식 버릴 때 참된 보시 가능

‘내가 있다’는 자아의식(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발동하면 자비심도 사라진다. 이 자아라는 특성은 자기자신 보다 소중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와 분리된 자아의식이 있는 한 외롭고 빈곤하다.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형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한다. 아무 조건없이, 타인의 삶을 그대로 인정한 채 나를 잊고 보시해야 한다.

12면에서 이어짐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가격
〈선어록 읽는 방법 (무문관으로 배우는)〉	혜원 스님	운주사	1만5천원
〈선어삼백칙〉	차차석	여시아문	1만원
〈선으로의 초대〉	스즈키순류	시공사	6천원
〈선의 근원(도서)〉	김무득	우리출판사	6천5백원
〈선의 나침반〉	현각 스님	열림원	7천5백원
〈선의 세계〉	고형곤	운주사	1만3천원
〈선의 황금시대〉	류시화 옮김	경서원	1만5천원
〈수행으로 가는 길〉	이제열	대원정사	6천원
〈앎기 쉬운 선 이야기 100가지〉	송원 스님	상아	8천원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숭산 스님	현암사	1만2천원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은인연	1만원
〈조사선〉	동취	운주사	2만원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태완	장경각	1만8천원
〈조주선과 임제선〉	한정섭	불교통신교육원	7천원
〈조주선사 선문답〉	석우 스님	관음손	1만1천원
〈좌선(선 공부하는 비결)〉	이희익	경서원	8천원
〈좌선수행법〉	성본 스님	동국대출판부	3천원
〈중도선(태어나기 이전의 나는 누구인가)〉	법산 스님	운주사	7천5백원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	오석제	장승	4천5백원
〈참나〉	혜거 스님	선문출판사	7천원
〈참선경어〉	백련선서간행회	장경각	6천5백원
〈참선교육〉	현담 스님	도서출판선	1만5천원
〈참선요지〉	대성 스님	여시아문	4천4백원
〈초보자를 위한 선〉	김대현	민족사	6천원
〈초보자를 위한 화두참선 수행기〉	조정연	불광	7천원
〈평상심이 곧 도다 (중국선불교답사기)〉	이은윤	자작나무	9천원
〈푸른 바위에 새긴 글(벽암록풀이)〉	김충호	솔	9천8백원
〈현대인과 선〉	기마다시게오	대원정사	7천원
〈화두선 요결〉	이수경	경서원	2만원
〈화두와 참선〉	편집부	운주사	3천5백원
〈화두 잣는 법〉	편집부	토방	7천원
〈화두참선〉	이계묵	우리출판사	1만3천원
〈활보기의 선〉	오이겐 헤리겔	삼우반	9천원
(선관련 학술서 안내)			
〈고려말 나옹의 선사상 연구〉	효탄 스님	민족사	1만2천원
〈고려후기간화선연구〉	조명제	혜안	1만8천원
〈공의논리(깨달음총서17)〉	가지야마 유이치	민족사	6천5백원
〈남방불교의 위빠사나와 북방불교의 간화선 의식〉	촬안 스님	불교통신교육원	8천원
〈논어와 선(깨달음총서45)〉	한토다이가 외	민족사	5천5백원
〈대승경전과 선〉	김호성	민족사	1만8천원
〈대혜종고선사와 간화선〉	한정섭	불교통신교육원	8천원
〈육조선연구〉	김호귀	민족사	2만원
〈새롭게 쓴 선종사〉	오키모토 가쓰미	불교시대사	6천원
〈서양철학과 선〉	에리히 프롬 외	황금두뇌	7천원
〈선과 21세기〉	석원영	들꽃누리	6천6백원
〈선과 깨달음〉	박건주	운주사	8천5백원
〈선과 노장〉	쉬사오위에	운주사	1만2천원
〈선과 동방문화〉	한국불교학술교류회		1만8천원
〈선과 문학〉	신규탁	장경각	4천5백원
〈선과 서구문명〉	진각 스님	불교정신문화원	1만2천원
〈선과 일본문화〉	아나기다세이잔	불광	6천원
〈선과 정토(깨달음총서25)〉	후지오시지카이	민족사	5천5백원
〈선의 세계〉	고형곤	운주사	1만3천원
〈선의 역사와 사상〉	성본 스님	불교시대사	1만5천원
〈선의 연구〉	서전기태랑	명문당	2천5백원
〈선이야기〉	일지 스님	운주사	8천원
〈선학의 이해〉	현각 스님	여시아문	1만5천원
〈선학의 황금시대〉	서돈각	천지	1만5천원
〈여래선〉	홍씨우핑 외	운주사	2만원
〈여래장사상〉	정호영	대원정사	6천5백원
〈운문선 연구〉	원공 스님	토방	1만5천원
〈유식사상과 여래장과 선〉	김현두	아나	1만원
〈지눌의 선사상〉	길희성	소나무	1만5천원

설우 스님이 말하는 '육조단경' 선공부

현재의 삶에서 진리 구하는 길 열기

"불성은 청정…단박에 깨쳐 부처 행동 보이는 것이 선"

"일체만법이 모두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찌 자기 마음을 좇아 단박에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육조단경>에서 혜능 선사는 반복해서 '돈오견성(頓悟見性)'을 강조한다. 즉 '단박에 깨쳐 본래 불성을 바로 보라'는 것이다. <육조단경>은 중생심을 마음의 근본자리인 '불성'으로 돌이키는 길을 제시한다. 깨달음의 주체가 불성이고, 그 불성의 작용이 지혜임을 밝히고 있다.

즉 망념에 사로잡힌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자각, 이것이 '식심견성(識心見性)'이며 '지금, 여기, 자기'를 늘 들여다본다는 '일행삼매(一行三昧)'다.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에서 반야와 불성사상을 통합, 선수행으로 전개하도록 새로운 선불교의 실천체계를 확립했다. 대승불교의 반야와 불성사상을 '생활선(生活禪)'의 형태로 녹인 점, 불성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사상으로 무념(無念)을 종으로 삼고, 무상(無相)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無住)로 근본을 삼은 것이 그 실례다. 결국 <육조단경>은 조사선이라는 생활종교를 중국의 대지에 정착시킬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 선불교의 금자탑을 세운 선수행의 근본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지난 해 9월 동화사 담선대법회에서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강의해 주목을 받은 설우 스님(법인정사 선원장)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과 반야의 자연지가 구족되어 있는 사실을 자각하면 곧 바로 돈오"라면서 "이를 통해 참된 진아의 세계를 체득함으로써 보살의 서원과 원력으로 회향하는 자비의 삶이 실천된다"며 <육조단경>의 대의를 설명한다.

설우 스님은 "부처가 부처로 부처행을 하는 것이 선(禪)"이라고 정의한다. 선은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해서 정법안장 열반묘심의 정안을 구족한 선승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상심으로 수용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선은 실천불교이며, 여기서 실천이란 어떤 목적이 있어 무엇을 채우고 꾸며야 하는 노력의 실천이 아니라, 부처가 부처의 행을 보이는 것이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설우 스님은 비록 견성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내가 부처라는 사상적 확립만 있다면, 모두가 부처이기에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며 평등사상이 자연히 정립되어 각종 사회의 부조리도 치유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설우 스님의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 발표문 요지.



"우리가 모두 부처임을 믿으면 곧 '해탈'"이라고 강조하는 설우 스님.

마음은 원래부터 연기적 존재

불성이란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육조단경>에서는 불성에는 남북이 없고, 불성의 성질은 청정공적하다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더럽고 깨끗하다는 양변 대립적 청정한 마음의 실체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마음은 연기적 존재이고, 공성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불성은 중생심의 본질적인 자성청정심을 말하며 연기법으로서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는 세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생속에 부처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혜능 스님은 <단경>에서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자불(自佛)이야말로 진불(眞佛)'이라고 말하면서 부처를 천국에서 인간으로 피안에서 차안으로 끌어내렸으며, 모든 이들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였다. 아울러 중생이 부처이고 번뇌가 보리며, 즉심즉불의 본래불을 깨달아 자기 부처를 바로 보아야 한다는 평등선언을 한 것이다.

오직 돈오돈수…점수 철저히 배격

혜능 스님은 홍인 화상의 <금강경>에 대한 법문을 듣는 중에 '응무소주이생기심(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라는 내용의 이치를 확연히 깨달았다. 돈오돈수는 단박에 깨쳐 닦아 마친다는 뜻이며, 여기서 깨쳤다는 말은 원래 부처라는 것을 체득하여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돈오는 '나는 부처다, 나는 연기적 존재'라는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며, 돈수는 부처의 행을 말하는 것이다.

혜능 스님의 돈오돈수 사상은 체험을 통해서 확인된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경묘각 정오정각'만을 견성이라고 선을 그었다. 혜능의 돈오돈수 사상은 훗날 상당 설법이나 선문답을 통해 스승은 직지인심을 드러내고, 기연을 계기로 제자가 견성성불하는 조사선의 가풍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때 생사심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중생을 이고득락케 하고자 하는 보살의 서원, 연기적 현상을 직시하는 삶의 가치관에 대한 확고부동한 정립 위에 이뤄지는 참된 발심이 수행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혜'는 '등불과 빛'…둘이 아니다

혜능 스님은 점수법에서 말한 계(戒)로 인해 정(定)이 생기고 정을 거쳐 혜(慧)가 발한다는 사상을 배제했다. 정은 '적적'이요 등불이라 한다면, 혜는 '성성'이며 빛을 말한다. 등불과 빛은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일체만법의 경계를 당해도 본래 진여불성자리(생멸없는 공한 자리)를 관하는 것을 '선(禪)'이라 하고, 그 경계에 집착하고 물들거나 흔들림이 없는 것을 '좌(坐)'라 한다. 또 모든 존재 현상에 살면서도 존재 현상에 구속을 당하거나 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하며, 안으로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定)'이라 하고 이것을 선정삼매라 한다.

무념 · 무상 · 무주의 실천

혜능 스님은 불지견이 중생의 마음속에서 본래 자연지로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불성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사상으로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로 근본을 삼을 것을 설했다. 무념은 부처로서의 실천행으로 모든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생각이라도 어느 한 경계나 사물에 대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상은 상을 떠난 것으로 자기 색신 속의 자성 삼신불에 귀의하게 하여 청정한 마음 달이 바로 자성불임을 확신하면서 바로 지금 즉신성불할 것을 강조했다. 무주는 사람의 본래 성품이 한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혜능 스님에 의해 <금강경>의 반야바라밀의 정신에 의거해 남종선의 실천사상으로 정리됐다.

13면으로 이어짐

■선입문서 안내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가격
<간화선>	원용 스님	장격각	6천원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길>	김열권	선재	8천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펠 스님	여시아문	3천6백원
<꽃 피고 물 흐른다>	인권환	나남출판사	9천원
<나를 찾아가는 101가지선이야기>	폴렙스 외	화남	9천원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리네>	박영재	운주사	8천5백원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9천원
<길을 걷는 자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컴퍼니	9천원
<깨우침>	석다정	백양출판사	9천8백원
<달마에서 성철까지>	박영규	들녘	8천원
<대도무문>	정태혁	불교영상회보사	8천원
<대자유인 선사>	김형중 외	조계종출판사	7천원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	박영재	불광	1만원
<마음을 관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들 수 있다>	법성 스님	운주사	1만원
<몸과 마음이 사라져 가는 여행>	지운 스님	법공양	9천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여시아문	4천8백원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주디스 블랙스톤	이두	4천5백원
<묻지 않는 질문>	현응 스님	민족사	1만2천원
<믿음 지혜 그리고 깨달음>	지현 스님	성정출판사	3천5백원
<박희선 박사의 생활참선>	박희선	정신세계사	1만원
<방편개시>	허운 스님	여시아문	6천원
<100문 100답 선불교강좌>	일지 스님	대원정사	8천원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7천원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후동	여래	7천원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 미첼	여시아문	9천원
<부처를 살리는 선>	조해인	명상	7천원
<부처에서 점승까지 (짧고 길게 읽는 선이야기)>	심선영	서조	4천5백원
<불교 선수행의 핵심>	네나포티카	시공사	7천원
<불교수행법강의>	남회근	씨앗을뿌리는사람	3만원
<삶은 고가 아니다>	혜원 스님	여시아문	6천원
<생활선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향봉	밀알	8천5백원
<생활속의 좌선수련 20년>	권영두	운주사	7천5백원
<생활수행 이야기>	법상 스님	불광출판부	5천원
<선(나와 대우주의 하나된 호흡)>	오선명	동촌	1만5천원
<선가어록>	혜원 스님	운주사	1만원
<선과 좌선>	김호귀	석란	9천원
<선,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9천원
<선문답의 탈근대 교육>	서명석	아름다운세상	1만3천원
<선, 문 밖에 나서다>	해탈 스님	여시아문	1만4천원
<선문선답>	오현 스님	장승	8천5백원
<선방의 아침>	석원연	들꽃누리	9천5백원
<선방일기>	지허 스님	여시아문	5천원
<선불교의 이해>	성본 스님	동국대경주 캠퍼스정각원	3천원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념 스님	장승	1만원
<선, 삶의 요리법>	버나드글라스먼	불일출판사	7천5백원
<선시 303수(깨달음의노래)>	권영한	전원문화사	1만원
<선 심리치료학 개론>	도각 스님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1만2천원

목숨 건 간절함으로 화두 들자

"간화선 수행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갓 수행에 입문한 사람들은 물론 간화선 중참자들이라도 갖는 고민거리다. 게다가 직장과 가정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재가자들로서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 그럼 간화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구체적인 실참법, 화두 선택법,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병통과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등을 조계종이 발간 준비 중인 '(가제)조계종 수행지침서 간화선'과 관련 서적을 통해 알아본다.

좌선 자세

좌선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삼매에 드는 것이다. 좌선자세는 명상과 정신집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자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부좌를 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번뇌나 망상 속에 헤매거나 주위의 경계나 사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자신의 본래면목을 되찾는 훈련이다.

좌선의 구체적인 자세는 고요한 곳에서 두터운 방석을 깔고 하며, 발은 두 발을 반대편 넓적 다리 위에 놓는 가부좌가 기본이다. 이 때 어느 쪽 발이 위로 와도 상관없지만 몸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는 두 발을 번갈아 위에 두는 것이 좋다. 또 두 발은 '일(一)'자가 되어 몸이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하며,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손은 포개서 발 위에 편하게 놓는데 위에 두는 손은 발의 순서와 일치하면 된다. 이 때 두 엄지손가락 끝은 서로 맞대야 한다. 눈은 지그시 떠서 졸음을 쫓아야 하며 시선은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손끝이 닿는 지점에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다리가 아플 경우는 살며시 바꾸어 놓아도 무방하다. 망념이 일어나면 다만 망념인 줄 알아채면 저절로 사라지니 절대로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

좌선 끝낼 때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단으로 좌선하는 선방에서는 끝내는 신호에 따르기만 하면 되지만 혼자서 좌선하고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좌선이 끝나 일어설 때에는 천천히 몸을 움직인 후에 편안히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서서는 안 된다. 좌선에서 일어난 뒤에는 어느 때나 항상 좌선의 방법에 의해 선정(禪定)의 힘을 보호하고 유지하기를 어린애를 돌보듯 해야 한다.

화두의 결택

화두의 생명은 무엇인가. 철저히 상대적 개념의 세계를 벗어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행동하는 선의 특징에 있다. 화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로 몸과 마음에 의심의 열기를 가득 채워, 마침내 그 의심의 덕이 터지는 경지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화두도 발심이 온전히 안 된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다. 자신이 깨달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의 단계인 발심이 없이는 화두를 들 수도 타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발심은 생사 고를 뛰어 넘어 근원적 자유를 실현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화두참구는 삶 속에서 자신의 본래면목에 대한 진정한 의심이 일어나면 기필코 해결해 내리라는 마음을 내고 물러섬 없이 몰입해 들어가야 한다.

스승이 내린 화두 자신에게 맞다 안맞다 판단해선 안돼

두 발 반대편 넓적다리에 올리고 다리 들리지않게 주의

화두의 결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화두 자체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사람에 따라 더 잘 들리는 화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화두가 있을 뿐이다. 수행자의 타고난 됨됨이나 살아온 과정 등에 따라 간절한 의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화두가 분명히 있다. 때문에 수행자의 기틀에 맞는 화두를 잘 선택해 줄 수 있는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한다.

수행자는 스승이 선택해준 화두를 불들고 한결같이 참구해야 한다. 어떤 화두든 하나의 화두만 꿰뚫으면 공안의 깊고 낮음, 어렵고 쉬움, 갑고 다름에 관계없이 모든 화두를 타파하게 된다.

특히 화두를 선택할 때는 대개 자신의 근기에 맞게 택하고 걸고 리에 물리듯 걸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신의 화두가 된다. 일단 한번 정한 화두는 함부로 바꾸지 말고 의심의 끝을 타파하려 노력해야 한다.

화두 선택시 주의할 점

자신에게 꼭 맞는 화두를 고집하면 안 된다. 화두는 옛 선지식이 저마다 다른 수행자의 기틀에 맞춰 적절하게 쓴 영약이다. 선지식은 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 화두를 주고, 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 유를 깨뜨리기 위한 화두를 줬다. 때문에 수행자는 선지식이 제시한 화두에 쉽게 의심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스승이 내려준 화두에 대해 '그것이 자신에게 맞다 안 맞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화두의 내용을 의심해야지 그 자체에 시비를 삼는 것은 발심이 잘못돼 있거나 스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그렇다.

화두는 확고한 발심이 됐을 때 참구해야 한다.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조급하게 화두를 들게 되면 병통이 생긴다. 그래서 화두는 선지식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가르침 속에서 받아야 한다. 진정한 선지식이 자신의 온 생명을 내걸 수 있는 화두를 제시했을 때만이 그 화두는 활구로서 작용하게 된다.

화두는 오직 한 화두만을 들고서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한다. 화두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화두 하나를 타파하면 다른 화두도 자연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화두를 바꿔가며 참구할 필요가 없다.

6면으로 이어짐



큰 믿음·분심·의심이 '한소식' 열어줘

5면에서 이어짐

호흡

수식관(數息觀)은 좌선을 하고 있는 자기의 호흡을 하나하나 세는 관법인데, 호흡을 세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자기의 호흡을 하나에서 열까지 혹은 스물까지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시켜 세어 보는 것이다.

호흡은 한 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것을 하나로 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혹은 스물까지 틀리지 않고 세었다면 다시 열이나 스물에서 거꾸로 세어 내려온다. 중간에 잡념이 일어나 숫자를 잊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또 다른 수식관은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하~나'하고 단전에 완전히 들여보내고 잠시 단전에 머물게 한 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두~울'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의 호흡을 관찰하며 세어보는 방법이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체질과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세어 본다.

이 방법이 초보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잡념이 들어갈 시간적인 여유와 공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호흡과 일치되어 삼매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반복하여 자신의 호흡을 마음으로 관찰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세고 있는 마음의 목소리를 마음의 귀로 또렷하게 듣고 자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구법

화두참구의 핵심은 간절한 의심을 일으키는데 있다. 가령 '이뭣고' 화두를 예로 든다면, '이뭣고' 할 때 '이'를 약간 길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하는 그 놈이 '뭣고?'하며 의심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이~뭣~고?'하면서 의심을 길고 간절하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의심이 몰록 터져 나와야 망념이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 화두를 들며 역력하게 깨어있게 되면 망념이 정지되는 순간이 거듭 오게 된다. 이런 상태가 굳건해져 어떤 경우라도 '이뭣고?' 하고 드는 화두를 놓치는 일이 없게 돼 오고 가는 생각의 길이 단절돼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일컬어 의심덩어리 곧 의단(疑團)이라 한다. 이 의심덩어리를 타파하면 확철대오하게 된다. 여기에 화두참구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삼심(三心)이다. 첫째로 화두에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대심신이고, 둘째는 화두를 참구함에 있어 자책감을 치밀어 오는 대분심이다.

마지막으로 화두에 대해 철두철미한 의심하는 대의심이다. 이 세 가지가 마치 솥발처럼 작용해야 한다.

화두참구 시 주의할 점

화두를 참구(參究)하는 것을 화두를 관(觀)하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 화두참구는 화두에 의정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관한다는 것은 화두에 정신을 집중한다는 의미다. 화두는 참구해야지 그냥 집중만 해서는 진정한 의심이 일어나기 어렵다. 참구란 오롯이 의정을 이룬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인 반면 관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계속 집중해 관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왜 화두를 관해서는 안 되는가. 화두를 관하면 나와 관찰되는 화두가 서로 나눠지게 된다. 즉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화두를 대상화해 관하면 그것을 화두를 드는 것이 아니다. 화두를 따라가며 관찰하는 것이다. 나라는 주관과 화두라는 객관이 나눠져 나와 대상, 주관과 객관, 나와 화두가 분리된다. 화두참구는 화두가 나와 하나가 돼 삼매에 들어야 한다. 요컨대 화두를 대상으로 관하면 나와 화두가 분리돼 타성일편이 되지 않는다. 관념으로 화두라는 하나의 허상을 만들어내 그 허상과 일치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둘째 화두가 들리지 않을 때 주력이나 화두를 입으로 소리 내어 외거나(誦話頭), 마음속으로 외면(念話頭) 안 된다. 화두참구의 생명은 의정을 일으키는 것인데, 만약 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두참구라 할 수 없다. 비록 잠념 없이 연이어 외워 화두에 지속적으로 몰두 할 수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화두를 타파할 수 없다.

병통의 극복

좌선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 이것을 '마군의 장애'라고 해서 '선병'이라고 한다. 진각 혜심 선사는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 '조주 무자' 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열 가지 병통(十種病)을 말하고 있다. △있다 · 없다로 이해하지 말며 △이치로 이해하지 말고 △분별의식으로 헤아리거나 알아맞히려 하지 말며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것에 알음알음을 두지 말고 △말과 글의 틀로 살림살이를 짓지 말며 △아무 일 없는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화두를 들어 일으키는 곳을 항해 알려고 말며 △문자를 끌어와 증거 삼지 말고 △유무를 초월한 참된 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상 10가지 병통은 말 길과 생각의 길이 끊긴 곳에서 공부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특히 '어서 빨리 이뤄야지' 하는 속효심(速效心)을 내서는 안 된다. 속효심은 상기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성급한 마음만 키워 신경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속효심이 생길수록 화두공부는 더디게 된다. 속효심을 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른 발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망상이 돼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고 마음만 조급해지게 한다.

병통 가운데 가장 큰 선병이 상기(上氣)다. 상기는 기운과 열기가 머리로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화두를 급히 든다든가 과격하게 혹은 억지로 들 때 머리가 깨질 듯 아프게 한다.

그럼 상기를 다스리는 법은 무엇인가. 우선 몸이 화끈화끈 해지면 바깥으로 나와 바람을 쐬고 마음을 쉬고 가다듬어 조용히 화두를 든다. 그래도 상기가 돼 머리가 아프면 새벽시간에 호흡법을 통해 상기를 내리도록 한다. 또 허리를 곧게 펴면 호흡이 자연스러워져 상기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상기병이 악화돼 도저히 화두를 들 수 없을 경우에는 절 수행으로 상기병을 고칠 수 있다.

또 화두를 빈틈없이 챙기지 못해 오는 '혼침(정신이 몽롱한 상태)'과 '도거(마음이 산란하여 들떠는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거나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잠자는 시간을 잘 조절하면 된다. 이외 '수마(잠 마군)'와 '색욕'은 화두 수행자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장애다. 먼저 수마를 다스리는 법은 참선할 때 반드시 눈을 뜨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을 알맞게 섭취해야 한다.



졸음은 간화선 수행의 무서운 적이다. 수행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념으로 화두를 들어야 한다. 사진은 서울 보림선원의 참선정진 모습.

수식관 때 호흡 세다가 숫자 잊으면 다시 시작
'빨리 이뤄야겠다' 조급하면 신경 날카로워져

'불립문자'를 읽는다, '깨닫기 위해'

바른 안목 갖추는 방편…공부모임 늘어 ▌뜻풀이에 그치는 '알음알이' 초월해야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아무리 전함 없이 전했다 해도, 전해주는 상황이나 연유를 몰라서야 된단 말인가?"

11 세기 중국 송나라 시대에 선사들의 이야기 모음집인 <경덕전등록> 편집에 참석한 장락정앙(長樂鄭昂) 스님은 선의 체험은 전할 수 없지만, 선사들이 깨닫게 된 상황과 전후 사연은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어록의 존재이유를 밝힌 대목이다.

선사들의 깨닫기까지의 수행과, 깨달은 순간들의 상황을 기록한 선어록. 왜곡된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견해를 따르는 이들은 선어록을 우리 말로 공부한다든지 해석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최근 선어록이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판단아래, 선어록 공부 모임이 늘고 있다.

물론 선어록 공부는 단순히 선종 어록을 읽고 뜻을 풀이하는데 그치는 알음알이 공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선어록 해설과 설법을 통해 자칫 빠지기 쉬운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반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깨닫는 일이야 수행자가 주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유발하는 동기 유발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어록 공부는 이제 참선 수행자들의 인기있는 공부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어록과 간화선 수행의 상관성에 대해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이렇게 설명한다.

"간화선이란 당대 선승들에 의해 이루어진 선문답(대화)을 읽고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입니다. 법을 토대로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바는 많은데 이를 체계화하지 못합니다. 구슬은 많은데 꿸 실이 없는 것이죠. 경전은 바로 이 불법의 씨줄과 날줄을 형성하는 것으로, 경전을 읽음으로써 불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을 닦을 수 있습니다."

역대 선사들은 경전을 읽는 '간경(看經)'과 선어록을 읽는 '간화(看話)'로 불법의 대의와 다양한 지혜를 체득하도록 했으며, 조실 스님들은 정기적인 상당법문(示衆)으로 수행자의 안목을 열어주었다. 선어록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개된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불법의 정신과 사상을 생활 속에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참선 수행자들이 애독해 온 경전과 선어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역사적으로도 가장 인기를 끈 참선 공부의 교과서는 단연 <금강경>과 <육조단경> <서장> <벽암록> <임제록>일 것이다.

이밖에도 <선요> <선문촬요> <몽산법어> 등 많은 선어록들이 참선 공부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선가에서 많이 읽는 어록들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자.



참선 수행자들이 읽어야할 선서

서장(書狀)
본래 제목은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선문의 요지를 직접적이고도 철저하게 설명해, 공부하는 스님 사이에는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해왔을 정도다. 수록된 62편의 서신 가운데, 스님 2인, 여성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의 지식인이자 관료와 주고받은 편지글이다. 대혜 선사는 책에서 "익숙한 것은 서툴게 하라. 그리고 서툰 것은 익숙하게 하라. 수행이란 한마디로 그것밖에 없다"고 말한다.

선요(禪要)
선(禪)의 요체에 대한 설법집이다. 고봉스님의 도를 깨친 후 20여년간 설법했던 것을 시자 지정(持正) 스님이 기록하고 직옹 거사가 편집하여 <선요>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총 29장으로 되어있으며 "큰 뜻(大志)을 세워 '현묘한 관문(玄關)'을 꿰뚫을 것"을 종지로 한다.

선문촬요(禪門撮要)
조선 중기 휴정(休靜) 스님이 달마(達磨) 이래의 여러 선사들이 선학의 지침으로 삼았던 글을 모은 선학서. '마음이 부처'임을 밝힌 역대 조사들의 골수 법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신심명(信心銘)
3조 승찬 스님의 저술로 선의 극치를 불이중도(不二中道)로 보아 모든 대립과 차별, 시비와 득실의 망념을 떠나 평등 자재한 경지에 머무른 것을 설한 선시이다. 선승들에게 널리 읽혀 초기 선사상 형성에 기여했다.

몽산법어(夢山法語)
송나라 몽산덕이, 동산 숭장주, 고담 및 고려의 나옹스님 등 5사의 설법 11편을 엮은 것으로 고려말 혜각스님이 '환산정응선사가 몽산에게 주신 법어' 등으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 근대에 들어 경허 · 용성 · 혜암 스님이 몽산법어 강설을 했다.

진심직설(眞心直說)
보조국사의 저술로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참마음(眞心)의 명칭과 본질, 미망의 근원, 참마음을 드러내고 증득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혈맥론(血脈論)
보리달마의 혈맥이 견성성불(見性成佛)에 있음을 문답형식으로 논술하고 있다.

관심론(觀心論)
마음 보는 법을 기술한 초기 선종의 어록이다.

보리달마사행론(菩提達摩四行論)
도(道)에 이르는 두 길, 곧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을 제시하고 행입에 다시 보원행(報怨行, 전세 원한의 대가를 치르는 실천), 수연행(隨緣行, 인연에 따르는 실천), 무소구행(無所求行, 바라는 마음이 없는 실천), 칭법행(稱法行, 진리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네가지 실천을 말하고 있다.

최상승론(最上乘論)
홍인 스님의 저술, 문답형식으로 수심요결을 밝힌 동산법문의 어록이다.

완릉록(宛陵錄)
당나라 황벽희운 스님이 완릉 개원사에서 한 설법을 제자 배휴가 엮은 어록이며 요지는 즉심시불(卽心是佛)이다.

전심법요(傳心法要)
문답체의 황벽희운 선사의 어록이며 요지는 심즉시불(心卽是佛)이다. 달마선종의 정통사상과 육조 혜능의 식심견성(識心見性)의 돈교법문(頓敎法門)이 담겨있다.

선경어(禪警語)
명나라 박산무이가 참선할 때 생길 수 있는 병통과 대치방법을 제시하고 선승들을 경책하기 위하여 지은 글이다.

수심결(修心訣)
보조국사의 저술로 마음 닦는 요결을 논술하되 정혜등지(定慧等持)의 필요를 말하고 돈오점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보조지눌 스님이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를 맺고 결사의 이념과 수행의 지침을 밝힌 선언서. 형상에 집착하고 명리에 골몰하는 당시의 불교교단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명리를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습정균혜(習定均慧)에 힘쓰고 달사진인의 고행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간화결의론(看話訣疑論)
보조지눌 스님의 저술. 화엄원교 법계의 걸림없는 연기가 매우 뛰어난 사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구를 벗어나지 못하니 대혜종고가 제창한 경절의 활구를 참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
고려 천책이 편찬한 것으로 '선과 교를 분별하는 문' '여러 강사들이 수긍하고 귀의하는 문' '군신들이 존중하고 신앙하는 문' 등 3문으로 나눠 당시 쟁점이 된 선과 교의 갈등을 선에 의하여 교를 포섭하여 회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교석(禪敎釋)
조선 휴정 스님의 저술. 묘향산 금선대에서 제자 행주, 유정, 보정 스님등 3인을 위하여 여러 조록과 사례등을 인용하여 선과 교를 판석하되 교가의 원교와 돈교조차 교외별전의 선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금강경' '육조단경' '벽암록' 등 애독 넘어 필독서로
선사들 화두타파 일화 · 선 이론 등 '공부의 토대' 제공

‘각종 통증완화’ 쑥뜸기 · 좌훈기 개발 출시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쑥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제품 – 쑥뜸기, 좌훈기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www.moxa4u.com



오행 쑥뜸기

■ 오행 쑥뜸기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 제품의 특징

1. 기존의 1구짜리 간접구와는 달리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쑥뜸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2. 쑥뜸기 바닥에 온열판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온열로 인해 피부의 모공(땀구멍)이 넓어지면서 쑥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 및 유효성분들이 체내로 유입되어 치료효과가 증대된다.
3.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1회 30분간 쑥뜸을 하게 되며 쑥뜸시 발생하는 쑥연기가 실내에 잔류하지 않고 실외로 배출된다.
4. 기존의 간접구에 의한 쑥뜸기와 달리 피부에 화상위험이 없으며 쑥뜸을 뜨는 도중 링의 높이를 조절할 필요성이 없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 수 있다.
5. 배꼽(신궐혈)을 중심으로 중완,관원,천추혈(2개) 등 5개 혈자리의 위치가 인체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어,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들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 좌훈기

■ 오행 좌훈기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 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갱년기 장애

● 제품의 특징

1. 본체 내에 히터를 장착함으로써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본체내부의 온열로 인하여 피부의 모공이 열리면서 쑥의 유효성분이 체내로 유입되어 치료효과가 증대됩니다.
2. 훈증토출관(앞)에 스프링이 내장되어 높낮이가 조절되며 기존 좌훈기와 달리 쑥뜸열기가 치료부위에 집중됩니다.
3. 기존의 좌훈기와는 달리 실내에 쑥연기가 잔류하지 않고 실외로 배출되는 특허제품입니다.
4. 자궁과 항문의 접촉부위가 실리콘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므로 위생적입니다.
5. 좌훈기에 등받이가 설치되어 쑥뜸치료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양 쑥뜸기

■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 제품의 특징

1. 기존의 간접구와는 달리 무릎관절(독비혈), 머리(백회혈), 어깨(견정혈), 허리(명문혈) 등에 간편하게 쑥뜸을 할 수 있다.
2.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35분간 쑥뜸 후 전원이 차단되며 쑥뜸 시 발생하는 쑥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된다.
3. 기존의 쑥뜸기와 달리 피부에 화상위험이 없으므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 수 있다.
4. 쑥뜸기에 1회 2개까지 쑥봉을 넣어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따라 쑥봉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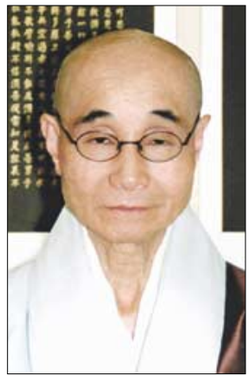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D.M.I산업, 대구한의대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모사포유 www.moxa4u.com

■ 제품 구입 문의: 02)598-9834 ■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02)521-6353~4, 02)521-4405

‘마음이 곧 부처’ 깨닫는 게 핵심

지유 스님
범어사 조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순간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고 있다니, 깨달은 사람이나 마음을 볼 수 있지 어떻게 중생들이 마음을 볼 수 있느냐고 보통사람들은 말한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알았다 해서 비로소 물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물속에서 살게 되고, 그것을 몰랐다 해서 물밖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물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항상 물속에 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조용히 앉아 있어보면, 그것이 공부가 됐든 안됐든, 괴롭든 괴롭지 않든, 깨달았든 깨닫지 않았든 간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다.

18살에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미륵암 마루에서 ‘심시불(心是佛)’이란 글귀를 보고 순간 깨달았다. 그 글을 읽기 전까지 그렇게도 멀게만 느껴졌던 3천년 전의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경험이었다. ‘마음 안 가진 이 없으니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환희심이 절로 났다.

간화선 수행은 이처럼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요체가 있다. 선은 내가 자신 속의 불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선은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속의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의 정체를 확인해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해도 한 바가 없이’ 물들지 않고 생활하게 된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 잊어야 바로 봐

닦을 것 없는 자리에 갔을때 ‘견성’

임제 선사나 황벽 선사는 “닦을 필요가 없다,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내자마자 십만 팔천리나 틀려먹었다”고 했다. 자기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잘못됐다는 말이다.

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십년 동안 손가락만 오매일여로 보고 있었다고 하면 달을 볼 수 있겠는가?

화두공안도 ‘이뭣고’ 하든지 ‘무(無)’ 하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다보면, 진짜 화두는 화두가 없다. <선문촬요>에 보면 화두공안이 하나도 안 나온다. 화두공안을 손가락에 비유하면 손가락을 제쳐놓고 달을 바로 가리켜 줬다. 오히려 손가락을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보는 사람이다.

실지 화두공안의 참뜻은 닦을 자리 없는 자리에 갔을 때에 깨닫는다. 선사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닦을 것이 없다 까지 간다. 그게 힌트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닦을 것이 없다’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닦을 것이 없다는 그 말에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의심이 안 날 수가 없다.

내 공부가 그랬다. 화두밖에 몰랐고 평생 화두공안을 들었다. 수행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인 수마도 이렇게 조복을 받았다. 정진이 끌나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산 하나를 걸어 왕복하고 어슴프레 밝아오는 새벽을 맞아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인연 닿는 대로 오는 것을 취하되 한번도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2미터 앞에 화두 놓고 바른자세를 …

진제 스님
동화사 조실



화두를 투과한 깨침의 세계는 눈앞의 중중무진한 모든 관문이 싹 없어지고 진리의 세계가 현전(現前)하게 된다. 화두참구는 이처럼 심성(心性)을 찾는 공부다. 즉 마음의 고향이란 곳에 모든 진리와 모든 덕과 복이 다 갖춰져 있음을 보는 것이다.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참나’를 알지 못해 쓰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면 되겠는가?

마음의 고향, 심성의 본향에는 천 사람 만 사람이 동일하게 갖춰져 일체 차별이 없다. 바른 선지식, 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바른 수행을 듣고 바르게 배워서 연마하면 다 된다. 아무리 서울이 멀다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달만 걸어가면 서울에 도착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심성을 보면 8만4천 가지 법을 알게 된다. 견성하면 일체가 차별이 없고, 천차만별이 다 한가지다. 밝은 대낮에 사물을 보면 열 사람이 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밤중에 보면 다 제각각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백일하에 심성을 본다면 일체 시비장단이 없다.

간화선 수행은 바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길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선지식, 지도자를 찾아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참구하는 법, 바로 참선을 지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만 바로 받아 놓으면 어디든지 산이나 들이나 장사를 하나 기업을 하나 아무 관계가 없다. 마음으로 지어가는 이 참선수행법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화두를 참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럼 화두참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두 달아나면 힘 들어가 상기 될 수도

호흡 신경 쓰지말고 오매일여 참구를

참선을 할 때는 항시 2미터 앞 아래에다 화두를 두라. 이러면 상기도 피하고 바른 자세가 유지된다. 항시 아래에다 두라는 것은 화두가 달아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용을 쓰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힘이 들어가면 상기(上氣)가 돼 머리가 무거워서 더 이상 화두참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화두참구할 때 항시 생각을 아래에 두어 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뜻에서 아래에 두라는 것이다.

그리고 2미터에 두라는 것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2미터 앞에 화두를 두면 바른 자세가 유지된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야 오래 앉아도 피로가 없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다. 허리가 굽으면 피로하고 위장에도 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혼침 망상에 끄달려 화두를 성성하게 들 수가 없다. 또 이렇게 2미터 앞에다 화두를 두면,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을 하나 밥을 하나 목욕을 하나 늘 화두가 무르익어진다.

특히 간화선에서 화두가 핵심이 되니 호흡에는 신경을 쓰지 마라. 호흡 장단을 맞추려니 화두 일념이 잘 안 된다. 화두는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화두일념이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쭉 흘러가야 된다.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일념으로 흘러가야 한다. 일념삼매가 지속이 안 되면, 화두타파가 안 된다. 일념삼매가 쭉 지속이 되는 과정이 오면, 그때는 진의(眞疑)가 발동이 돼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서 밤이 되는가 낮이 되는가 다 모르는 게 돼 일념삼매가 된다. 그렇게 지내다가 흐르고 흐르다가 며칠이고 계속되다 보면 찰나에 듣는 찰나에 화두가 깨지게 된다.

간화선 수행은 화두를 참구하는 동시에 의심이 병행된다. 제목과 함께 의심이 오매불망하면, 의심삼매 · 일념삼매의 경계에 이르게 되고, 그럴 때 전후지일체분별이 사라지게 된다. 의심과 화두제목은 수레의 양쪽 바퀴마냥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 의심이 커지고 화두일념이 되면 깨달음이 열리게 된다.

자기 감정에 속지 않아야 진짜 주인

혜국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얘기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몸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주인공, 법문을 들을 줄 알고 눈을 뜰 줄 알도록 하는 소소영영한 그 기운이 내 마음의 주인공일진대 주인을 내버려두고 감정이 하자는 대로, 도적놈이 주인노릇 하도록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화두 드는 수행자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조사관을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두 조사관을 타파하고 도를 깨닫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하는 도중에 뭔가 나타나거나 뭔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 오늘부터는 화두를 등불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화두에 의지해서 망상번뇌에 속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누가 '참나'인가.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라면 떠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들 몸에서 영혼이 딱 나가면 눈이 떠지는가. 그럼 영혼이 나인가. 아님 이 몸뚱이가 나인가. 화두참구법은 참나를 찾아 나서는 길이다.

참선 공부는 깨어있는 방법이다.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부처를 깨우는 공부법이다. 잠들어 있는 부처를 깨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시기질투, 번뇌망상을 화두로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화두는 부처요, 망상은 중생이니 '중생'을 '부처'로 바꿔야 한다. 내가 내 마음 안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의 눈만 '딱' 떴을 때, 내가 부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보면 나와 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라고 하는 벽이 있어서 나와 네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뭣고' 하는 '이' 하는 놈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 농사'라 한다. 매일 '이뭣고' 하며 내 마음 농사를 얼마나 지었는가, '이뭣고'를 스승 삼아 '이뭣고'를 할 줄 아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간절하게 의심하면 망상 저절로 사라져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화두를 잘 든다는 말은 성성(惺惺, 지혜의 측면) 적적(寂寂, 선정의 측면)한 가운데 화두의심이 간절하게 뭉쳐 있어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치 화두 의심은 큰불덩어리 같아서 큰불덩어리에 나비나 벌(망상)이 접근 할 수 없는 것처럼 간절히 의심하는 가운데 망상은 저절로 쉬어지게 되어 있는 가장 힘 있는 수행법이 간화선이다.

그럼 간화선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참마음', 즉 본래부터 부처님과 내가 한점의 오차없이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데 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신심, 큰 발심(분심), 큰 의심(화두의심)을 위해서는 일상의 삶이 무아, 공, 연기의 이치를 잘 알아 자기(에고)를 비우고 자비심과 소욕지족으로 용심(用心)을 잘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 망상만 놓아버리면 본래부처다.

망상을 따로 버리려고 하지 말고 화두만 챙기면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하루 1시간씩이라도 간절하게 하면,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간절히 하다보면 나중에는 빨래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다 된다. 그러면 화두를 작드는 순간에 망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참 마음의, 진리 생명의 힘으로 사니까 나날이 좋은 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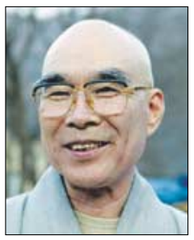
가야산 해인사 선원에서 정진하고 지내던 젊은 시절, 성철 스님은 "수행자는 첫째로 명리심을 버려야 한다"고 수좌들에게 강조했다. 그간 수행을 하면서 늘 그 말씀을 늘 새겼다.

그리고 스님에게 '마음도 물건도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란 화두를 받았다. 마침 <원각경>의 '문수장(文殊章)'에 본 '세상은 무명(無明)에 덮여 있다'는 구절은 마음과 세계의 본질이라고 여긴 것이 실상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에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이후 '무명이 아닌 그것'을 계속 참구했다.

화두의 생명은 바른 의심이다. 간절하게 의심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면, 성성적적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그랬다. 오로지 의심만 남아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는 절대고요다. '백지'나 '어둠'을 연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미지 조작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를 보게 됐다.

'깨쳐서 얻을 게 있다'는 착각 벗어나야

고우 스님
각화사 선덕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연기(緣起)의 법칙이다. 부처님께서 깨친 법은 곧 연기이자 공이기에 무아인 것이다. 보편적 진리이고,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에 위배되는 것은 허구이고, 허상이다. 이를 철저히 깨는 것이 선종이다.

선종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중도연기를 가장 정확히 계승한 종파다. 선은 다만 체험을 강조할 뿐, '본래 성불'임을 철저히 계승한 종파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치기 전에는 뭔가 얻을 게 있고 깨칠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치고 나니 내안에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도 얻을 것이 없었구나', '내 안에 모두 완성되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래서 선어록에도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게 견성(見性)'이라고 한다. 깨칠 것이 있고 얻을 게 있다는 공부는 그래서 잘못된 선 공부다. '본래성불'임을 알고 공부 하는 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공부다.

착각을 없애면 될 뿐 다른 수행이 필요 없다. 뭔가 있어서 닦는 게 아니라 유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 '깨칠 게 있다' '얻을 게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닦을 것이 없음을 닦는' 무수지수(無修之修)의 단박깨침(頓悟)을 강조하는 정통 조사선은 '본래부처'임을 철저히 믿고 늘 성성적적(惺惺寂寂)한 가운데 한 생각 일어 난 그 자리를 돌이켜 비춰보는 '회광반조(廻光返照)'의 공부다.

향곡 스님이 계셨던 묘관음사에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닌 이것이 뭣고?'하는 화두를 받고 정진을 시작했다.

동암에서 혼자 공부할 때<육조단경> "정혜불이품"에 '정혜가 하나가 되더라도 비도(非道)다.

하나가 되어 통류해야 한다'라는 대목을 보다가 이해도 아니고 체험도 아닌 어떤 느낌이 왔는데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말이 이해되면서 안목이 열렸다.

대의정 일으켜 쉼없이 화두 들어야

무여 스님
축서사 선원장



첫째는 대의정(大疑情)을 일으켜야 한다. 화두의 생명은 의정이다. 화두는 외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크게 일으키면 크게 깨치고 적게 일으키면 적게 깨치는 것이다.

둘째는 간절하게 해야 한다. 옛 조사 스님들은 화두를 들 때 '간절절(切)'자 하나면 된다고 했다. 즉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 하듯이 하라는 것이다. 너무도 절실해 눈물이 날 정도가 돼야 비로소 화두를 제대로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화두는 꾸준하게 쉼 없이 들어야 한다. 새벽 잠에서 깨어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쉼 없이 꾸준하게 들어야 한다. 옛 조사 스님들은 오늘월에 닭들이 알을 품듯이 하라고 비유했다.

나의 간화선 수행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은사인 희섭 스님의 죽비 아래서 선풍(禪風)을 쏘이면서 시작했다. 수행자로서 청정하게 사는 법을 은사 스님에게 배운 뒤 화두를 일념으로 들었다.

간화선 공부는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작용이 멸한 곳에서 발견되는 도리를 깨치는 것이다. 그래서 참선자는 선지식에 의해 공부길이 열리고 지혜의 눈을 얻어 공부의 힘을 얻는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선종의 조사들이 정한 법문인 화두를 통해 조사들이 보여 온 언어나 종사가 심지를 밝게 깨달음 기연 등을 공부규범으로 삼았다.

실참을 하면서 "왜 '무'라고 했을까"하고 궁일없이 의정을 일으켰다. 이유는 간단했다. 깨치기 위해서였다. 화두에 의심을 일으켜 그 의심이 간절하게 하고 점점 순숙하게 해 마음속에 가득해 나와 화두와 세계가 온통 의심덩어리가 됐다. 궁극에는 그 화두의 의심을 타파하게 되니 마음과 기운이 평온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어느 날 화두가 간절해진 순간, 화두에 힘을 얻었다. 분명하게 힘차게 들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화두가 몽중일여의 경계가 지나면서 신통하고 불가사의한 안목이 트이는 순간이었다.

생명 내 놓을지언정 화두 잃지 말라

인각 스님
범어사 금어선원장



차라리 생명을 내 놓을지언정 화두를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공부하라. 이 공부법은 화두공안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참구하는 간화선으로 귀결돼 있다.

처음에는 간화선 수행을 한 것은 아니다. 출가하기 전, 주력수행을 하는 노인을 통해 주력 공부를 시작했다. 10여 년 주력공부로 여러 가지 주력적인 수행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후 도인을 찾아 전국을 다니다 범어사로 출가해 공부를 이어가던 중, 어느 스님의 '의법불인(依法不人)'이라는 법문에 크게 느낀 바 있어 강원 졸업 후 범룡 스님의 토굴을 찾아 <화엄경>을 수학했다.

그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을 읽으며 한철을 배웠는데, 범룡 스님은 "경 공부가 끝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행 정진해야 부처되지, 말짱 소용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해제 될 때 쯤 '아, 선방에 가야 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

선방에 가기 전 21일 동안 불보살님전에 서원을 세워 참선 수행에 대한 확신을 얻고 참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엔 10년 동안 재미를 붙여온 주력 공부가 장애가 됐다. 그러나 죽어라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 날 아침에 홀연히 화두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화두에 힘을 얻게 됐다.

손을 들면 산도 밀려갈 것 같고 발을 뻗으면 저 땅도 꺼질 것 같은 힘이 생겼다. 그렇게 되니까 잠도 안 오고 아픈 것도 없었다.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팠다. 영리한 사람은 대체로 뭔가 금방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좇지만, 결국은 망식(亡息)을 벗고 참된 자아를 스스로 깨닫는 데 선의 큰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 각자의 수행법을 따르되 신명을 받쳐서 해야 한다. 신심(信心)과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 자기마음을 확실히 알아차릴 것 같으면, 청정진여(淸淨眞如)의 진불(眞佛)을 알게 된다.

선은 남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배부르듯이 공부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실참을 해야 한다.

선지식 확고히 믿고 대의심 내야

원융 스님
해인총림 수좌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것이 참선법을 단적으로 가장 간명하게 설명한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의미다.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의 자리로 가는 지름길을 안내하는 셈이다. 구경묘각을 이루는 것, 불성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종지다.

간화선이 전통적인 공부 길로서 자리하게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조사공안인 화두가 활구(活句)이기 때문이다. 세간의 학문과 철학은 언어문자를 통한 논리와 사상이 적용함으로써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선문의 활구인 화두는 모든 말과 생각이 함께 끊어져서 부여잡을 만한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맛과 취향이 없는 데에 그 생명이 있다. 아무리 심오한 불교교리라 하더라도 이는 모조리 사구(死句)로 규정하며, 아직 생사를 벗지 못한 것이다. 활구(아래서 깨치면 영겁토록 잊지 않고 사구 아래서 깨치면 자기마저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 활구인 조사공안을 어떤 방법으로 참구해야 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화두가 조주의 '무(無)'자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는데, "조주는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하고 항상 끊임없이 간절히 의심하고 참구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누구에게나 널리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공부 길이다. 이 무자 아래서 자성을 활연히 깨치면 무량겁래의 생사를 벗고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니 우리는 각자의 본참공안(本參公案)으로써 결판내어 당인의 본래면목을 되찾아야 한다.

또 선지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화두를 간하며 일으키는 대의심, 바로 이것이 간화선 수행의 핵심이다. 30년 넘게 해인사 선방에서 참선수행을 해오면서 '무엇이 불교의 본령인가' 궁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선과 교는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고, 만약 지나치게 교에 치우치다 보면 불교의 핵심종지가 흐려질 수도 있기에 선, 교 모두 언제나 동일하다는 인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불자라면 누구나 자성을 깨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선문이 가장 수승한 법문임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중생 구제하겠다는 큰 원 세워라

현산 스님
화엄사 선등선원장



하늘의 해가 떠올랐다 지고, 또 계속 떴다지고 하면서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 사람은 금방 죽음문에 당도한다. 세월이 무상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이란 것도 역시 고달파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법이다.

누가 알겠는가. 석자(三尺)도 못 되는 땅에 내 몸이 묻힐 것을. 금생에는 이 몸뚱이가 나(我)라고 생각했지만 한 줌 재가 되어버릴 것 같으면 과연 어떤 것이 나인가.

사람으로 태어나 바른 삶이라는 것은 가장 가깝게 있는 나를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나를 모를 것 같으면 바르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참 행복은 얻어질 수가 없다. 오직 이 순간에 가장 가깝게 있는 내 면목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선(禪)이라고 한다.

참선을 하려면 첫째, 마음을 비워야 한다. 수많은 생각이 얽히고 설켜 한 찰나간에 중생념을 다 지우고 비워야 된다. 그걸 다 비울 것 같으면 본래 물질이라는 것이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어서, 물질과 마음이 없을 때 온전한 참법계가 드러나고 내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된다.

'이뭣고'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선이다. 선공부는 오로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두를 들었을 적에 그것이 공부에 바로 들어가는 법이다. 그래서 나를 깨닫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바른 길이 참선법이요,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에게 전해준 법도 바로 이 법이다.

화두 하나 잘 들어서 나 하나 바로 깨달을 것 같으면 더할 나위 없는 무한공덕, 무한지혜가 드러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신심이 저절로 실해지고, 현실을 바로 보니 욕망과 그 증애(憎愛)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되고, 지혜심성이라, 마음 편안해지고 깨끗해지고 고요해지게 된다.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다. 그러면 마음을 닦는 사람이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항상 큰 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가짐,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중생을 다 내가 건져주겠다는 그런 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훨씬 빠르다.

'이뭣고' 드는 순간 전후 끊기고 空

정광 스님
봉암사 태고선원장



간화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발심이다. 초발심은 일체의 공덕이 다 갖춰져 내가 이미 부처라는 절대확신을 갖는 단초가 된다. 또 수행의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초발심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까지 이 마음을 쉬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선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된다.

참선을 하다보면, 일체의 차별이 벗어나 타성일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말과 글, 행위가 선에 일치하게 된다.

화두는 주관과 객관, 능(能)과 소(所)를 뛰어넘어 본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관법이다. 관하는 사람도 관하는 법도 뛰어넘어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화두를 드는 데에는 출·재가의 구별이 없다. 화두 들려고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다.

'이뭣고'를 드는 순간, 전후가 재단돼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는 '나'라는 중심점마저 끊어버려 태허공(太虛空)처럼 텅 비워져 일체가 끊어진다.

선을 선택한 이유는 이처럼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였다. 교설(敎說)로도 체험이 가능하지만, 둘러가는 것보다 간명하고 곧바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선이었기 때문이다.

출가 이후, 선에 뜻을 두고 전국 선방을 두루 다녔다. 그러다 20여 년전 봉암사와 인연을 맺고 가부좌를 틀었다. 오래있었다고 주위에서 날 '봉암사 터줏대감'이라고 부르던데, 나로서는 수행을 더 잘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간화선 수행의 특징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선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기에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허공 같이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다 이뤄지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 정신집중을 한다고 용맹정진 하는 게 아니다. 수행자는 일심으로, 변치 않은 마음으로, 불교에 대한 근본이치에 마음을 두고, 용맹정진을 해야 한다. 어려움이 바로 코앞에 닥쳤을 때일수록 '쉬고 또 쉬면서' 수행하는 것. '딱' 쉬게 되면 천만인을 상대해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그런 경지를 간화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된다.